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23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월 25일)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진우)과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2월 9일 오전 6시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상월결사 인도순례 고불식' 을 봉행했다. 사진은 순례단과 사부대중이 삼귀의를 하고 있는 모습.

'불교중흥 대장정' 상월결사 인도순례 첫 발

2월 9일 조계사서 고불식…대중 500명 순례단 환송

신성민 · 노덕현 기자

"상월의 정진이 불교의 중흥으로 나아가고 모든 생명이 차별없이 사회와 인류가 화합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님의 길에서 정진하겠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그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이 걸으셨던 길을 걸으며 수행 정진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43일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진우)과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2월 9일 오전 6시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상월결사 인도순례 고불식' 을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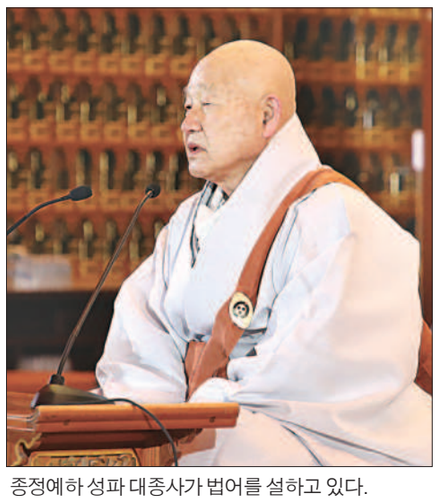
이날 고불식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교육원장 혜일 스님, 동국대 이사장 성우 · 상임이사 성월 ·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운집했다.

특히 주호영 · 김기현 · 조명희 · 송언석 · 김형동 · 이주환 · 김희곤 · 황보승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원욱 · 김영배 · 민병덕 · 이수진(비) · 권인숙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 정관계 인사들도 조계사를 찾아 순례의 시작을 축하하고 원만회향을 기원했다.

고불식에서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순례의 원만성취를 기원했다. 이번 순례가 "불교사상 유래가 없는 대작불사"임을 밝힌 성파 대종사는 "인도 성지순례는 일반적인 순례와 달리 우리 불자들의 본분인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라며 "안으로는 자아를 완성하는 진리를 깨닫고 밖으로는 모든 중생의 평화와 안락을 도모하는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룩한 행사에 모쪼록 처음부터 끝까지 무장무애 원만성취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고령 참가자인 前호계원장 무상 스님은 순례 대장정의 시작을 부처님께 알렸다. 무상 스님은 고불문에서 "부처님께서 뭇 생명들에게 앞서 다가가셨듯이 인도순례단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따라 길 위에서 자고 먹으며 부처님과 함께하고자 한다"면서 "각자는 일생일대의 더없는 수행의 기회로 삼고 모두는 불교의 희망과 수행과 원력을 이끌게 하는 더없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가 법어를 설하고 있다.

1167km 붓다로드 순례시작 알려
"상구보리 하화중생 실천과 같아"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 법어 설해
순례단 "불퇴전 정진할 것" 다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환송사를 통해 순례단의 공덕을 수희찬탄했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의 나라 인도에서 1167km, 약 삼천리 길을 걸어서 순례한다는 것은 일찍이 그 누구도 발원하지 못했던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일"이라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팔만사천 법문을 펼치셨던 그 현장을 직접 걷는다는 것은 불제자들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순례 대중은 발원문을 통해 물러섬이 없는 정진을 다짐했다. 순례단은 "저희 상월결사 순례단원들은 당신이 걸으셨던 인도의 흙길을 너와 내가 한발 한발 묵묵히 걸으며 이름 없는 들풀 하나 소리 없는 돌멩이 하나에도 불성이 깃들어 있음을 깨달아 뭇 생명 모두의 안락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고불식을 마친 순례단은 500여 사부대중의 환송 속에 인도로 출발했다. 2월 10일 인도에 도착하는 순례단은 현지에서 마지막 채비를 마치고, 2월 11일 부처님의 설법지인 인도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입재법회를 봉행한다. 〈입재법회 차주 상보〉

'생명존중, 붓다의 길을 걷다' 를 슬로건으로 봉행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비구 56명, 비구니 12명, 우바새 6명, 우바이 6명 등 총 108명의 순례단이 목조부처님을 모시고 순례를 진행한다. 이들은 부처님 8대 성지와 1167km를 43일 동안 걸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길 예정이다. 또한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조계종이 주최하는 다양한 문화교류행사들도 진행된다.

한편, 현대불교신문은 노덕현 편집국 부장이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동행 취재한다. 노덕현 부장은 인도 현지에서 순례단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사 령

명) 편집국 대기자 박재완
명) 편집국 부 장 노덕현
명) 편집국 차 장 임은호 2023년 2월 1일 부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세계일화 정신 회복으로 위기 극복하자”

2월 6일 불교리더스포럼 · 종단협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 봉행

대통령 내외 최초로 신년법회 참석
열암곡 부처님에 헌등하며 시작해

진우스님 “세계가 한 송이의 꽃”
윤 대통령 “불교는 따뜻한 등불”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리더스포럼은 2월 6일 서울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주요 내외빈이 화합 떡케이크를 커팅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조계종 기획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교계와 사회 각계각층의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위기 극복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을 서원했다.

불교계 30개 종단 협의단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이하 종단협)와 불교리더스포럼(상임대표 이기흥)은 2월 6일 서울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를 봉행했다. 코로나19 등으로 5년만에 열린 이날 법회에는 특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부대중은 물론 현직 대통령 부부가 처음으로 동참, 국태민안을 서원하고 한국불교 중흥의 상징이 될 열암곡 부처님 바로세우기 발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법회는 금강경 독송에 이어 국운융성과 국태민안 발원이 담긴 헌등으로 시작됐다. 진우 스님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열암곡 부처님 전에 등공양을 올리며 이 땅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서원했다. 이어 동참자들은 부처님께 3배 신년하례를 올린 후 서로가 서로에게 대중하례를 나누며 새해 안녕을 서원했다.

진우 스님은 신년법어에서 세계일화(世界一花) 정신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지구촌 전쟁과 기후위기는 모두가 한 이웃이라는 지구공동체 정신을 망각한 결과”라면서 “세계 전체가 한 송이 꽃이라는 세계일화 정신의 회복만이 그 해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부처님 바로 세우기와 한국불교 명상의 세계화라는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진우 스님은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은 우리 민족의 얼을 되살리게 될 것이며 국민 평안과 국운 융창의 결정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과거 천년을 일으켜 세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새로운 천년을 중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명상 세계화에 대해서도 “세계 속에서 유구한 우리의 민족정신과 전통문화의 자긍심을 현시대 현대인과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실천행인 K-명상을 통해 세계인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선구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두 가지 불사에 우리 정부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모든 국민들이 일심으로 원력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먼저 호국불교와 동체대비 가르침을 언급하며 불교계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나라 안팎으로 많은 도전과 위기들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과 불교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늘 기도하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 사회의 따뜻한 등불이 돼준 불교계에 깊이 감사하다. 불교계가 국난을 함께 극복해 왔던 호국불교의 정신, 동체대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이 법어에서 언급한 세계일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일화 정신은 보편적 가치를 향한 국제사회의 연대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면서 “정부도 사회적 약자와 우리 사회의 아픔을 더 세심하게 보듬고 따뜻한 온기가 국민의 삶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법회를 공동주최한 종단협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과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는 신년인사로 법회 봉행 의미를 전했다.

무원 스님은 ‘소통과 화해’를 통한 회통(會通) 정신을 강조하며 “어려운 가운데도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해 나가고 있듯이 모든 국민들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자”고 말했다.

이기흥 상임대표는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움츠렸던 모든 국민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불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면서 “상생과 화합을 통해 경쟁으로 심화되는 사회적 갈등지수를 낮추고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이 땅에 더 많은 이들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해 인류의 희망이 되게 해달라”면서 “변화무쌍한 세상사의 본질을 밝히고 여러 대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발원했다.

각계각층에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신년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한국불교의 단단한 뿌리 역할을 하고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해결과 국민 통합정신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대법회는 불법승을 외치며 6.4m에 달하는 ‘화합 떡케이크’ 커팅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종단협의회 30개 종단 대표, 조계종 부실장 스님,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등 주요 소임자 스님과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 구태서 현대불교신문사 대표 등 언론사 관계자, 주호영 정각회장,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포교 및 신도단체 회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비구니회, 2023년 샤카디타·회장 선출 만전

2월 9일, 운영위원회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가 올해 첫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한 해 추진사업을 공개했다.

전국비구니회는 2월 9일 매따 공연장에서 제3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재무 보고와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 건을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2023년 사업 계획에 따르면 전국비구니회는 △4월 수행결사회향 △6월 샤카디타 세계대회 △9월 제13대 회장 선출 등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시작하지 못한 국제 사미니강원을 다른 각도에서 검토, 비구니 출가자 감소를 국제적인 수행과 교육으로 메꾸어 갈 방안을 찾는 것을 금년 과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12대 집행부 활동백서와 역대 비구니회지 통합 발간도 추진한다.

회장 본각 스님은 “제12대 전국비구니회가 4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잘 마감되도록 철저히 살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캄보디아 발전 염원”

진우 스님, 주한 대사 예방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월 8일 서울한국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캄보디아 대사의 예방을 받고 “캄보디아와 한국은 불교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나라”라면서 “캄보디아가 발전을 거듭해 앙코르와트를 세웠던 제국의 위상을 다시 찾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에게 먼저 불교국가로서 전통 계승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앙코르와트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고 스케일과 정교함에 놀라움을 표했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 이에 대해 자부심을 표하며 “캄보디아는 전통성과 종교성, 문화성을 세계인들과 나누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의 과학기술과 디지털 발전을 롤모델로 참고 중”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동국대 제42대 이사장에 돈관 스님 선출

제348회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동국발전이 불교발전’ 화두로 학교 발전에 매진할 것” 밝혀



학교법인 동국대 제42대 이사장에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2월 7일 교내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제348회 이사회를 열고 2월 28일 임기가 만료되는 성우 스님의 후임 이사장으로 돈관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돈관 스님의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다.

차기 이사장 돈관 스님은 1978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9년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제14 · 17대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장, 대구불교방송 사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천연기념물 분과), 학교법인 동곡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한 돈관 스님은 현재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건학위원장,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장을 맡고 있다.

신임 이사장 돈관 스님은 “학교를 발전시키라는 소명이라 생각하고 모든 교직원 여러분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면서 “고문 자승 스님이 내보이신 화두인 ‘동국발전이 곧 불교발전’을 마음에 새기고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차기 의료원장으로 채석래 현 의료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채 의료원장은 장기적인 의료사업을 위한 적임자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채 의료원장은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병원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후보 의현 스님 선출

2월 7일 산중총회서 만장일치로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후보로 의현 스님이 추천됐다.

팔공총림 동화사는 2월 7일 경내 설법전에서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방장 후보에 의현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날 산중총회에는 총원 280명 가운데 200명이 참석했다.

선출 직후 의현 스님은 “사명대사 교육관을 건립하고 총림 승려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팔공총림 방장 후보로 추천된 의현 스님은 중앙종회 추대 절차를 거쳐 방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의현 스님은 1952년 합천 해인사에서 상월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제7대 중앙종회 의장, 총무원 총무부장, 조계사 주지, 은해사 주지, 동화사 주지, 능인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후보로 추천된 의현 스님이 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배철완 대구지사장

조계종 역점 사업 '천년을 세우다' 본격화

미래본부 2월 7일 첫 추진단장 회의…사업 계획 논의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모시기
명상센터 등 본격적인 사업 돌입
4월19일 오후2시 추진위 출범식
바로모시기 윤달 3·7 특별 기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미래본부가 추진단장을 중심으로 열암곡 부처님 바로 세우기와 명상센터 건립 등 조계종 제37대 집행부의 역점사업 '천년을 세우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조계종 미래본부(추진위원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는 2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천년을 세우다 추진단장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부문별 추진단장은 열암곡 부처님 바로 세우기 추진단장 종천 스님과 탄원 스님, 명상센터 추진단장 허운 스님, 교구특성화 단장 지현 스님과 덕문 스님, 미래세대 인재양성 단장 원명 스님 등이다.

추진단장들은 회의에서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기도회 방안 및 기도회 △명상센터 건립 및 프로그램 개발 △교구 활성화 △미래세대 인재양성 △천년을 세우다 모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천년을 세우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출범식은 4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천년을 세우다 동참발원, 출범사, 종정교시 격려사 등으로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먼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위해 다양한 기도 방안 논의가 이어졌다.

현장에서 다양한 기도회가 진행되며 열암곡 도감은 본오 스님이, 기도법사단장은 환풍 스님이 맡는다. 이웃종단 및 종교 지도자와 사회 각계, 언론을 대상으로 각 절기별 순례를 시행, 순례 기도 동참도 이끌어낸다. 바로 모시기 기도입재는 4월 27일 오후 2시, 남산 열암곡 주차장에서 열리며 이에 앞서 윤달 3·7일 특별기도는 3월 28일~4월 17일 매일 오전 11시 봉행된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2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천년을 세우다 추진단장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불교의 사회적 역할도 증대할 계획이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명상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할 명상센터 건립이 수도권 및 주요 거점지역에 종단에서 직접 건립하는 시설과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수탁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조계종은 명상지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D-웰니스(Dhamma-Wellness)'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고 불교 명상 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교구본사 활성화 연구와 미래세대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 제37대 주요종책인 '교구 특성에 맞는 지역 중심의 종교활동 영향력 제고'를 위해 중앙과 교구에 전략기획단을 구성하고 종교환경 및 신행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 연구와 지역불교 활성화 및 종교단체 영향력 확대를 위한 사례를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래세대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 지급과 상담 및 지원도 시행된다. 장학금은 추천 교구본사와 5:5 매칭으로 진행되며 2024년 총 2억 원 규모로 시작, 2025년부터는 총 4억원 규모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천년을 세우다 사업 기금 모연에는 3년간 100억 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구본사, 직영·특별분담사찰 등 모연 약정, 사찰 홍보를 통한 CMS와 ARS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원장 진우 스님은 "회의를 통해 사업별 단장을 맡고 있는 스님과 의견을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교구활성화는 물론 각 사찰마다 특성을 살려 좀 더 미래적이고 효과적인 포교를 위한 방향을 잡고 사업을 실행, 불교중흥과 더불어 포교 전선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본부는 전국불자들을 대상으로 '윤달 3·7일 특별기도'를 접수 받는다. 윤달 3·7일 특별기도는 3월 28일(윤 2.7)~4월 17일(윤 2.27)일 매일 오전 11시 열암곡 마애부처님 전에서 진행된다. 열암곡 도감 본오 스님과 기도단장 환풍 스님이 매일 번갈아 축원기도를 올린다. 기도비는 가족당 10만 원 이며 전국사찰에서 접수를 받아 미래본부로 접수하면 된다. 종단에 접수된 기도비는 '천년을 세우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및 명상센터 건립, 미래세대 양성 등 미래불교를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관련 국내외 기자회견

'생명존중' 기치 아래 43일 '붓다로드' 걷는다

2월 7일 공식 기자회견 개최
인도순례 일정, 의미 등 발표
印정부, 6일 현지서 회견 열고
"상월 순례 전폭적 지원" 약속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생명존중'의 대사회 메시지 속에 진행된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상월결사 인도순례 일정 및 의미 등을 밝혔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생명존중, 붓다의 길을 걷다'를 주제로 43일간의 대장정으로 진행된다. 수행과 전법포교, 생명존중과 세계평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기 위한 43일간 1167km의 대장정이 펼쳐진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4대 결사정신을 인도순례를 통해서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43일 여정동안 순례단 수행뿐만 아니라 한국문화를 알리고 불교를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변인 종호 스님은 "부처님 자취를 따라 걸으며 이 가르침을 생각하고 온 세상에 보다 널리 알려지기를 발원하겠다"고 말했다.


상월결사는 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공식기자회견을 열고 결사 의미와 순례 소개, 실천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밝혔다.

세부일정에 대해 순례단장 원명 스님은 "비구 56명, 비구니 12명, 우바새 6명, 우바이 6명 등 총 108명의 순례단이 목조부처님을 모시고 순례를 진행한다"며 "사르나트에서 입재식과 함께 각 성지에서 법회가 열리며, 3월 20일 쉬라바스티 기원정사에서 회향법회와 3월 23일 조계사에서 회향식이 열린다"고 소개했다.

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의식도 성지마다 펼쳐진다. 2월 11일 바라나시 녹야원 입재법회 후 2월 22일 마하보디사원에서 세계평화 기원법회, 2월 25일 라지기르 영축산에서 법화경 독송법회, 3월 9일 열반지 법회 및 가사공양의식, 3월 20일 쉬라바스티 기원정사에서는 금강경 봉정과 공양의식이 진행된다. 순례단이 거쳐가는 나란다대학에서는 종립 동국대가 새롭게 문을 여는 나란다대학 측과 공동으로 6개국 학자들이 동참하는 '순례'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순례 도착에 맞춰 동국대는 나란다대학과 자매결연도 맺을 예정이다.

상월결사 인도순례에는 한국·인도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교류행사 등 한국불교 역량이 집결되는 다양한 행사들도 함께 진행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부처님 성도지 기도법회와 순례 회향법회에 참석한다. 특히 회향법회에 맞춰 조계종은 연등회 전시를 비롯해 템플스테이 홍보, 사찰음식 시연·만찬 등 다양한 교류행사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2월 6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인도 정보통신부·주인도 한국대사관 주최 기자회견에서 인도 정부는 상월결사 순례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를 주제로 인도 정부와 한국 대사관이 합동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도 현지 역시 상월결사의 인도 순례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푸르바 찬드라 인도 정보통신부 차관은 "한국과 인도가 공동으로 이번 불교 성지순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순례가 전 세계 최고 규모의 성지순례에 버금가는 중요한 순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장재복 주인도 한국대사관 대사는 "이번 순례는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순례"라며 "현재 긴장과 갈등이 난무하는 정세 속에서 순례단이 전하는 평화와 연민의 메시지는 더욱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신성민·노덕현 기자

대만 불광산사 창건주 성운 대사 열반

2월 5일 지병으로 입적…97세
불광산사 창건주 '청빈' 강조해
진우 스님 조사 "속환사바하길"



오늘날 실천불교의 표준모델로 꼽히는 대만 불광산사를 이끌어온 성운 대사가 2월 5일 입적했다. 세납 97세, 법랍 85세.

성운 대사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건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1927년 중국 장쑤성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성운 스님은 12세인 1938년 난징 치샤산 대각사로 출가, 임제종 48대 법맥을 이어받았다.

1949년 대만으로 건너간 성운 대사는 1967년 5월 16일, '인간불교'의 서원을 세우면서 불광산사를 창건했다.

불광산사는 대만불교 현대화, 세계화의 상징일뿐 아니라 포교와 성역화의 전형으로 전 세계 불교인의 이목을 받아왔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 불광산사는 전 세계 300여 개의 사찰, 병원, 대학, 도서관, 미술관 등을 두루 갖추면서 국제적인 조직체계로 성장했다. 신도수도 2백만 명이 넘는다.

성운 대사가 50년간 잡음 없이 불광산사를 이끌어온 배경에는 '타인과 나 모두 이롭고 즐거워야 한다'는 불교적 가르침이 바탕에 깔려 있다.

지금은 거대 사찰이 됐지만 여전히 일상에서 강조하는 것은 '빈곤'(청빈)이다. 성운 스님은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대만과 미국, 호주 등에 5개 대학을 세우면서 "대학 설립은 불광산을 빈곤하게 만들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영광은 부처님께 돌리고, 원만성취는 대중에게 돌리고, 이익은 사찰에 돌리고, 공덕은 사회에 돌린다'는 게 불광산사의 정신이다.

한국 불교계는 조사를 발표하며 대사의 원적을 애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류의 평안과 행복이라는 인간불교의 주창은 서천의 성인께서 남긴 발고역락의 현대적 구현이었다"면서 "속환사바하시어 중생을 인도해 달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검은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 익산삼사순례 - 미륵사지·심곡사·숭림사

삼사순례는 부처님과의 인연을 두텁게하는 기도이자 수행입니다.

2023 익산 방문의 해

익산시가 불자님들의 삼사순례를 앞두고 초청장을 드립니다. 익산시는 고도 백제의 왕도로서 불교관련 유적과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세계유산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익산은 선인들의 신앙과 예술의 향기를 접할 수 있고, 힐링과 기도를 만날 수 있고, 둘러보면서 행복과 환희를 품을 수 있는 불자들의 순례지입니다. 2023년은 때마침 익산방문의 해입니다. 이에 불자님들의 삼사순례와 방생 행사를 반겨 맞이하고자 합니다. 미리 방문을 알려주시면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등 편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안 내 처 |
익산시청 문화관광산업과
1577-0072
익산시청 홈페이지
www.iksan.go.kr

백제역사유적 탐방
미륵사지
동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절터에 지금은 동탑과 서탑도 복원돼 관광객들과 불자들을 맞이합니다. 백제 무왕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국립익산박물관에서는 국보로 지정된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를 볼 수 있습니다.



백제역사유적 탐방
심곡사
깊은 골짜기라는 이름의 천년고찰, 7층석탑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떡목을 지닌 정정렬 명창의 득음을 기념하기 위한 떡목공연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백제역사유적 탐방
왕궁리유적
아름다운 오층석탑과 왕궁터가 남아서 백제부활을 꿈꾸던 무왕의 웅지를 보여줍니다. 백제왕궁박물관은 당시의 시대상을 알려줍니다.



힐링생태여행
숭림사
보물로 지정돼 있는 보광전과 그안에 모셔진 목조석가여래좌상 그리고 보광전에 진채로 그려진 아름다운 벽화, 딱 인생샷 배경으로 그만입니다.



데크, 연꽃, 하늘, 구름
용안생태습지공원
금강 상류 쪽으로 조금 더 가면 용안생태습지공원이 있습니다. 이곳도 역시 휴식과 방생의 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진우 스님 "K-명상 개발…禪 대중화"

2월 8일 국회 정각회 법회서 밝혀
"한국 정신문화 바로 세우는 불사"
'천년을 세우다' 사업 필요성 강조
이원욱 명예회장에 공로패 수여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월 8일 봉행된 국회 정각회 신년법회에서 사부대중이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참선, 명상 전문가들과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현재 4차례 정도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편안해질 수 있는 K-명상을 개발해 대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참선 대중화를 위한 표준 명상 프로그램 개발 · 보급을 약속했다.

국회 정각회(회장 주호영)는 2월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천태종), 차석부회장 도진 정사(진각종), 부회장 법명 스님(관음종), 호명 스님(태고종), 우인 정사(총지종), 만청 스님(대각종) 등 종단협 회장단과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 기획실장 성화 · 재무부장 우하 · 사회부장 범종 스님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이원욱 명예회장, 이현승 수석부회장, 이수진 간사, 서영교 의원, 조명희 의원, 김병주 의원 등이 자리했다.

신년법회 법사로 나선 진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스님은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는 "쓰러진 한민족의 얼과 정신을 바로 세우는 불사"라고 강조했으며 명상센터 건립과 프로그램 개발은 국민들의 심신 안정과 치유에 큰 도움을 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진우 스님은 "서구 유럽에서는 명상 프로그램 수업을 신청하며 6개월에서 1년은 대기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위빠사나, 사마타와 같은 남방불교의 수행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더 훌륭한 참선이라는 수행법이 있다"면서 "참선을 바탕으로 한 종단 표준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템플스테이와 향후 건립될 명상센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이라고 하듯이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 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도 활해져 국민들이 편안해질 수 있다"면서 "정각회원들과 동료 국회의원들도 명상을 통해 스스로 편안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라며 "오늘 법회를 정각회원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자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법회에서 사부대중은 이수진 간사가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세상이 편안해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기원했다. 대중들은 "비우고 바꾸고 살리는 삶으로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을 찾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한편, 국회 정각회는 전반기 회장으로 단체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이원욱 명예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불교계, 튀르키예 · 시리아 강진에 십시일반

아름다운동행 3월 31일까지 모연
조계종복지재단, 온라인 모금 나서
더프라미스 · 나누며하나되기 등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강진으로 1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에서 애도의 뜻을 전하며 긴급모금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2월 6일 현지시각 오전 4시 17분경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북부 국경지역에서 진도 7.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어 여진이 뒤따르며 강진 나흘째인 2월 9일 사망자수는 1만 239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지진에 따른 전체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고, 미국 지진 지질조사국(USGS)는 10만 명 이상이 될 가능성도 14%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애도 메시지와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긴급구호대원을 급파한 상태다.

불교계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모연을 시작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튀르키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긴급구호를 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후원 동참을 희망하는 개인과 사찰은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www.dreaminus.org)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02)737-9595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는 재단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산하시설 종사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연 중에 있다. 모연은 3월 9일까지 진행되며 추후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고려해 전달할 예정이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대형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면서 전 세계에서 애도를 표하고 있다. 서로 얼굴을 붉히던 국가들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면서 "종교를 넘어 튀르키예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형제의 나라다. 재단은 조계종단과 협의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이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하루빨리 폐허된 나라가 재건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길 기원했다. 02)723-5101 (하나은행 271-910006-64104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국제협력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법보)는 시리아 북서부 지역의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구호 모금을 시작했다.

더프라미스 이사 묘장스님은 2월 7일 "91%가 원조에 의지하고 있는 시리아 북서부 지역의 재난 피해자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 지내고 있다"면서 "더프라미스는 2017년 만해대상 평화대상에 선정되었던 화이트헬멧(Syria Civil Defence. 시리아 시민방위대)을 통해 더욱 지원이 필요한 시리아 북서부에 긴급 지원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리아 북서부는 10년 이상의 내전과 반군의 통제로 낙후된 시설이 많아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아 보건부는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의 사망자를 711명, 부상자를 1431명으로 집계했다. 화이트헬멧(Syria Civil Defence. 시리아 시민방위대)은 반군 통제 지역에서 최소 733명이 사망하고 210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에 더프라미스는 시리아 북서부 재난 피해자들을 긴급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지원은 시리아 내전 구호단체 시리아 시민 방위대를 통해하며, 사회적기업 ㈜착한여행(대표 나효우)과 헬프시리아가 파트너 기관으로 함께 한다. 02)735-3119 (하나은행 105-890053-47604 사단법인더프라미스. 후원하기 링크: https://bit.ly/3Y6NaSo)

천태종 산하 NGO 나누며하나되기도 종단과 함께 긴급구호 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모금에 대해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지진으로 고통받는 피해 유가족 및 이재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천태종은 각 사찰에 '지진 피해 성금 모금함' 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02)730-2401 (우리은행 1006-401-385960 나누며하나되기)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보물' 범어사 대웅전, 그 면면을 살피다

범어사 성보博 '범어사 대웅전' 학술도록 발간

전문가 논고, 고화질 사진 구성
건축사적 의미, 가치 등 조명해



금정총림 범어사 대웅전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부산을 대표하는 목조건축물이다. 이런 범어사 대웅전의 면면을 학술적으로 조명한 도록이 발간됐다.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환응)은 "범어사 대웅전을 주제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첫 학술도록 〈불국토를 조각하다, 범어사 대웅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록은 "기단과 기둥, 공포, 창호, 천장과 닫집, 수미단, 수미단 위에 모셔진 불상, 내 · 외부 단청과 벽화까지 범어사 대웅전의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 부처님의 나라 '불국토' 를 이루고 있다"는 관점에서 기획됐다.

도록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불교미술학부 교수이자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목조각장 청원 스님의 특별기고문을 통해 전통과 현대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세상, 현세의 불국토는 어디인가를 질문하며 시작한다. 본문에서는 범어사 대웅전에 대한 주제별 학술 논고, 고화질 사진들이 수록됐다.

1부 '대웅전, 불국토를 재현하다' 에서는 사찰의 주불전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대웅전의 근본적인 의미와 가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관련 논고는 서치상 부산대 건축학과 명예교수가 썼다.

2부 '천개, 부처의 머리 위 천상을 표현하다' 에서는 최춘욱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범어사 대웅전 내부 천장과 천개 등을 불교 공예사적 관점에서 풀어냈다. 이선용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은 16세기에 처음 등장한 이후 17세기에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조선시대 목조건축의 범자 수용 양상을 1658년이라는 정확한 중수연대를 가진 범어사 대웅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밝혔다.

3부 '불단, 부처가 앉은 사리, 부처를 모시다' 에서는 송은석 동국대 WISE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교수와 허상호 성보문화재연구원 총괄팀장의 논고를 통해 범어사 대웅전에 봉안된 불상과 불상을 모시는 불단, 수미단을 살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장 환응 스님은 "평소에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들과 매우 가까이에 있는 친숙한 문화재인 '범어사 대웅전' 을 주제로 부산 불교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어져 향후 범어사 대웅전의 국보 승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는 2018년 〈범어사의 전적〉을 시작으로 신축기념 소장유물 도록 시리즈 〈범어사의 전각〉(2019), 〈범어사의 불화〉(2020), 〈범어사의 불상〉(2021)을 매년 발간해 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기획국장 금오 · 홍보국장 인월 스님

진우 스님, 2월 7일 임명장 수여


금오 스님


인월 스님

조계종 기획국장에 금오 스님, 홍보국장에 인월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월 7일 기획실 기획국장 금오 스님, 홍보국장 인월 스님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기획실은 종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니 종단 발전을 위해 업무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두 스님은 "막중한 업무를 맡은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기획국장 금오 스님은 심우 스님을 은사로 2007년 수계(사미계)했으며, 호법부 상임감찰을 역임했다. 현재 금봉암 주지를 맡고 있다.

기획실 홍보국장 인월 스님은 지안 스님을 은사로 2005년 수계(사미계)했으며, 호국기룡사 주지, 해원사 주지, 대만 홍법원 주지를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석학들, 소통으로 불교 대중화 견인한다

붓다나라, 2월 26일 첫 대중강연…'깨달음' 주제로

이중표, 정영근, 양형진 참여
발제 후 질의응답, 토론 진행
"상호 소통하며 불교 알릴 것"
학점제 열린불교대학 운영 중
불교사상, 초기불교, 과학 등
분야별 전문가 강의 수강 가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붓다나라 열린불교대학 대중강연 참여 교수진. 사진 왼쪽부터 이중표 붓다나라 대표, 정영근 열린불교대학장, 양형진 고려대 반도체물리학부 교수.

한국불교 석학들이 불교 대중화를 위해 거리로 나왔다. 대중과 소통하며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전하기 위해서다.

불교신행공동체 붓다나라 열린불교대학은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첫 대중 강연 '불교로 대중과 소통하다- 첫 번째, 깨달음에 대한 담론'을 개최한다.

대중 강연은 발제 강의와 질의응답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발제는 열린불교대학의 교수진들이 담당한다. 근본불교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지닌 이중표 붓다나라 대표(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붓다는 무엇을 깨달았는가'를 발표하며, 동양철학 전문가인 정영근 열린불교대학장(서울과학기술대 명예교수)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과학과 불교의 접점을 대중들에게 전하고 있는 양형진 고려대 반도체물리학부 교수는 '현대물리학에서 본 연기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영근 학장은 "불교 경전은 굉장히 방대하다. 그러다 보니 불교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다양하다. 그럼에도 무엇이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유는 적은 편"이라면서 "그래서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중표 대표는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우선 교수진이 각 30분 발제를 하고 청중과 무차별로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것이 이번 강연의 진행 방식"이라면서 "발제자 각자가 자신이 가진 불교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면 일반 대중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실마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형진 교수는 "빨간색 사과가 있는데 우리가 빨간색을 인지하는 것은 뇌의 자극을 통해 만들어진다. 본디 빨간색은 존재하지 않는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은 재주가 많은 화가'라고 한다. 우린 그 마음이 그린 세상에 사는 것"이라며 "과학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결해 이해한다면 새롭게 접근할 수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이 같은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붓다나라는 전남대에서 퇴직한 이중표 대표가 2014년 시작한 '근본불교연구회'가 확대돼 설립됐다. 현재 서울과 광주, 부산, 대구, 울산에 법당을 운영하며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산하 열린불교대학은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2022년 2월 22일에 강의를 시작했다. 교수진으로는 최연식 동국대 교수(불교사), 조원경 시선원 원장(불교명상), 조명화 前 서원대 교수(불교문화) 등 전문 석학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중표 대표는 "사찰의 불교대학과는 다르게 학점제로 운영된다. 규정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장이 수여된다"면서 "전 과목은 온라인 수강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학금 24만원만 내면 평생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강좌를 업데이트할 예정인데, 평생회원인 졸업생들도 수강이 가능하다. 우리 불교대학의 강의 콘텐츠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충실하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대중과의 소통을 시작한 붓다나라는 서울에 이어 다른 지역에서 순회강연을 계획 중에 있다. 정영근 학장은 "깨달음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진행하려 한다. 주제는 대학 교수진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주제가 결정되면 붓다나라 지역법당을 순회하는 강연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붓다나라의 동영상 강의 콘텐츠를 20분 내외로 압축하는 소품 강의도 제작해 대중에게 소개하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중표 대표는 "요즘 현대인들은 긴 강의를 듣는 것을 어려워한다. 기존 강의를 줄인 20분정도의 미니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붓다나라 열린불교대학의 대중강연은 선착순 300명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신청은 붓다나라 홈페이지(https://www.buddhanara.or.kr/2023-public-talk)에서 가능하다. 문의(010)6374-6396

로터스월드, 미얀마 사원학교 조성 나선다

동산불교대 탁발봉사단과 MOU
다목적 교육관 · 화장실 조성



사단법인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가 동산불교대학 미얀마 동자승 탁발봉사단(단장 이종현, 이하 탁발봉사단)과 미얀마 양곤 지역 지뻬왜 사원학교(Zee Pin Wae Monastery School)에 다목적 교육관 및 화장실을 조성하기로 했다.

로터스월드와 탁발봉사단은 2월 6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12월까지 조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탁발봉사단은 로터스월드에 5700만 원을 전달하며 사원학교의 교육시설 조성을 응원했다.

이날 협약을 한 탁발봉사단은 동산불교대학의 재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모임으로 약 130명으로 구성됐다. 탁발봉사단은 지난 2017년 6월 미얀마 바간 지역 성지순례를 진행한 뒤 조직, 미얀마 동자스님의 탁발 지원을 결의하고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 미얀마 지원을 계획했다. 이후 수차례 미얀마 아동들을 위한 식비를 지원했으며 내부 협의를 거쳐 탁발이 아닌 미얀마 사원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을 기획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진행을 잠정 연기했었다. 미얀마 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자 로터스월드와 협의를 거쳐 양곤 지역의 지뻬왜 사원학교의 다목적 교육관과 화장실 조성 지원을 결정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탁발봉사단의 지원을 받게 된 지뻬왜 사원학교는 미얀마 양곤 레구(Hlegu Township. Yangon, Myanmar)지역에 위치한다. 유치원부터 중학교 과정까지 279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학생 대부분이 레구 지역의 빈곤가정 출신이며 15명의 고아와 59명의 기숙생들도 함께 생활하고 있다. 또한 동자스님 28명과 스님 6명도 사원학교에서 생활하며 수행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지뻬왜 사원학교는 학생 수에 비해 교육 시설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교실이 부족하고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 시설도 전무해 교실과 도서관으로 복합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교육관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여자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학생용 화장실 역시 부족해 신규 조성이 필요한 상태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다목적 교육관이 설립된다면 향후 고등학교 과정 설립을 추진 중인 지뻬왜 사원학교의 학생 수용능력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로터스월드는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NGO이자 아시아 불교국가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빈곤퇴치를 위해 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02)725-4277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 KB카드, 올해도 책가방 지원

2월 9일, 전국 2041명에 가방세트
진우 스님 "더 많은 지원 하겠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이 KB국민카드와 함께 올해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전국 예비 초등학생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 선물세트를 선물했다.

KB국민카드(대표이사 이창권)는 2월 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예비 초등학생 책가방 보내기' 사업 기금 1억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올해 조계종은 262개 기관을 통해 2041명에게 책가방과 보조가방, 학용품 선물세트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상자로 포장, 택배로 자택 배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이웃종교인 개신교 목사와 선교사 자녀 20명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아름다운 동행 측은 "평소 불교의 사회적 소통과 역할을 강조해 온 진우 스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이날 전달식에서 이창권 대표이사에게 "민간기업에서 꾸준히 보시행을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불교계에서 소외이웃에 더 많은 환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권 대표이사도 "품질 좋은 가방과 학용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사노위, 159명 희생자 기리며 159배

2월 6일 서울시청 추모공간서
이태원 희생자 극락왕생 기도

"159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절합니다." "생존자들과 목격자들의 회복을 위해 절합니다."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하며 절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 위원 스님들이 이태원 참사 100일을 추모하며 설치된 분향소 앞에서 희생된 159명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159배를 올렸다.

2월 6일 서울시청 앞에서 봉행된 이날 기도회에는 6명의 스님들이 유가족, 시민 100여 명과 함께 영정 앞에서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추모공간 마련 등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길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사노위는 2월 4일, 유가족들과 함께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추모 행진에 동참하기도 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함께 희생자들의 영정을 들고 녹사평역 인근 합동분향소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나 서울시청까지 행진하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이어 100일 시민추모제에 동참, 4대 종교인들을 비롯한 시민들과 추모기도를 이어갔다.

임은호 기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0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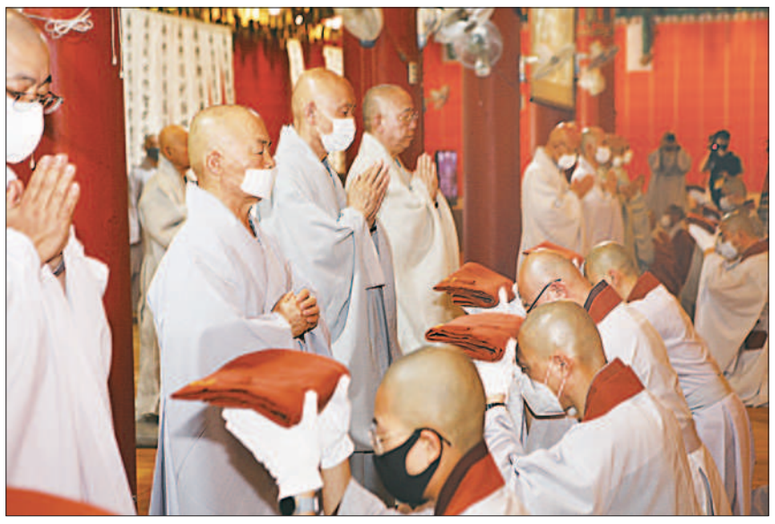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통도사 계묘년 가사불사·생전예수재 봉행

가사불사·생전예수재 2월 27일 입재
4월 9일, 4월 16일에 각각 회향의식
생전예수재 기간, 현문 스님 등 법문
영산전에 가사당 설치 외부 출입금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는 계묘년 윤달을 맞아 생전예수재 및 가사불사를 봉행한다. 사진은 2020년 진행된 가사불사 회향에서 가사를 올리는 모습.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불기 2567년 생전예수재와 가사불사를 봉행한다. 2월 27일 오전 10시에 함께 입재하여 가사불사는 4월 9일 오전 10시, 생전예수재는 4월 16일 오전 8시에 회향한다.

생전예수재 기간 동안에는 주지 현문 스님과 前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이 법문을 한다. 현문 스님은 입재일이자 출가재일인 2월 27일 오전 10시에 '도솔래의상(兜率來儀象)'을 주제로 설법한다. 팔상(八相) 중 하나인 '도솔래의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담고 있다. 현문 스님은 '도솔래의상'을 주제로 출가재일에 담긴 의미를 설법할 예정이다. 법산 스님은 3월 19일에, 덕문 스님은 4월 2일에 법문한다.

생전예수재는 살아서 자신을 위해 지내는 재로서, 윤달이 있는 해에 사찰에서 시행하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재의식 중 하나이다. 수륙재, 영산재와 더불어 우리나라 불교 3대 재회(齋會) 중 하나이고 천도재 성격을 가지지만 망자를 위한 천도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생전예수재는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사후를 위해 진행하는 의례로 '생전(生前)에 미리(豫) 닦는(修) 재(齋)'를 의미한다. 자신의 극락왕생을 위해 마련하는 재의식으로 동참자 스스로가 의례의 주인공이 되어 의미가 크다.

가사불사는 법의인 가사를 지어 스님들께 올리는 불사다. 가사불사는 부처님 당시부터 음식과 약, 방사와 함께 재가자가 출가수행자에게 올리는 사사공양(四事供養)의 하나였다. 부처님도 가사불사의 공덕은 한량없다고 했다. 특히 지장율사의 가사를 모시고 있는 통도사에서의 가사불사는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4월 16일 열리는 생전예수재 회향식에서는 전통의식을 원형 그대로 보여주는 작법을 선보인다. 생전예수재 전통 작법의식을 위해 통도사 염불원 스님들이 동참할 예정이다.

통도사는 윤달이 돌아오는 4년 마다 생전예수재와 함께 가사불사를 봉행해 왔다. 윤달 기간 가사불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의 전통이며 신도들이 가사불사에 동참해 무량한 공덕을 짓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통도사는 영산전에 가사당(袈裟堂)을 설치하고 발을 쳐서 결계를 삼으며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가사불사에 진력한다. 가사불사를 위해 도편수 스님이 지도하며 불자들은 직접 가사를 짓는다. 4월 9일 회향일에는 이운식이 진행된다.

이날 통도사 사부대중은 조계종 가사원에서 제작한 대가사와 통도사 가사당에서 제작한 오조가사를 영산전에서 설법전까지 이운한다. 통도사 율원에서 집전해 가사를 이운하고 설법전 상단에서 점안식 후 스님께 공양한다.

통도사는 "생전예수재는 공덕을 쌓고 살아생전 자신이 지은 잘못을 참회하는 기간"이라며 "많은 이들이 동참해 무량복덕을 이루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55)381-1288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단청, 서각 등 6개 전통문화 과정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송천)이 2023년 상반기 전통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불화와 단청, 서각, 전통사경, 생활자수, 전각 등 6개 전통문화 과정으로, 3월 2일부터 7월 28일까지 5개월 과정이다.

불화는 조해종 불모가 담당하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통도사성보박물관 불화반은 기법과 재료에서 전통불화의 맥을 잇는 불모 양성소로 자리 잡았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초실습과 강의를 구성하고, 조해종 불모는 20년 가까이 수강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단청은 조경미 작가가 담당하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한다. 수업은 단청 속에 담긴 상징세계를 이해하는 것부터 작품 완성까지 진행한다. 현재 취미반과 자격증반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증반은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시험(화공) 부분에서 매년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다.

서각은 김진희 작가와 서용수 작가가 수업을 담당한다. 김진희 작가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서용수 작가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수업을 진행한다. 서각반은 불교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왔으며 매해 작품전을 열고 있다.

전통사경은 오현주 작가가 담당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생활자수는 강남순 바람의화원 대표가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강의한다. 전각은 최두헌 작가가 담당하며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강좌 모집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며 전화(055-384-0020) 및 홈페이지(www.tongdomuseum.or.kr)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홍법사, 성운대사 추모법회 봉행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2월 8일 경내 법당에서 2월 5일 입적한 대만 불광산사 창건주 성운 대사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추모법회는 입정에 이어 추모 점등, 성운대사 추모영상 시청, 추도사, 추모명상, 시식 순으로 이어졌다.

심산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20여 년 동안 대만 불광산사 성운대사의 가르침에 감화되었고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다"며 "속환사바하셔서 중생을 위해 다시 법을 펼쳐줄 것을 함께 기원하자"고 당부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과 성운대사는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성운대사는 지난 2003년 홍법사를 방문해 심산 스님에게 국제불광회 한국부산협회 인증서를 전달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기원했다. 홍법사는 매년 성운대사가 건립한 대만 가오슝 소재 불광대에 재학 중인 우수 학생 20명을 선발·초청했으며,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22년에는 성운대사가 홍법사 창건주 故 하도명화 불자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개최한 부산서화108인초대전에 친필 휘호를 보내기도 했다. 창건주 하도명화 불자는 1970년대 당시 대만 불광산사를 방문하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엿보았다고 술회한 바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환경연대 전국 활동가 워크숍 개최



2월 8~10일, 부산 대원각사서
활동방향·역량 강화 등 모색해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가 부산 대원각사에서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불교환경연대의 활동방향과 활동가 역량 강화 및 친교 증진을 위해 열렸다.

법만 스님은 "환경문제는 끊임없이 진행되는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환경을 파괴하면서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불교환경연대의 활동 방향을 도출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도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환경은 세계적인 화두이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앞장서서 환경운동을 펼친다는 것은 보람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며 "저희 절에서 워크숍을 열어주셔서 큰 영광이며 무탈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홍석환 부산대 교수의 '산림정책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과 박중록 습지와 새들의 친구 대표의 생태문화 특강이 이어졌다. 이어 가덕도, 낙동강 하구둑, 외항포, 국수봉 등 현장을 탐방하고 환경명상 108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한편, 불교환경연대는 재두루미 먹이를 위한 볍씨 후원을 받고 있다. 재두루미의 먹이인 벼는 40kg 당 7만 7000원이며 볍씨는 철새들에게 중요한 영양분이 된다. 모금 기간은 2월 28일까지다. 문의 (02)720-1654.

이도경 부산지사장

명경문화재단, '이-음 콘서트' 출발



쿠무다 콘서트홀서 2월 8일
'앙상블 튠' 첫 연주로 시작
이번 시즌, 심장병어린이 후원

복합문화공간 쿠무다에서 진행되는 문화프로젝트 '이-음 콘서트'가 심장병 어린이 돕기를 위한 수요음악회로 새롭게 출발한다.

재단법인 명경문화재단(이사장 주석)은 2월 8일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2023 수요음악회-심장병 어린이 후원을 위한 이-음 콘서트'를 개최했다.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와 부산클래식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콘서트는 '앙상블 튠'의 연주로 첫 시작을 알렸다. 음악회는 2월 15일 '도담앙상블'과 22일 '친친탱고'의 무대로 이어진다. 공연은 7시 30분에 시작되며 전석 1만 원이다. 이-음 콘서트는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입장권은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현장 구입도 가능하다.

이-음 콘서트는 지난해 4월부터 연주자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프로젝트로 진행됐다. 연주 실력이 뛰어나도 공연 기회를 갖지 못하는 연주자와 관객을 이어준다는 취지로 '이-음'이다. 이번 시즌은 심장병을 가진 어린이를 후원하기 위해 진행돼 의미가 특별하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문화를 향유하는 행복한 공간을 발원했다. 예술가들과 대중들이 함께 일궈가는 아름다운 변화를 기대한다"며 "이번 해는 특별히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후원에 뜻을 더했다. 음악을 향유하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동행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불정사, 정초기도 나눔으로 회향

지역민에 백미·점심 식사 등 나눠



부산 천불정사(주지 법경)가 2월 6일 경내 마당에서 이웃돕기 성품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천불정사는 백미 1000kg을 장전2동 복지센터에 전달했으며 백미는 지역 소외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백미는 정초기도에 동참한 불자들이 십시일반 후원한 보시금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천불정사는 청년회 활동비 300만 원을 천불정사 청년회 '법향'에 지원했다. 천불정사 청년회 '법향'은 현재 2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영상포교를 위해 제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서 그동안 제작한 포교 영상을 신도들에게 보여주며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천불정사는 2월 9일 금정구재향군인회여성회, 고담나누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역어르신 150여 명을 초대해 점심 식사를 공양했다.

주지 법경 스님은 "정초를 맞아 기도한 정성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회향하는 것은 자비심을 배우고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된다"며 "청년들의 활동도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고 활동을 위해 적극 지지하고 포교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BTN 남성중창단 찬불가 발표회

2월 24일 부산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BTN불교TV 남성중창단이 찬불가 신작 음반 '연꽃으로 피어나리' 발매 기념 발표회를 개최한다. 발표회는 2월 24일 오후 7시 부산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황룡사' '삼보인연' '한송이 연꽃(서근영)' '겨울눈봄꽃' '땅에서 넘어진 자' '연꽃법당' '마음고요' '인과의 그림자' 등 신곡을 발표한다.

박준홍 단장과 정우진 부단장, 신현욱, 문정재 테너, 추현철, 조창준, 양영승 바리톤이 활동하고 있으며 김진아, 정꽃님 피아니스트가 반주를 담당한다.

BTN불교TV남성중창단은 지난 2014년 12월 창단됐으며 단원은 부산, 울산, 대구, 경상 지역에서 사찰 합창단 지휘자로 활약해 온 불자 남성 성악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2015년 BTN 특집 'BTN중창단 자비의 법음을 전하다' 방송 출연을 시작으로 '포항불교합창제' 등 각 사찰과 많은 불교 행사에서 음성공양을 펼쳐 오고 있다.

2016년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을 시작으로 신작 찬불가 음반을 발매하고 있으며 찬불가를 보급하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연꽃향기' 시리즈의 세 번째 찬불가 음반인 '연꽃으로 피어나리'는 지난 2022년 6월 발매됐으며 이번 공연은 음반 발매 후 첫 단독 발표회다. BTN불교TV 남성중창단은 부산공연 후 3월 26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할 예정이며 제주 공연도 계획 중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상구불교聯, 대보름맞이 행사 체험

제20회 사상전통 달집놀이 행사 참여

부산 사상구불교연합회(회장 성림)가 정월 대보름을 맞아 지역민과 함께 전통문화를 공유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상구불교연합회는 2월 5일 부산 사상 삼락생태공원 럭비구장 일원에서 열린 제20회 사상전통 달집놀이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사상구불교연합회는 전통 달집놀이 행사에서 구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액운을 없애는 삼재풀이, 액운풀이 달집태우기 등을 진행했다. 시민들은 사상구불교연합회가 주관한 체험 부스를 방문해 소망을 담은 소원지를 작성하고 달집에 넣어 한 해의 소망을 기원했다.

회장 성림 스님은 "제가 올해 신임 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불교문화 홍포에 힘쓰겠다고 서원을 세웠는데 심인택 신도회장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어 이번 부스를 마련했다. 사상구민들에게 불교문화를 홍포를 하고 구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역민들이 불교문화를 접하고 친숙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사상구에서 주최한 전통 달집놀이는 2000년에 시작됐으며 코로나 방역을 위해 3년 동안 개최하지 못하다 이번 해 새롭게 열렸다. 올해 행사에는 지역민 10만 여명이 참여했으며 소망기원 지신밟기, 제기차기, 타로, 대북공연, 풍물놀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에 동참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남해 미륵암 용왕대재·방생법회 봉행

이태원 희생자 극락왕생 등 발원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남해 미륵암(주지 청운)이 계묘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국가의 안녕과 평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용왕대재 및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2월 5일 남해 물건항 앞 바다에서 봉행된 이날 법회에는 미륵암 신도와 지역불자 1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대중들은 미륵암 청운 스님의 인례에 따라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지구촌 전쟁종식과 전쟁으로 인한 조속한 피해회복,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발원했다.

이어진 방생법회에서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평화, 코로나 조기종식과 사부대중의 건강을 기원했다.

미륵암 청운 스님은 "현 시대는 어려운 시기"라며 "서로 협력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理事에 걸림 없는 이 시대 모범 · 만세의 귀감

금성당 명선 대종사 다비식 엄수돼

2월 6일 화엄사서 영결 · 다비식
원로회의장으로, 2000여 명 참석
종정 성파 · 진우 스님 등 대독 조사
달라이라마 오랜 인연, 조사 보내와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명선 대종사 원로의회장 장의위원회는 2월 6일 화엄사에서 '금성당 명선 대종사 영결식 및 다비식'을 봉행했다.

호남지역 불교 포교에 평생 정진했던 금성당 명선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엄수됐다.

금성당 명선 대종사 원로의회장 장의위원회(위원장 대원 스님)는 2월 6일 화엄사에서 '금성당 명선 대종사 영결식 및 다비식'을 봉행했다.

행사는 명종을 시작으로 영결법요(우인 스님), 헌다, 헌향, 행장소개(종일 스님), 추도입정, 영결사(대독 대원 스님), 법어(대독 일면 스님), 추도사(대독 혜일 스님), 조사(종회의장 대독 만당 스님, 밀운 스님, 달라이라마 대독 진옥 스님, 김영록 전남도지사 대독, 신도회장 장길선)에 이어 조가(정율 스님, 연합합창단), 헌화(종단 및 각 대표), 인사말(문도대표 종국 스님)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원로회의 대원 스님, 암도 스님, 원로회의 부의장 일면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과 명예 원로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혜일 스님, 법규위원장 혜경 스님,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 종회의원 덕현, 종보, 만당, 우봉, 정범 스님과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한 화엄사 문도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해 명선 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는 법어 대독을 통해 "가랑비 간밤에 산에 내려 온갖 꽃 눈부시게 피었네. 잔잔한 바람 먼 숲에서 피니, 골짜기엔 그윽한 향기 흩어지네"라는 법어를 내리고, "수행과 중생 교제(衆生交濟)에 힘쓰시다 세상과의 인연이 다해 원적(圓寂)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열반락(涅槃樂)을 누리시고 속환사바 보리군생(速還娑婆 普利群生)하소서"라고 애도했다.

이어 원로회의 의장 학산 스님은 영결사 대독을 통해 "화엄사 본사를 내 몸처럼 아껴 큰 불사를 하여 확장하셨고, 나아가 종단 불사의 어려운 일에 몸과 뼈를 깎는 아픔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달려나가 종단 발전에 헌신하셨다"고 추억하며, "사부대중은 못내 아쉬워 슬픔의 눈물이 하늘에 흘러 넘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모사 대독을 통해 "대종사께서는 의승수군유물전시관 건립으로 호국불교의 살아있는 교육현장을 남기셨다"며 "늘 수행과 교화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동시에 굴리셨고, 지역불교와 중앙불교의 양 날개를 함께 펴셨으니 이사(理事)에 걸림이 없는 이 시대의 모범이요 만세의 귀감이다"라고 대종사의 가장 큰 생전 업적을 찬양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도 대독을 통해 "이제 저희들은 대종사님이 일평생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 나아가고자 하며 공부와 정진을 이어가겠다"고 조사의 말을 전했다.

특히 달라이라마는 명선 스님과의 인연으로 이날 진옥 스님 대독을 통해 보낸 조사에서 "오늘 오전 명선 큰스님께서 입적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에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20여 년 전 다람살라를 방문하셨을 때 가까이에서 뵙고 종교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긴밀하게 의견을 나눈 것을 매우 감사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한국 불자들과 스님을 의지했던 신도들과 더불어 영적 선배이자 도반인 명선 큰스님 입적 소식에 깊은 조의를 거듭 표합니다"라고 서신을 보냈다.

영결식에 이어 명선 대종사 법구는 스님과 신도들의 만장과 함께 화엄사 전통 다비장인 연화대로 이운이 됐다.

일주문과 부도전을 지나 이운된 법구는 연화대에 마련된 다비장에 안치되었고, 대중들은 스님의 마지막 길을 호위했다. 이어 스님들의 거화와 다비를 통해 이생과의 인연을 다했다.

명선 스님은 1952년 도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9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상원사, 보관사, 범어사, 통도사, 도리사, 해인사 백련암, 상운사 등에서 수행 정진했다. 1970년부터 제3~8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했고, 화엄사 주지, 2012년 원로회의 부의장과 여수 흥국사 주지, 여수불교사암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월 2일 영수 흥국사에서 법랍 70년, 세수 88세로 원적에 들었다.

선운사 주지 후보 경우 스님 3선 연임

단독 출마…산중총회서 당선



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 주지 후보에 현 주지 경우 스님이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조계종 제24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일묵)는 2월 1일부터 3일 오후 5시까지 후보등록을 진행했다. 현 주지 경우 스님이 단독 입후보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친 뒤 2월 13일 오후 1시 선운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린 산중총회를 통해 당선이 확정됐다.

경우 스님은 선운사에서 태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85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 1989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만일사 주지, 장경사 주지, 총무원 사서국장 · 호법국장 · 감사국장 · 사서실장을 거쳐 14대, 15대 중앙종회의원을 지냈고 1995년부터 현재까지 선운사 주지를 지내왔으며 이번에 3번째 연임을 하게 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울산불교사암聯, 정월대보름 합동방생법회

2월 5일 태화국가정원 잔디정원
쌀 700포 울산시 · 남구청에 전달
삼호동청년회 · 체육회 공동주관
태화강 장어치어 3500마리 방생



조계종 울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산옹)는 계묘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울산의 발전과 울산시민들의 액운을 떨쳐내고 행복을 기원하는 한편 주민화합을 위한 합동방생법회와 달집태우기 월영기원제를 봉행했다.<사진>

2월 5일 울산 태화국가정원 잔디정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방생의식에 이어 2부 월영기원제, 달집태우기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조계종 울산불교사암연합회와 울산 삼호동청년회(회장 이상일), 삼호동체육회(회장 홍성민)가 공동주최 · 주관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불교종단연합회가 후원했다.

그동안 조계종울산불교사암연합회가 경주 감포에서 봉행해오던 연합방생법회를 울산 남구 삼호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태화강에서 달집태우기행사와 연계해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울산지역의 스님들과 김두겸 울산시장 등 각급 기관장들과 불자 30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방생법회는 육법공양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내빈소개, 연합회 회장스님 인사, 축사, 음성공양, 상단법요, 발원문낭독, 방생의식, 방생의 순으로 진행됐다.

산옹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울산 태화국가정원 잔디정원에서 방생법회와 달집태우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준 울산 남구청과 삼호동 청년회에 감사드린다"며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생명존중 사상은 방생이라는 방편을 의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보름달이 둥글고 밝아도 내 마음이 어둡다면 빛에 불과하다. 여러분들은 보름달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길 기원"한다며 "오늘의 축원은 '천재설소만보운응'이라 천 가지 재앙이 모두 소멸되고 만 가지 법은 구름처럼 모여들어서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어 울산불교사암연합회, 백양사, 월봉사, 한마음선원합창단 40명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은 자비 방생의 노래, 일천강에 비추는 달의 축가가 이어졌고 상단법요에 이어 발원문 낭독, 방생의식, 방생이 진행됐다. 이날 방생법회에서는 울산 태화강 생태계와 환경에 맞고 자연친화적이고 생환 확률이 높아 추천된 장어 치어 3500마리를 방생했다.

2부 달집태우기 행사에 앞서 조계종 울산불교사암연합회는 울산 남구청에 백미 10kg 500포, 울산시청에 200포를 전달했다. 2부 행사를 주관한 홍성민 삼호동체육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참석해준 사부대중에 감사드린다. 지역과 개인의 안녕을 기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방생의식까지 더해 큰 복덕을 누린 듯하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달집과 함께 액운들을 태워버리시고 새해에는 소원성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 주변에는 소망지 쓰기, 어묵 · 떡 · 차 등의 부스가 마련됐으며 태화강변에서는 삼호동체육회와 청년회가 주관하는 연날리기, 강강술래, 풍물패공연, 윷놀이, 제기차기, 지신밟기, 줄다리기 등의 민속놀이가 이어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 3년 만에 재개



정월 대보름을 맞아 불교와 민속신앙이 어우러져 전승되어 온 민속문화이자 마을공동체 의식인 부안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가 3년 만에 열렸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와 석포리 당산제 보존위원회(회장 박병우)는 2월 4일 내소사 경내 들당산(일명 할머니 당산나무, 수령 1000년 추정)과 일주문 앞 날당산(일명 할아버지 당산나무. 수령 700년 추정)에서 '석포리 당산제'를 개최했다.

진성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내소사 주변의 입암마을 등 5개 마을 주민 등 불자 300여명이 동참한 이날 당산제는 불교식의 시식의식과 유교식 재례의식으로 내소사 주변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고 지역발전을 발원했다.

각종 번과 만장을 앞세우고 풍물패의 가락에 맞춰 마을을 출발해 내소사 당산나무에 도착한 주민들은 내소사 스님들의 불교전통의식에 따른 시식의식으로 내소사와 내소사 사부대중, 마을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했다.

이어 일주문 앞 당산나무로 이동한 스님과 마을 주민들은 스님들의 축원과 독경에 이어 유교식 재례의식으로 당산제를 진행했다. 재례를 마친 마을 주민들은 민속놀이 등으로 대동한마당을 펼쳤다. 진성 스님은 "내소사 당산제는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문화유산"이라며 "사찰과 주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지역 사찰 자비의 쌀 나눔 이어



광주 연화사 등 광주지역 사찰들이 입춘과 정월기도 회향을 맞아 자비의 쌀 나눔을 이어갔다.

연화사(주지 명신)는 1월 30일 사찰에서 마련한 자비의 쌀 2600kg을 지역 불교단체에 전달하고, 광주 동구청(청장 임택)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무등산 원효사(주지 해청)는 2월 1일 광주 북구청(청장 문인)을 방문해 백미 1000kg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백미는 지역의 소외계층 100가구에 전달된다.

동원사는 2월 4일 대웅전에서 쌀 2600kg을 (사)빛고을나눔나무, 자비신행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맑고향기롭게, 생명나눔실천광주본부 등에게 각각 전달했다.

자운사(주지 일국)는 2월 8일 광주불교연합회 부설기관인 (사)빛고을나눔나무에 백미 100kg을 전달했다.

20여 년 전부터 매년 광주지역 사찰들은 정월과 입춘기도에 맞추어 신도들이 시주한 쌀을 지역 불교단체와 복지시설, 지자체에 후원해왔다. 이 외에도 신광사, 문빈정사, 증심사 등이 동참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동안거해제 · 신년하례법회 봉행

2월 5일 사부대중 300여 명 동참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주지 일원)가 계묘년 동안거 해제법회와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2월 5일 동안거 해제일을 맞아 전북불교회관 큰 법당에서 열린 동안거 해제법회 및 신년하례식에는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 前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중앙종회의원 각진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도영 스님은 동안거 해제법문을 통해 "우리는 깊이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것을 타파했을 때에 깨달음을 얻는 바로 해탈의 길을 간다. 출가 후 금오 노스님으로부터 시심마 화두를 받았으나 번뇌 망상에 시달렸다"며 "그 후 해인사에서 혜암 스님으로 부터 무자 화두를 받고 생활 속에서 위에 걸려 있지 않은 삶을 살게 되고 무자 화두로 들면서 다 내려놓은 삶을 살게 되더라"고 법문했다.

前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축사를 통해 "모든 금산사 사부대중은 더욱더 신심을 가지고 수행하고 또 금산사 본 · 말사, 또 다니시는 원찰 모두 함께 가람을 수호하고 포교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며 "큰 원력을 가지신 도영 큰스님께서 금산사 조실에 추대되신 것을 우리 17교구 대중 모두 경하드리고 사부대중 모두 큰스님을 모시고 교구를 발전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일원 스님은 "지난 해 문중회의에서 도영 스님을 금산사 조실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금산사에서 추대법회를 열어 여법하게 조실로 모실 예정이다"며 "큰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금산사와 본 · 말사, 전북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큰스님께서 더욱 건강을 잘 챙겨서 항상 우리 곁에서 응원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가불자 대표들은 동안거 기간 동안 정진한 대중스님들에게 승보공양을 올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 정각사 정월 대보름맞이 법회

달집 태우며 새해소망 기원
어려운 이웃에 라면 100박스

익산 정각사(주지 일행)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조계종 16교구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을 초청해 '행복한 이야기' 주제로 초정법회를 봉행했다.

2월 5일 정각사 극락전에서 봉행된 초청법회에는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익산신도연합회 송주용 회장, 오창록 익산포교사회장, 정헌율 익산시장, 이춘석 전국회의원, 지역주민들과 불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경재 마한거사림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정각사 주지 일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멀리 익산까지 와주신 등운 스님과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덕산 스님께 감사드린다"며 "큰스님의 법문을 통해 신행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대보름 달집태우기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액운을 떨쳐내고 새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 성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정월초하루는 가족단위의 명절이라면 대보름은 마을공동체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명절"이라며 "훌륭하신 스님의 법문을 통해 새해에는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모든 중생은 행복과 행복의 인연을 짓고 고통의 인연을 짓지 않는다. 모든 중생은 고통 없는 행복과 멀어지지 않고 평등한 마음을 내어준다"며 "복을 짓는 방법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복을 짓는 대상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법회 후 대중은 달집태우기 행사장으로 이동해 소원지를 태우며 마을의 평화를 기원했다.

한편 익산 정각사는 2월 2일 오산면 행정복지센터에 라면 100박스를 기탁했다. 기탁된 라면은 오산면 관내 취약계층 가구와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칠곡 동명사, 사랑의 후원 물품 전달



칠곡 약목면 소재 동명사의 주지 법운 스님(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을 비롯한 종도 스님들이 2월 7일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롤 휴지 200박스, 250만 원 상당의 사랑의 후원 물품을 이재혁 약목면장에게 기탁했다.

동명사 주지 법운 스님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실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혁 약목면장은 "법운 스님과 종도 스님들께서 매년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데,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동명사에서는 매년 후원 물품을 기탁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배철완 대구지사장

日, 8백년 전설 속 차밭, 사찰서 재개 시도

코쇼지 부지 뒷산 차나무서
고유 재래종 유전자 발견돼
7명원중 한곳으로 잠정결론
향후 결정적 문헌 발견 기대

박정현 객원기자


코쇼지에서 발견된 차나무들. 사진출처=닛폰닷컴

13세기 선승들에 의해 시작된 일본의 차(茶) 역사. 이중 교토 남부에 위치한 도시 우지(宇治)의 차는 그 시작과 함께해온 차의 도시다. 14세기 일본의 최고 권력자였던 아시카가 요시미츠는 우지에서 7곳의 차밭을 엄선해 '7명원(茗園)' 이라는 이름을 붙여 최고의 차라고 평가했지만 현존하는 차밭은 단 한 곳. 그러던 중 우지의 고찰 코쇼지(興聖寺)에서 7명원 중 한 곳으로 추정되는 밭이 발견돼 화제다. 지난 2월 2일, 일본의 '닛폰닷컴' 은 부활하는 전설의 차밭에 대해 보도했다.

7명원 중 한 곳인 아사히엔(朝日園)의 흔적으로 추정되고 있는 곳은 우지의 고찰, 코쇼지 부지의 뒷산이다. 코쇼지는 13세기 일본 조동종의 종조인 도겐(道元) 선사가 최초로 세운 선원으로 쇠락하다 17세기 중반 당시 우지산 기슭에 있던 차밭 안에 사찰을 중창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교쇼지의 산에서 차나무를 발견한 차 연구가 마츠바야시 토시유키는 "단풍으로 유명한 참배로를 탐방하던 중 돌담 근처에서 오래된 차나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아사히엔의 흔적이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전했다. 코쇼지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소자키 엔다이 스님 역시 "코쇼지에서 근무한지 11년이 넘었고, 차밭에 절을 중창했다는 알고 있었지만 차밭이 아직까지 남아 있을 줄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마츠바야시와 코쇼지 측은 차밭의 역사에 대해서 조사하던 중 사찰에 남은 차밭이 아시카가의 7명원 중 아사히엔의 흔적인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코쇼지 측은 "사찰의 뒷산은 우지산이라고 불리지만, 이전에는 아사히산이라고 불렸으며 사찰에 남은 옛 기록화도 산 뒤로 차밭이 펼쳐져 모습이 묘사돼 있다"고 전했다.

또 "사찰에 남은 차나무들의 품종을 교토대학의 농림센터에 문의한 결과 코쇼지의 차나무들은 현재 일반적인 차밭에서 보이는 개량품종이 아닌 교토 고유의 재래종에 가깝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사찰의 차밭이 역사적으로나 유전자원적으로 귀중한 장소임이 밝혀졌다.

다이엔 스님은 "사찰에 남은 기록에 따르면 중창당시 경내엔 7개의 다실이 있었고, 중창전에는 차를 만드는 제다실이 있었다고 한다. 향후 이곳이 아사히엔의 자리라고 밝히는 문헌이 더 발견되면, 이 땅이 7명원의 하나라는 역사적인 장소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현재 코쇼지측은 삽목법을 이용하여 사찰의 오래된 차나무에서 종자를 늘리고 있으며, 이후 차밭을 정비하여 늘릴 계획이다. 코쇼지 측은 "늘린 차밭은 사찰의 새로운 명소이자, 역사적인 명물로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밭은 최초로 재발견한 마츠바야시는 코쇼지의 찻잎을 이용해 샘플식으로 오룡차를 제다, 현지의 오래된 찻집들을 중심으로 시음회를 열고 있다. 차를 맛본 한 차인은 "과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명차의 맛이다. 차 전체에서 단맛이 돌면서 일반적인 우지의 차와는 또 다른 맛"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제다업 관계자는 "그동안 소실 직전으로 알려졌던 재래종 차나무가 밭의 형태로 사찰에서 발견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 불가와 차의 불가분의 관계가 새롭게 보인다"며 감격스럽다는 감정을 내비쳤다.

中, 설 행사서 불교기 게양한 티베트인 처벌

자택 구금 및 벌금 929만 원 부과


로사르 행사에 게양된 불교기.

중국이 티베트 설 명절인 '로사르' (Losar) 때 중국 국기 대신 불교기를 게양한 대학생을 처벌했다.

지난 2월 7일 티베트 인권 민주주의 센터(TCHRD)는 "중국 당국이 로사르 행사에서 불교기를 게양한 티베트 대학생 게펠(Gephel) 등을 자택에 구금하고 5만 위안(한화 약 92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사상 교육에 참여하라고도 명령했다.

행사를 주최한 게펠은 앞서 중국 국기를 의무적으로 게양하고 행사를 중국어로 진행하라는 경찰의 조건을 거부했다. 대신 불교기를 게양하고 티베트어와 문자만을 사용했다. 공연도 티베트 전통 음악이나 안무로만 꾸려졌다.

게펠은 경찰 조사에서 "불교기는 평화, 연민, 지혜라는 보편적 가치를 상징할 뿐 정치나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TCHRD는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조치를 강력 규탄했다. TCHRD는 "중국 당국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한다"며 "대중 집회에서 불교기 게양을 금지한 것은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침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시민과 정치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 제1항은 종교 · 신념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는 내용의 유엔선언 제1조 1항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개인과 단체는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모든 행사에서 중국어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국내법과 국제 인권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며 "티베트인이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피력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호주 멜버른 불교 사찰 화재로 전소

소방당국, 2시간 30분만에 진압


멜버른에 위치한 전소된 사찰. 사진=AAP

호주 멜버른의 한 불교 사찰이 화재로 인해 전소됐다.

지난 2월 5일(현지시간) 더가디언(The guardian) 등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멜버른 남동쪽에 위치한 브라이트문 부디스트 소사이어티 사찰(Bright Moon Buddhist Society Temple)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더가디언에 따르면 화재 규모는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도 목격될 만큼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지역 소방 당국은 "근래 최대 수준의 화재"라며 "높이 5층 규모의 사원이 전소됐다"고 설명했다.

화재가 발생한 오후 8시께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됐고, 지역 소방당국은 즉각 100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소방인력을 투입했지만 전소를 막을 수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는 최초 발생 2시간 30분 후인 오후 10시30분께 완전히 진압됐다.

지역 주민 약 30명은 긴급 대피했다. 사찰 관계자, 시민, 소방인력 중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약 600명의 유골을 안치했던 법당은 화재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아 신도들이 안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사찰에 부친의 유골을 모신 한 베트남인 신도는 "아버지는 멜버른으로 오신 후 사찰에 오실 때마다 큰 힘을 받으셨다"며 "아버지 유골이 훼손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달음에 달려왔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어 "그래도 충격적인 사건임은 분명하다"라며 "지역민들은 하나의 성역(聖域)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찰은 불교도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 공간으로써 큰 의미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1980년 지역 불자들이 불자회를 조직하고 한 차고에서 법회를 갖다 불사의 뜻을 모았다. 이후 매년 수 천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할 만큼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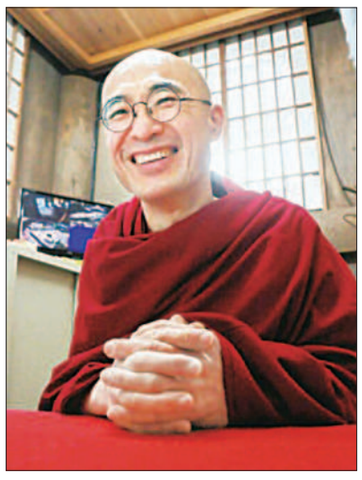
사찰 관계자는 "이곳은 부처님을 모시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만남의 장소였다"며 "오랜 시간 지역민과 함께 했기 때문에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라고 안타까워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 파악에 착수했지만, 방화를 의심할 만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정현 객원기자

일본인 최초 '켄뽀', 도쿄 티베트 불교센터 개원

13년간 강원 마친 오쿠나 스님
대중 함께하는 공간 되길 발원


일본인 최초로 '켄뽀' 학위를 취득한 오쿠다 스님. 사진출처=고베신문

전통 강원의 수학체계가 길고 어렵기로 유명한 티베트 불교, 이중 13년간의 전통 강원 과정을 마친 최초의 일본인 스님이 도쿄에 티베트 불교 센터를 개원해 화제다. 2월 1일 일본의 '고베신문' 은 일본인 최초 '켄뽀' 인 오쿠나 츠요시 스님에 대해 보도했다.

티베트 불교는 전통적으로 삼장에 대한 교학과 밀교에 대한 수행을 어느 과정까지 마쳐야만 포교 일선에 나설 수 있다. 티베트 불교의 4대 종단 모두가 최소 5년에서 최고 20년에 가까운 전통 강원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중 사캬파의 전통강원에서 13년간의 교과과정을 마친 오쿠다 스님은 일본인 최초의 '켄뽀' 학위를 취득했다. 켄뽀란 티베트 불교에서 박사에 해당하는 학위 중 하나며, 사원의 방장 혹은 주지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오쿠나 스님은 30여 년 전 근무하던 출판사를 그만두고 세계배낭여행을 시작했다. 이중 티베트와 네팔을 여행하던 중 불교에 흥미를 가졌고, 네팔에 있는 티베트어 학교에서 티베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스님은 "네팔에서 공부하던 중 남인도의 종사르 사원에서 온 티베트 스님의 초청으로 남인도를 방문한 것이 출가의 계기였다"고 회상했다. 스님은 그곳에서 "티베트 불교엔 일본에 전해지지 않은 불교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 본격적인 불교 공부를 시작, 남인도 유학 4년째에 출가했다.

스님은 이후 2곳의 사원에서 9년간의 현교과정과 4년간의 현교과정을 마쳤다. 스님은 "출가한 이상 정진하며 나아가자는 마음이 켄뽀학위까지 취득하게 됐다"면서 "켄뽀가 된 그해 일본으로 돌아온후 어떻게 나의 공부를 회향하면 좋을지 고민했다"고 전했다. 이후 스님은 티베트 불전 강독이나 불교 특강과 같은 활동을 이어 나갔다. 마침 지역사찰에서 주지를 지내는 일본인 도반 소개로 관음성지로 유명한 고찰 엔교지(圓教寺)에서 8년간 머무르게 됐다. 스님은 당시 엔교지에서 유명인사였다. 스님의 가르침을 듣거나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왔다.

지난해 티베트 은사스님으로부터 "이제 자신의 말로 불교를 가르치기 시작하라"는 권유와 함께 '체첸 텐펠링(大悲弘法寺)' 이라는 사찰명을 받았다. 도쿄에 새롭게 공간을 마련한 오쿠다 스님은 "8년간 엔교지에서 근무하면서 현재 불교가 대중들과 떨어져 격리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불교가 대중들과 함께해야 함을 지적했다. 스님은 "티베트 불교의 가장 기초에는 일체중생에 대한 자비를 먼저 가르친다. 자비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모두에게 전하는 불교를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3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안내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월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2학년	각 배	각배(시왕재)	수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3학년	실 기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불공, 시식	목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3년 1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3년 3월 첫째주 월요일(3월 6일)
※개강 이후 3월 중 입학신청 가능
■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장 김 태 호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오케스트라와 '만해'로 기리는 3.1절

광주필하모니오케스트라 3.1 기념공연
'불교시인 한용운이 부르는 님의 침묵'

천안 예술의 전당 2월 16일 오후 7시
서울 롯데콘서트홀 2월 17일 오후 7시

'님의 침묵' 등 만해 스님 대표시 낭송
클래식음악·고전무용 등 컬래버무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만해 스님.


광주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다가오는 3.1절을 맞아 3.1운동의 주역이었던 만해 스님의 시와 삶을 통해 3.1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공연이 마련된다.

경기도 광주시 클래식 전문공연 단체인 광주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2월 16일 천안 예술의전당과 17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3.1절 기념 '불교시인 한용운이 부르는 님의 침묵' 공연을 개최한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만해 스님을 통해 항일투쟁과 호국정신을 널리 알리고 잊혀가는 민족적 자긍심과 3.1운동 정신을 다시 한 번 조명하는 이번 공연은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레퍼토리로 구성된 공연으로, 시낭송 및 고전무용, 비보이, 연극배우 등이 함께하는 컬래버레이션 무대로 펼쳐진다.

지휘자로 김기원, 사회자 서기철, 소프라노 이다미, 테너 하만택(서울), 테너 조규대(천안), 시낭송자 박종선, 고전무용가 정은선, 비보이 서승현, 극단파발극회 등이 출연한다.

공연은 시벨리우스의 곡 'Impromptu(즉흥곡)'를 배경음악으로 한 만해 스님의 시 '님의 침묵' 낭송으로 시작한다.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서곡(Overture Finlandia)'에 이어 드보르작의 'Slavonic Dances Op.72 No.2' 연주를 배경으로 만해 스님에 대한 해설이 이어진다. 소프라노 이다미의 '비가'와 '고향'이 이어지고, 만해 스님의 시 '알 수 없어요', '나의 꿈' 낭송이 이어진다. 테너 조규대(천안 공연)와 하만택(서울 공연)이 김동진의 '가고파', 현제명의 '희망의 나라로'를 부르고, 관현악곡의 아리랑이 이어진다. 인터미션 후 황병기의 침향무, 3.1운동, Polovtsian Dances (오페라 '이고르공' 중), 만해 스님의 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룻배와 행인' 낭송, 독립선언문, 독립군가, 차이코프스키의 'Overture 1812년'이 이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75명의 연주자를 포함해 출연진, 스텝 등 총 11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연이다. 지역단체로서 중앙무대에서의 큰 공연으로 광주시를 알림으로 2024년에 개최될 세계관악 컨퍼런스를 앞두고 시작되는 광주시의 문화예술행사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공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올해 경기도 전문예술단체로 지정 등록됐다.

만해 스님은 1986년 설악산 오세암에서 불교에 입문했다. 이후 블라디보스톡 등 시베리아와 만주 등을 여행하고 1905년에 설악산 백담사에서 연곡 스님을 은사로 정식 득도했다. 한문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역경에 주력했으며 1910년에는 불교의 유신을 주장하는 〈조선불교유신론〉, 1914년에 〈불교대전〉 〈채근담〉 주해본을 발표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는 만주지방 여러 곳에 있던 독립군의 훈련장을 순방하면서 독립군에게 독립정신과 민족혼을 심는 일에 매진했다. 1918년 불교잡지 월간 〈유심〉을 발간했으며, 1919년 3.1운동에 백용성 스님 등과 함께 불교계 대표로 참여했다. 1920년 만세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3년 동안 옥살이를 했으며, 출소 후에도 강연 등 여러 형태로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1925년에 오세암에서 선서 〈십현담주해〉를 탈고하고, 1926년 한국 근대시의 기념비적인 작품이자 그의 대표 시집 〈님의 침묵〉을 발표했다. 수록된 88편의 시는 대부분 민족의 독립에 대한 신념과 희망을 사랑의 노래로 형상화했다.

1927년 일제에 항거했던 '신간회' 결성을 주도했으며, 1930년 권상로가 운영해오던 잡지 〈불교〉를 인수해 불교를 널리 알리는 일에 매진했다. 고루한 전통에 안주하려 했던 불교를 비판했으며, 승려의 자질향상과 기강확립, 생활불교 등을 주창했다.

1938년 불교계 민족투쟁비밀결사단체인 만당사건으로 동지들과 함께 검거되어 고초를 겪었다.

1944년 6월 29일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서 입적했다.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 그리고 3.1운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 중의 하나가 '만해'일 것이다. 그의 이름은 독립운동사는 물론이고 한국문학사와 한국불교사에 걸쳐 진하게 새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유기적인 그의 업적들은 한국사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번 공연은 만해 스님이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이자 불교 혁신론자로서의 다양한 면모를 지닌 선지식이었음을 다시 한 번 조명하고, 그를 통해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순천대博 '불교문화재 순천나들이' 展

2월 28일까지(10월 말까지 연장)
금룡사 〈수능엄경〉 등 200여 점
3월 선암사 보물 특별전도 예정
2022 국립대학교 육성사업 일환


수능엄경(보물).

전남지역 불교문화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은 2월 28일까지(10월 말까지 연장 예정) 2층 상설전시실에서 특별전 '불교문화재 순천나들이'를 개최한다.

지역에 숨겨진 불교문화와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 2022학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순천 금룡사 소장 〈수능엄경〉·〈묘법연화경〉과 순천대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순천 금둔사, 광양 옥룡사, 영암 천황사 등의 유물 약 200여 점을 선보인다.

대표 유물인 국가지정 보물 〈수능엄경〉은 1461년(세조7) 교서관에서 간행한 10권 10책 가운데 권1에 해당하는 금속활자본이며, 간경도감 최초의 대역 불경 언해서이다. 금룡사 소장본을 대본으로 하여 1462년(세조8)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판본이 이후 〈수능엄경〉의 정본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특히, 금속활자본인 〈수능엄경〉은 서지학적으로 귀중하며, 한글 창제 무렵의 국어특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 귀중한 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종수 박물관장은 "'불교문화재 순천나들이' 특별전을 통해 전남 동부 지역의 대표 박물관인 순천대박물관이 그동안 축적해온 연구 성과와 지역에 숨겨진 불교 보물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기획하였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대학교박물관은 3월 23일부터 10월 말까지 2층 상설전시실에서 2023년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기념 '세계문화유산 선암사 보물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특별전 '불교문화재 순천나들이'도 10월 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2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 시간(오후 6시~9시)에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

2월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특별전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를 비롯해 상설전시실 곳곳에서 문화유산과 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된다. 특별전시실의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에서는 외규장각 의궤가 돌아온 지 10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의궤 속에서 찾아낸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아 소개한다.

선사고대관 구석기실에서는 '세계의 구석기 문화'라는 주제로 한반도에서 출토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가진 세계사적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고구려실 '고구려 기와의 이해'에서는 고구려 기와 출토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백제실에서는 백제의 금제품과 건축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백제 금제품의 제작 특성'과 '백제의 건축 장식'이라는 주제가 준비되어 있다.

중근세관 고려실 '고려시대 불교문화'에서는 고려의 불교문화가 남긴 문화유산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 알아볼 수 있고, 조선실에는 '조선의 유교화와 소학',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주제가 마련되어 조선시대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과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서화관 서화 I 실에서는 '서화의 제작기법'이라는 주제로 조선시대 서화의 제작과정과 그 기법에 대한 보존과학적인 설명을 전시품과 함께 들을 수 있다. 서화Ⅱ실에서는 '천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경사를 남기다-무신진찬도'와 '왕세자 책봉기념 병풍-요지연도'가 진행된다. 왕실의 진찬과 의례를 기록한 '궁중행사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다.

그 밖에도 '조선 백자에 나타난 외래요소', '조선시대 불화에 사용 된 채색 안료', '두 보살 이야기 - 간다라와 그 이후', '책으로 만나는 박물관' 등 상설전시실의 다양한 전시관에서 다채로운 주제의 큐레이터와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8~2/1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맛지마니까야(2)중간길이로설하신경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2	대승기신론해동소혈맥기(1)	원효/공파스님 역해	운주사	7	자타카전서:부처님본생이야기		한국빠알리성전협회
3	부적의비밀:기원과상징의문화	자현/김재일 그림	모과나무	8	맛지마니까야(3)중간길이로설하신경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4	청정도론(1)	붓다고사/대림	초기불전연구원	9	디가니까야(1)길게설하신경	각묵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5	예수님은법받은미륵존여래불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10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	김원수 지음	청우당

책세상

"선이란 교법 실천하는 것…진면목 찾는 과정"



선의 발자취를 따라서

현견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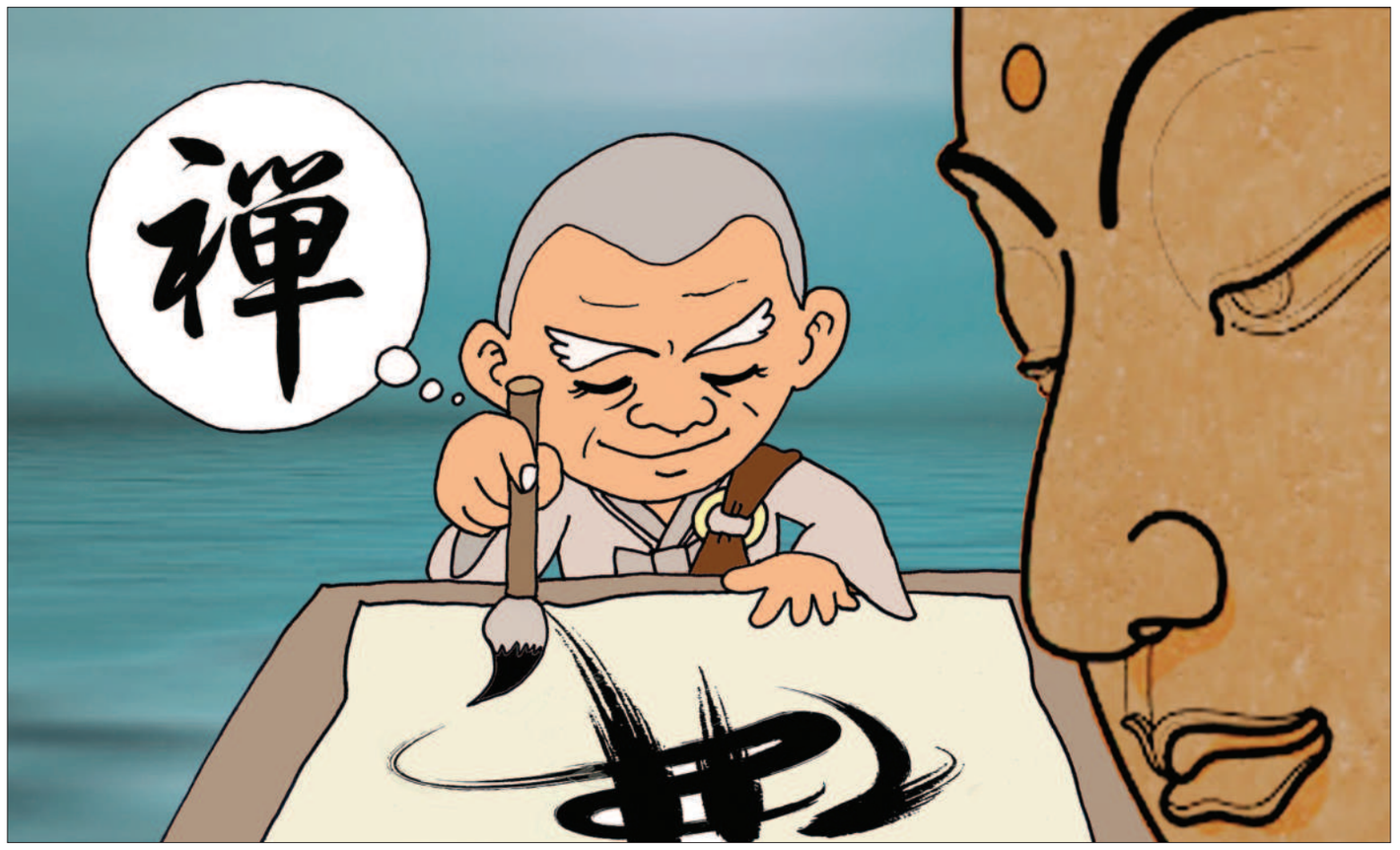
담앤북스 펴냄/2만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달마시대 이전부터 청대에 걸친 禪 문화의 역사를 산책해 '눈길'

선종과 관련된 각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적 바탕으로 인물 선법 내용 등 핵심내용 조명한 것이 주요한 주제

한국선종사서 조명안한 선법과 인물 각 시대의 사회 정치 문화 상황 하에 선종 명맥 잇기 위해 겪은 변천사와 변화 과정 밝혀 신선한 반응 일으켜



현대불교신문 현견 스님 연재 DB 삽화

중국 선종은 당나라 중엽부터 말엽까지 선학의 황금시대를 이끌며 걸출한 인물들을 다수 배출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 선법을 전한 인물로 달마대사를 말하지만, 사실 중국에서 달마 이전에 이미 선법이 전해져서 유행하였다. 그 근간은 모두 인도불교를 기초로 하고 있다. 불교가 인도로부터 중국에 유입돼 중국식으로 재탄생한 수행법이 바로 중국선이며 곧 조사선이다.

그렇다면 한국불교의 선수행은 주로 임제종 수행법인 간화선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한국불교는 당대 선종과 임제종에 관한 선법 및 인물 자료는 풍부한 편이지만, 기타 제 종파에 대한 자료는 매우 희소하다. 그래서 저자는 중국 북경대서 연구 공부한 귀중한 결과물을 본지인 〈현대불교신문〉에 2년간 연재했다. 당시 주제는 선종에 관련된 각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물, 선법, 내용 등을 골자로 하였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선종사서 다루지 않던 선법과 인물을 소개하는가 하면, 각 시대의 사회, 정치, 문화 상황 하에 선종 명맥을 잇기 위해 어떤 변천사를 겪어 왔으며,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밝혀 당시 독자들로 부터 신선한 반응을 일으켰다. 그래서 원래의 1년 연재 약속은 자연스레 2년으로 늘어났다. 이런 배경으로 탄생한 이 책은 현재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불타사 주지로 정진중인 현견 스님이 〈현대불교신문〉에 2년간 격주로 선종에 관련된 사상, 인물 등 다양한 주제를 갖고 기고했던 내용을 엮은 것이다.

그렇다면 선(禪)이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해 저자 현견 스님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선이란 부처님 교법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다. 또한 선이란 문사수(聞思修) 가운데서 수(修)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과 수단이자 본래 진면목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곧 회광반조(回光返照)해서 자신을 해탈하고 자유자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들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고 청정해서 순진무구하며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공적(空寂)의 상태라는 것이다. 그래서 참선은 곧 밖으로는 모든 경계가 끊어지고, 안으로는 적정(寂靜)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또 '공적지심(空寂之心) 영지불매(靈知不昧)'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책을 쓰면서 저자는 글의 근거와 출처를 확인하고 거듭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한다. 저자는 "글 한 줄 쓰더라도 출처가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했고, '누가 어떤 얘기를 했다'는 구절을 쓸때면 대장경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정확히 밝히고자 노력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회고한다.

현견 스님은 중국 북경대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석학이다. 그만큼 중국불교에 관해 다양한 안목으로 중국 선법의 형성에서부터 시대별로 활발히 활동한 선승과 그 중심 사상 등 다방면에서 깊이 연구한 결과물이 이 한 권의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현견 스님과 함께 달마 이전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선문화의 역사를 산책하다 보면 비로소 선불교의 진면목은 물론 자신의 본래 참모습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저자 현견 스님은?

1982년 해인사 삼선암으로 출가해 중국 북경대학교 석사와 동 대학교 박사(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동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에서 강사를 지냈고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를 맡고 있으며,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불타사 주지로 정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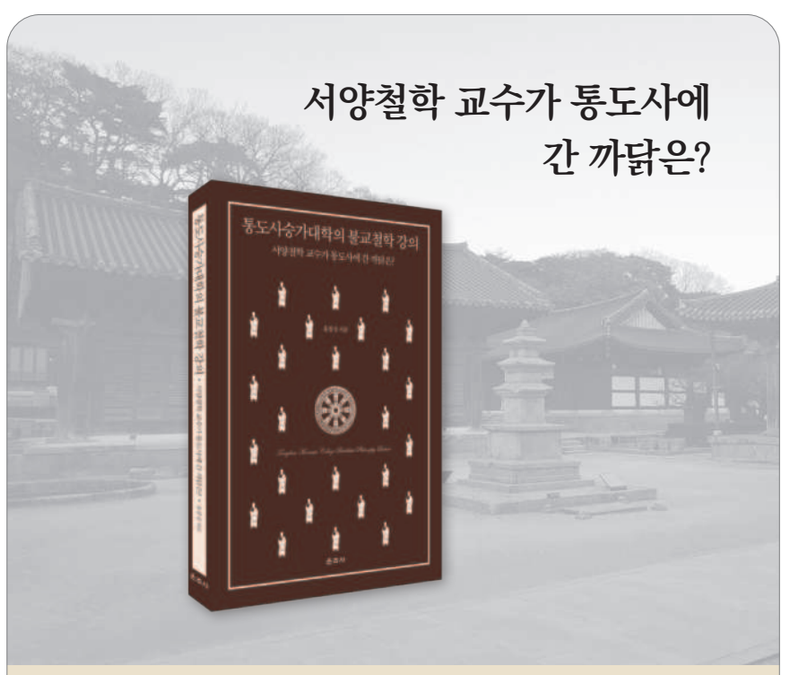
책 속의 밑줄 긋기

"선(禪)은 중국선종의 독창적인 창작물이 아니다. 인도에서 부처님께서도 선수행을 하셨고 이 선수행을 통해서 성불하셨다. 이 외에도 인도의 외도들도 선수행을 통해서 본인들이 목적하는 바를 성취했다. 인도불교가 중국에 유입되어 경전 번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마침내는 교상판석을 통해 경전의 심천을 가려서 그것을 근거로학파 및 종파가 성립되기도 했다." 〈p.19〉

"염불선법은 초창기 중국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수행방편 중 하나였다. 특히 염불삼매는 대소승의 수행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또 각각의 시대를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 염불삼매 수행법은 중국 초창기의 선종은 물론이거니와 후대 선종에도 많은 영향을 주면서 선종의 역사와 함께 지금도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p.48?

"중국의 선종 하면 제일 먼저 달마대사의 커다란 눈과 덥수룩한 수염, 소림면벽이 떠오른다. 특히 한국에서는 달마 이전의 중국선법 및 단체에 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도, 많이 연구가 된 것도 없다. 하지만 중국불교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중국선종이 태동하기 전 불교가 중국에 유입된 초기에 여러 종류의 선법과 선승단체가 지속적으로 유행하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기도 했다." 〈p.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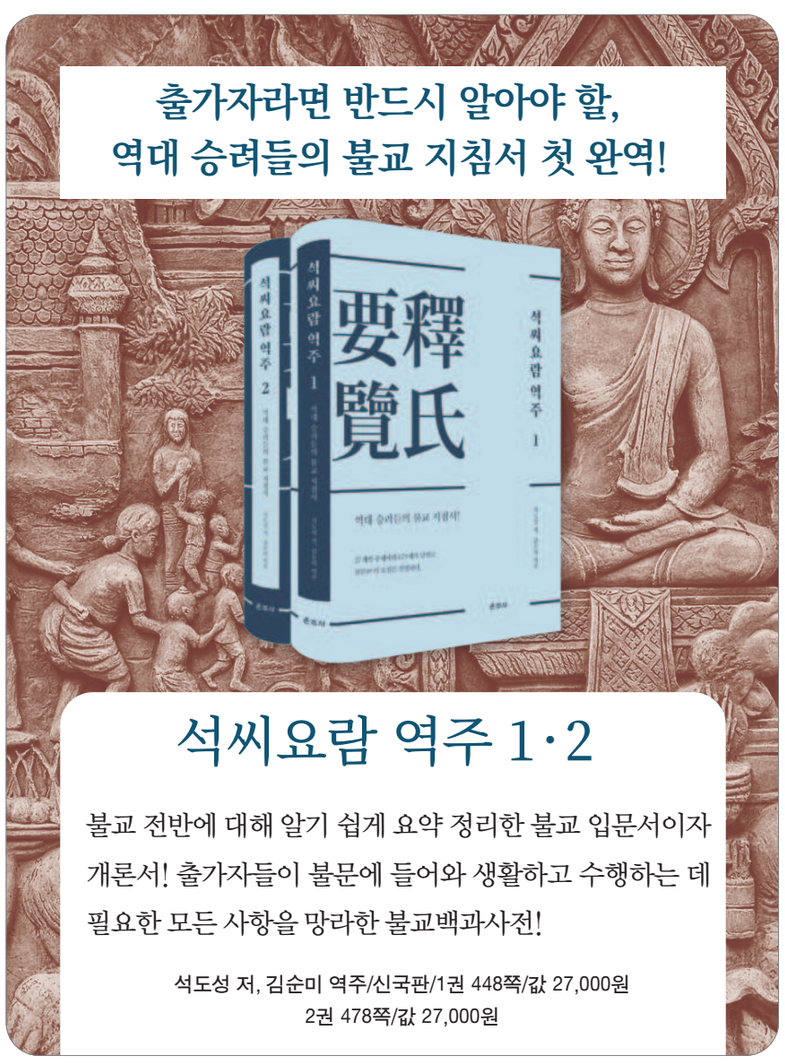
"중국선종사에서 육조혜능선사(638~713)의 출현에는 선종의 중국화 내지 탈인도선법의 요인 등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특히 혜능스님의 출현은 〈능가경〉에서 〈금강경〉으로 자리 전환 혹은 위치 전환의 분기점이라고도 한다." 〈p.140〉



통도사승가대학의 불교철학 강의

불교의 전통적 가르침이 전승되는 한복판에서 서양철학적 사유와 비판적 시각으로 불교철학을 논하고 그 진리성을 증명하는, 진중하면서도 깊은 철학적 사유와 유쾌 발랄한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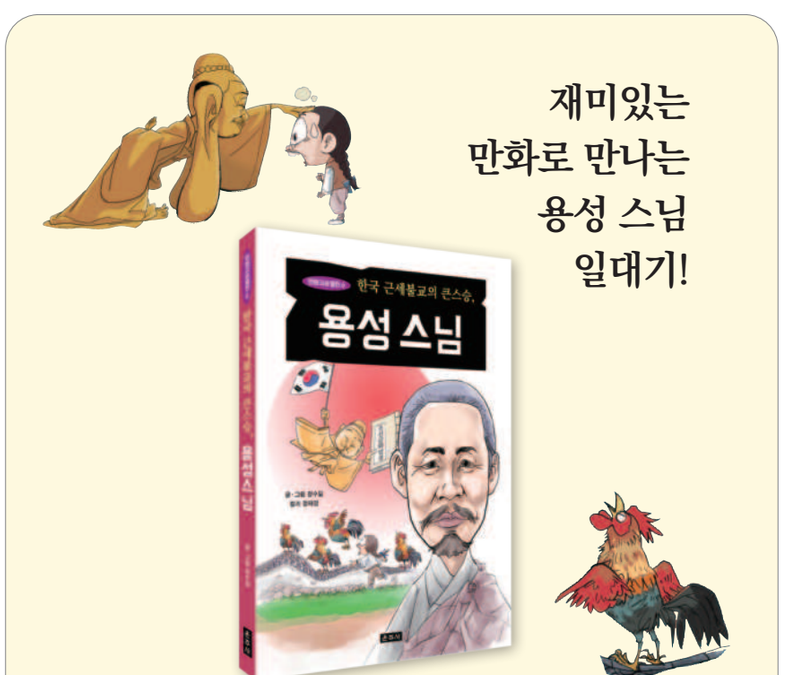
홍창성 지음/국판/248쪽/값 15,000원



석씨요람 역주 1·2

불교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불교 입문서이자 개론서! 출가자들이 불문에 들어와 생활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망라한 불교백과사전!

석도성 저, 김순미 역주/신국판/1권 448쪽/값 27,000원
2권 478쪽/값 27,000원



한국 근세불교의 큰스승, 용성 스님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불교의 근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선 한국 근세불교의 중흥조 용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그려냈다.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200쪽/값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날마다 읽고 쓰면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



처음쓰는대장경
곽철환 지음
시공사 펴냄
2만원



사경에 열중하는 불자들. 현대불교신문 DB사진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국내 최초의 대장경 필사집, 필요 구절 선별
“안정에 이르기 위해 지금 불교 속으로 간다”
필사 좋도록 경전 구절 옆에 쓸 공간 마련해

우리는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 열심이다. 눈앞에 펼쳐진 길을 곧이 걸으면서, 높이 우뚝 솟은 산을 따라 오르면서, 눈을 감고 명상의 세계에 고요히 침잠하면서 마음을 붙잡고 생각을 정리하고 삶의 궤도를 조율한다. 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다는 불혹에도, 귀가 순해져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이순에도, 뜻대로 행해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고희에도 우리는 자신을 다스린다.

이처럼 우리가 무릇 평생 자신을 다스리는 이유는 모든 것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생각은 시도 때도 없이 줄줄이 일어나 과거로 가서 자책과 회한과 원망에 빠지고, 미래로 가서 스스로 불안과 걱정을 만들어 낸다. 삶이 자신의 뜻대로 되길 바라는 탐욕으로 분노하고 괴로워한다. 자신의 색안경으로 대상을 끊임없이 ‘좋다/싫다, 예쁘다/못나다, 깨끗하다/더럽다’ 로 이분화하고 애착과 혐오를 반복하며 흔들린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다스리는 일은 곧 안정에 이르는 길을 찾아 가는 것이다. 그 안정에 이르기 위해 지금 우리는 불교 속으로 가야 한다.

이 책은 불경을 집대성한 대장경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구절을 선별해 엮은 필사집이다. 대장경은 방대하지만 널리 익히는 내용은 그리 많지 않은데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간추리면 그 분량은 손안에 들어온다. 그 내용을 매일 읽고 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안정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를 얽어매는 탐욕과 집착과 분별의 무더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절, 생각의 그림자를 걷어 내는 구절, 마음을 닦고 삶의 행로를 바로잡게 하는 구절들을 날마다 읽고 쓰다 보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안정에 이르는 길에 닿을 것이다.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필사의 시간’

자신을 다스리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중 필사는 인생에서 꼭 한번 해봐야 할 경험이다. 준비물은 종이와 펜, 베껴 쓸 글만 있으면 될 만큼 간소한데, 막상 시작하면 수십 년 글자를 쓴 사람도 처음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균형 잡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펜을 쥔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거나 너무 적게 주면 글자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종이와 손의 방향, 종이와 펜의 각도가 적절치 않아도 매끄럽게 써지지 않는다. 적절한 힘으로 자음과 모음을 붙여 글자를 완성하고, 쉼표와 마침표를 더해 문장을 완성하는 동안 그 사이를 채우는 여백만큼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은 균형의 시간이 쌓인다.

또한 필사는 애쓰지 않아도 마음에 새기는 힘이 강하다. 써야 할 글을 눈으로 한 번 읽는다. 손으로 움직여 쓰면서 마음속으로 읽거나 또는 입으로 소리 내어 또 한 번 읽는다. 쓰는 중간중간 혹은 다 쓴 다음에는 제대로 썼는지 번갈아 살피며 다시 한 번 읽는다. 한 번 쓰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 읽어야 하는 만큼 단단히 힘쓰지 않아도 써 내려간 글이 마음에 오래 남는다. 우리는 늘 아등바등한다. 쉬면서 숨을 고르고 싶지만 끊임없이 성장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내려놓지 못한다. 계속한다고 더 좋아지고 거듭난다는 보장이 없어도 치열하게 밀고 나가느라 애를 쓴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균형 잡기와 적당히 힘쓰는 법을 터득한다면 불안정한 삶에서 자신을 다스리기가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필사다.

필사의 힘과 아름다운 경전의 결합

이 책 〈처음 쓰는 대장경〉은 필사의 힘과 우리가 가진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경전을 결합한 책이다. 대장경에서 우리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을 가려 뽑아, 다음의 10가지 내용에 따라 분류했다. 물거품 같고 뜬구름 같고 번개 같은 몸에 대한 바른 통찰, 탐욕과 집착과 분별의 무더기를 벗어나 평온에 이르는 법, 괴로움과 그것을 소멸하는 진리, 헛된 것을 버리고 삶을 ‘지금 이곳’ 에 두는 법, 생각의 그림자를 걷어 내는 법, 마음을 닦는 노력, 진정한 배움, 불보살의 세계와 열반 속으로 가는 길, 붓다의 유언. 그러므로 〈처음 쓰는 대장경〉의 경전 구절을 필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몸과 생각, 삶의 행로와 마음을 다스려 스스로를 안정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책은 필사하기 좋도록 경전 구절 옆에 따라 쓸 공간을 마련했다. 필사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순서대로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구절부터 시작하면 된다. 시간을 정해 두고 쓸 필요도 없다. 아침에 읽고 저녁에 써도 좋고, 하루 중 자신을 다스리고 안정을 찾고 싶은 시간에 읽고 써도 된다. 마음에 드는 구절을 반복해 써도 좋다. 다만 날마다 읽고 쓰라. 불교인은 진정한 배움을, 쓰는 행위에서 위안을 얻는 사람은 진정한 안정을, 지나온 삶을 살피고 나아갈 삶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이다.

▲저자 곽철환은?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했다. 붓다의 가르침을 문자로 대중에게 소개한 지 20여 년, 지금은 북한산 자락에 터를 잡고서 책 읽고 글 쓰고 산에 오르며 생의 후반기를 다듬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불교 길라잡이〉 〈시공 불교사전〉 〈불교공부사전〉 〈불교의 모든 것〉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한 권으로 읽는 불교 고전〉 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핵심 아함경〉 〈금강경〉 등이 있다.

해인사승가대 학인 솔직담백 출가기



집떠나사는즐거움
해인사승가대학 지음
소리여행 그림
불광출판사 펴냄
1만8천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삶의 목적은 한 가지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녀석은 어디에 있는 걸까. 살다 보면 인생은 행복보다 불행에 더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더 많다. ‘사는 게 다 그렇지’ 스스로를 위로하고 적당한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 게 보통의 삶이라면, 평범함을 거부하고 끝끝내 행복의 완성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 중 하나가 출가수행하며 살아가는 스님들이다. 이 책은 겉보기에는 단순히 사는 듯 보이지만 실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삶을 고민하고 성찰하는 사람들, 진정한 행복을 찾아 가진 것 다 버리고 집 떠나와 머리 깎고 사는 ‘찐’ 행복 바라기들의 속마음 100% 출가 이야기다.

왜 하필 스님 되었냐고요?…“행복해지고 싶어서”

생존에 필수적인 일을 제외하고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다. ‘행복추구’ . 이 책을 쓴 해인사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이 출가해서 머리 깎고 사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배고파서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법당에 들어간 사람, 20대에 희망퇴직을 당하고 출가를 결심한 사람, 여자 친구와 헤어지고 방황하다가 은사를 만나 출가한 사람 등 사연은 저마다 다르지만 하나같이 행복을 찾아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했다. 연애도 못 해, 결혼도 못 해, 맛난 음식도 맘껏 못 먹어, 부와 명성도 쌓기 힘든데, 출가해서 사는 게 어째서 행복을 위한 일이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스님들이 찾는 행복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사랑, 돈, 명예처럼 수시로 변하는 것들로부터 얻어지는 잠깐의 행복감이 아닌 변치 않는 삶의 본질(진리)을 터득하는 것이야말로 스님들이 바라는 참 행복이다.

“내일 일은 나도 몰라요. 지금 좋으면 된 거죠.” 이런 하루살이 인생 같은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은 공감하기 힘든 얘기일 수 있다. 하지만 진지하게 자기 삶의 무게를 고민하는 사람,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얻은 찰나의 즐거움 끝에 허무함과 덧없음을 맛본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깊고 오래 삶의 본질을 성찰하는 스님들의 이야기가 마음 깊이 와닿을 것이다.

집 떠나면 개고생…“집 떠나 사는 재미 있다”

천천히 걷고 먹고 마신다. 항상 말과 행동을 차분하게 하고, 좋든 싫든 감정 기복과 표현이 적다. 사계절 내내 민머리를 하고 칙칙한 색깔의 옷을 입고 검은색 아니면 흰색 고무신을 주로 신는다. 인적이 드문 산중에 살면서 밤 9시가 되면 불 끄고 잔다. 스님에 따라, 생활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스님 생활이 이렇다. 그래서 ‘스님’ 혹은 ‘스님의 삶’ 하면 떠오르는 첫인상은 단연 ‘재미없음’ 이다. 만약 누군가에게 단 하루만 이렇게 살아보라고 하면 심심하다 못해 좀이 쑤셔서 안절부절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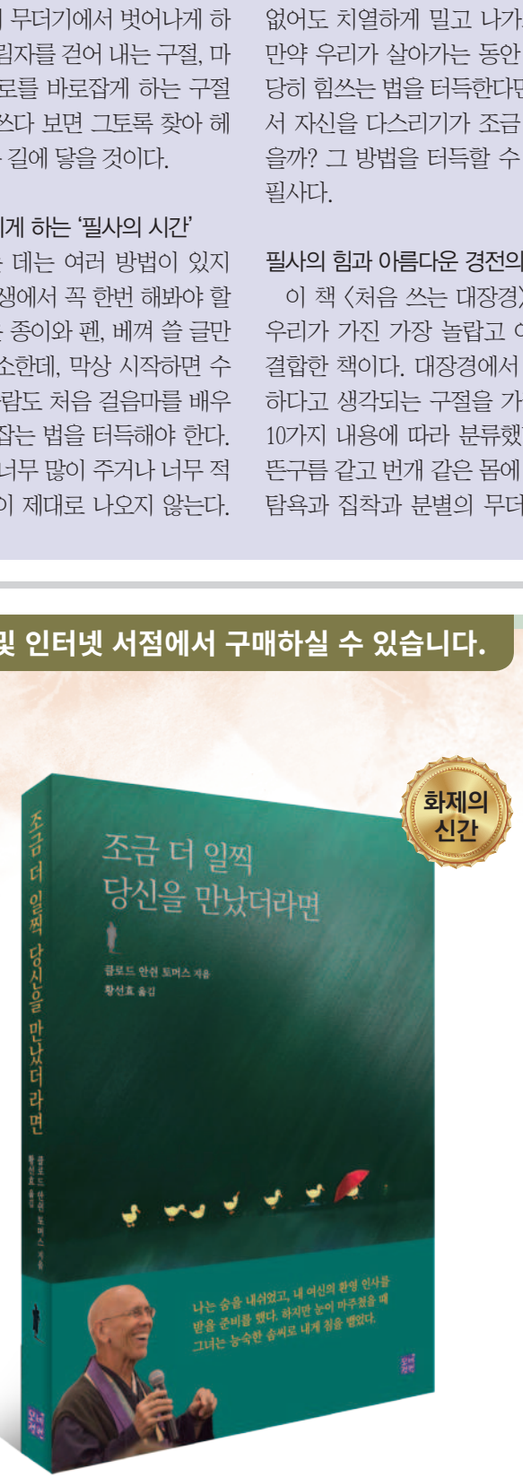
그런데도 스님들은 즐겁다고 말한다. 즐거움을 넘어 매 순간 삶의 경이로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과연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스님을 빼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책을 쓴 학인스님들도 그랬다. 출가하기 전까지 부처님, 절, 스님에 대해서 ‘1’ 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인연에 따라 출가한 뒤 직접 살아보니 밖에서 살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게 공통된 이야기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든 자기 만족을 위해서든, 억지로 애쓰고 꾸미고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사니까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이다.

출가 생활이 마냥 편하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 특히 어엿한 스님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롭게 배우고 익혀야 할 게 많은 학인스님들의 하루는 고단함 그 자체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공부와 수행, 사소한 일 하나까지 규율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불편함, 거기에 단체생활에서 오는 각종 스트레스까지 더하면 굳이 머리를 밀지 않아도 저절로 머리카락이 빠질 것 같은 게 스님들의 일상이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자. 스님도 사람이고 절도 사람 사는 곳이다. 스님으로 사는 건 생각만큼 느슨한 일이 아니다. 사람 모인 곳은 다 그렇듯 스님들 생활에도 희로애락이 공존한다. 성격과 생각이 서로 달라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다만 세속에서는 다툼과 잘못이 갈라섬의 원인이 되지만 절에서는 오히려 결속과 자기 성장의 토대가 되어준다. 남을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먼저 참회하고, 자신의 모난 곳을 다듬고 깎아서 원만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계기로 삼기 때문이다. 순간순간이 수행인 삶, 겉멋이 아닌 속멋을 가꿔나가는 삶, 여기에 스님으로 사는 즐거움의 참뜻이 숨어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 않은 출가 이야기

이 책의 주인공인 스님들은 처음부터 스님이 아니었다.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좇아서 불교에 귀의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이 존재의 문제를 탐구했고 마침내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 내면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다. 출가는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모조리 버려야 할 만큼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스님이 된다는 건 특별한 선택이자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의 나아감이다. 하지만 간절히 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없는 기회의 장이다. 김주일 기자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5



▶한줄요약
인도에 도착한 이주석 기자와 송 서화가는 천추사원으로 가는 길에 먼저 이번 사건을 보도한 뉴델리안 신문기자를 만났다.

"그 성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물을 찾아서 1

-가난한 대학생이라 사실 그땐 뒷골목 방도 감지덕지였습니다. 돈이 없어 난장 어쩌고 한 것 같아요. 그래 놓고선 그렇게 여행한 것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며 자랑이나 해대고. 하하하…. 국장님에게 들으니 아직 혼자시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총각입니다.

-그럼 뭐 즐길 날이 구만리네요. 제 나이쯤 돼야 이런 곳에 오면 다시 풀어지지요. 마누라 눈총도 없고 간섭도 없으니…. 하하하.

방을 얻어놓고 철저히 즐기기나 하자는 생각이 달콤한 과즙처럼 목으로 넘어갔다.

진탕을 좀 치다가 일해도 괜찮을 것이야. 그놈의 지긋지긋한 신문사 생활, 적당히 즐길 절호의 기회….

뒷골목을 돌아다니다가 방을 하나 얻었다. 그래도 깨끗한 방을 원했는데 생각만큼 깨끗하고 조용하지 않았다. 깨끗한 방이 600루피라는 바람에 끌려왔는데 아니었다. 전에 왔을 땐 400루피에 얻었던 것 같은데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며 따라가 보니 이렇게 지저분한 방에서 묵을 수 있을까 싶었다. 그녀와 함께 왔을 때가 언제였더라? 세월이 한참 흘렀다 하더라도 400루피 방보다도 못하였다.

송 서화가는 별 싫은 표정이 아니었다. 이왕 자유를 만끽하려면 이런 곳이 제격이라며 방을 얻자고 했다. 그도 대학 다닐 때의 방랑벽이 되살아난 것인지 몰랐다.

그래 얻게 된 방. 하루에 600루피. 좁은 골목 끝에 붙은 방이었다. 화장실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침대 하나만 달랑 있는 방이어서 하는 수 없이 침대 하나를 더 들이기로 했다. 주인은 침대 하나를 더 들여 주면서 큰 은혜나 베풀 듯이 굴었다.

-침대 하나를 공짜로 넣어주는 곳이 어디 또 있겠소?

침대 위의 이부자리를 들쳐보니 간밤에 연인이 묵었는지 아직도 얼룩이 마르지 않았다. 비릿한 냄새에 울컥 욕지기가 올라챘다. 손으로 프린팅한 순면 이불이긴 하였지만 한 땀 한 땀 떴을 라인이 헤어질 대로 헤어진 낡은 이불이었다. 내가 이 불을 둘둘 말아 집어 던져 버렸다.

주인이 어이가 없는지 나를 쳐다보다가 이불을 들쳐보고는 말없이 가지고 나갔다.

내가 앞장서서 나오는데 주인이 황급히 다른 이불을 들고 나와 너스레를 떨며 나를 잡았다.

-종업원이 미처 챙기지를 못했으니 이핼 허시오. 다른 곳으로 가봐야 이만한 방 800루피 안 주고 쓸 것 같으오?

-사람을 어떻게 보고.

말 같잖은 소리였다.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강물에 세수하고 목욕하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있어 신성은 더러움과 무관하다. 우리가 깨끗하다고 하면 더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더러움이 우리의 깨끗함 위에 있다면 싸워봐야 그들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두 눈 딱 감고 모든 것이 불결해 보이기만 한 그곳에 여장을 풀었다. 이곳의 생리를 겪어 보았기에 주인 말대로 그래도 600루피라면 싼 편이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면 바가지 쓰기 십상이라 마지못한 듯 그냥 머물기로 했다.

덜덜덜….

고물 선풍기가 늙고 쇠락한 인생처럼 금방이라도 나자빠질 것 같았다. 그나마 그런 선풍기라도 있어 다행이었다. 참아내기 힘든 더위를 그것이 날려주었다. 밖이 시끄러워 나가보니 시집을 오면서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여 두 집안이 싸우고 있었다.

혼자 뉴델리 중심지인 코노트 플레이스로 갔다. 언제였나? 이곳에 온 지가. 이제는 혼자구나.

감회가 새로웠다. 그날처럼 시민들이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원형 잔디밭이 여전히 푸르르다. 아차 하는 순간 새들이 신발에 변을 갈기고 달아나듯 날아갔다.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거지 행색을 한 사내들이 다가왔다. 새똥을 닦아주고는 엄청난 액수를 요구한다. 예전과 변한 것이 없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돈을 뜯기고 나서도 이게 이 나라 문화의 특색이라 생각하니 그렇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코노트플레이스 주변에 노점상들이 그대로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음료수를 파는 노점상들. 그때도 여름이었다. 더워 길가에서 그녀와 함께 음료수를 사서 먹었을 것이다.

맞아. 저 집인가? 지하로 들어갔다. 다른 곳은 그대로인데 이곳은 정말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사이에 이 나라가? 정보산업의 대국이 되었음을 입증이라도 하듯 가게마다 컴퓨터와 게임기가 산처럼 쌓였다. 코노트플레이스 주변에 있는 고급 시계점도 여전했다. 시계를 사주며 그녀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사는 모습은 거기가 거기인 게 분명하다. 역 주변에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언제나처럼 서성거리고, 가끔 요가를 보이는 수행승들의 모습도 보인다. 머리를 땅에 박고 어깨와 하체를 허공으로 들어 올린 채 오랜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것이 예전에 본 그대로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했었던 게 어제 같은데 오늘도 여전하다. 수행의 힘이라는 것이 저렇게 무서울 수도 있구나.

무굴제국의 샤자한이 죽은 왕비를 애도하여 만든 타지마할의 모델이 되었다는 후마윤 왕의 묘지로 갔다. 예전에 그녀와 함께 가보자고 하다가 가보지 못한 곳이다.

신비롭다. 인도의 다섯 번째 이슬람 왕조인 무굴왕조의 제2대 황제 후마윤(1508-1556)은 도서관 계단에서 죽었다. 그가 죽자 하지베굼이라는 이름의 왕비는 그가 살던 델리 근처에 페르시아 건축가 구미자기를 시켜 아름다운 묘를 만들었다. 인도인들은 환생은 믿고 내생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죽은 사람을 위해 정사각형의 넓은 정원을 바둑판같이 나누어 그 중앙부에 묘역을 마련한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예전의 추억을 떠올리듯 이 이상한 나라에 나는 다시 와 있다고 생각하며 기웃거렸다. 그러고 보면 참으로 이곳은 우리가 살던 곳과는 다른 곳인 것만은 분명했다. 윤회를 믿고 환생을 믿고 그렇게 인간존재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나라.

언젠가처럼 채 정화되지 못한 방탕기가 슬며시 고개를 내밀 것 같아 마음을 다잡고 숙소로 돌아왔다. 송 서화가와 뒷골목에서 술을 한 잔할까 했지만 고개를 내저었다.

지긋지긋한 신문사 생활을 떠나 자유로운 여행객들처럼 한동안은 지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해야 할 일이 뒷전이 되고 만다. 낯선 곳에서의 방탕기는 여행객이 가장 조심해야 할 덕목이다. 잘못하면 이상한 곳으로 빠져 털털이가 되어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미아가 되고 만다.



2

천추사원으로 떠나려고 하자 비가 왔다. 빗발이 거세지 않았으므로 먼저 이번 사건을 보도한 바 있는 뉴델리안 신문기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송 서화가와 함께 물어물어 신문사로 찾아 들어갔다. 신문사는 대로변이 아닌 골목길 막다른 곳에 있었다. 낡은 블록 건물이었다. 이곳이 정말 신문사일까 싶었다. 윤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라 철거덕 철거덕 하는 인쇄기 소리가 정문 앞까지 훤히 들렸다. 주위는 온통 오물투성이어서 오물들을 밟을까 요리조리 피해 신문사로 들어갔다.

우리를 맞은 사람은 육십 대의 정형적인 인도인이었는데 수염이 산타처럼 수북하게 난 사람이었다.

잠시 후에 찾던 기자가 나왔다. 서른 중반의 사내였는데 뜻밖에도 그는 한국 사람이었다. 작달막한 키에 곱슬머리였다. 눈이 동그랗고 까맸다. 코가 높고 입이 작았다. 살결이 초콜릿 빛을 띠고 있었지만 분명 그는 한국인이었다.

그도 좀 놀란 표정이었다.

-한국인입니까?

내가 먼저 물었다.

-맞습니다.

그렇게 썩 발음이 좋지 않았지만 분명 한국말이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그는 혼혈아였다.

-이주석입니다.

-오오스마(Oosma)입니다. 한국 이름은 지상오구요.

오오스마? 햇빛? 따뜻함? 그런 뜻인가? 한국 이름에 성을 붙이면서 이곳 이름에 성을 붙이지 않는다? 오오스마가 분명히 성이 아니고 보면 인도네시안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에게는 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 그의 조상들이 이주했다면 그럴 수 있다. 인도인의 후예라면 성이 없을 리 없다. 카스트가 무엇인지 패밀리 네임이 대변하기 때문이다. 성씨만 들어도 신분을 알게 되어 있는 나라가 이 나라다. 성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이 없는 하층민 불가촉천민이거나 인도네시안이 분명하다.

그래서 더 한국인에 가깝다?

그렇다면 아마 한국인 여자와 인도네시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일지 모른다. 어쨌든 그가 이곳 천민 층의 자제일 경우 여자가 한국 남자를 만나 애를 낳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 남자를 만나 한국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월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나라 여성의 위치는 원치 않는 아이(Unwanted baby) 수준이다. 남아선호 사상에 의해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다. 태어난다고 해도 제 삶을 살아 보지도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태반이다. 다행히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장래가 밝지는 않다. 남자아이들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다반사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차별은 사회로 확대되고, 나아가 결혼과 함께 대물림된다. 이곳 차별의 이중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곳이 천민 층이라면 그가 혼혈아로서 정기 교육을 받아 기자까지 된다는 것은 그의 신분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만한데 성이 없다?

머리카락이 곱슬머리이고 얼굴이 검고 키가 작달막해서인지 그렇게 귀족 냄새가 나지 않는데….

그의 가정환경이 어떤지는 몰라도 생김새도 그렇고 퍽 한국적 정서에 익숙해 있는 것 같아 어딘가 친숙해 보이고 소탈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인사가 끝나자 오오스마 기자가 송 서화가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송 서화가와 내가 그에게 찾아온 이유를 털어놓자 그는 흰 이를 드러내며 씩 웃다가 이런 말을 했다.

-관심이 많긴 많나 보군요. 하기야 그 성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으니….

-그런데 그 성물 말입니다.

-네?

-정말 석존께서 남기신 성물이 맞는가요?

-글쎄요? 다들 맞는다고 하니까. 맞댑니다. 나도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썼고요.

이 세상에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만 그는 눈 한 번 깜빡이지도 않고 당연한 듯 말했다.

-정말 궁금하군요. 그 사연이.

-그렇지요?

오오스마 기자가 오히려 동의를 구하듯 내게 되물었다.

-그런데 그 성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계속〉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원금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수방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부방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이체 희망일
□ 5일 □15일 □2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❸ 지방(紙榜)과 지의(紙衣)



▶한줄요약
지방 접기는 조상 신위를 소중히 여기는 인간 심성의 발로며 한국인의 창조성이 반영된 종이접기의 원초적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한국 불교의례에서도 지의가 관욕에서 널리 사용됐는데 명부의 옷이 해탈복으로 바뀌는 '화의'의 과정을 중요하게 의미화했다.

종이 접어 신성한 세계 구상화하다

〈具象化〉

존재를 나타내는 신위

망혼이나 초월적 존재를 대상으로 의례를 치를 때면 신위(神位)를 모시게 된다. '신적 존재(神)의 자리(位)'라는 단어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위란 모시고자 하는 존재가 의지할 곳이자 의례 대상을 밝히는 상징물이다. 이를 제단에 모시거나 활용하여 대상의 강림을 상정하는 가운데 의례를 치르는 것이다.

신위는 대상의 이름을 써서 밝히는 유형, 상징적 물체[神體]로 존재를 나타내는 유형이 있다. 이름을 밝히는 신위가 주로 신주 · 위패 · 지방처럼 상 · 제례에 등장하는 인격신이라면, 특정 물체로써 존재를 나타내는 유형은 민간신앙과 불교 · 유교 의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민간신앙의 성주단지 · 조상종이 · 귀신당세기, 불교 천도재의 지의와 넋전, 유교 상례의 혼백(魂帛)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신위의 상징물로 나무 · 종이 · 천 · 곡식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나, 가장 보편적한 것은 종이다. 명칭을 쓰기 위한 용도에서부터, 백지를 접거나 오려서 신위로 삼는 양상이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다. 백지는 밝고 정결한 길지(吉紙)의 신성성을 지녀, 신적 존재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삼기에 더 없이 적합한 소재이다. 신에게 공물(供物)로 길지를 바치는 것도 이러한 백지의 신성성을 취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종이가 지닌 물질성은 청해 모신 존재를 돌려보내거나 소망을 전할 때도 인간 보편의 심성에 매우 적합하다. 의례를 위해 조성한 종이 신위를 마지막에 태우면서, 그 연기를 신의 세계인 하늘로 보내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동제(洞祭)를 지내고 나서 집집이 발원을 적은 소원지를 써서 태우는 것 또한 이러한 의미를 담은 행위이다. 나뭇가지에 묶인 한 장의 백지도 예사롭지 않은 종교적 처치이듯이, 백지는 대표적인 의물(儀物)로 우리의 종교적 삶과 함께해왔다.

이러한 두 가지 신위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방'과 '지의'가 주목된다. 지방(紙榜)은 봉사대상의 이름을 적어 텍스트가 중심이 되는 신위라면, 지의(紙衣)는 옷으로써 존재를 상징하는 형상 중심의 신위이다. 두 신위의 공통점은 종이로 조성하되 '오리기'에서 한 단계 발전된 '접기'의 과정을 거쳐 조성한다는 점, 다른 사례에 비해 구체적인 역사기록을 지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종이를 접어 만든 신위는 오랜 세월에 걸쳐 신성한 세계를 구상화해온 인간의 상상력과 사유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순함과 간편함이 토대가 되고 있다. 이들 신위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펴보노라면, 종이로 신위를 만들어 신령한 세계와 교감해온 한국인의 종교적 삶과 문화를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접기, 감실에 모신 신위 상징

지방은 종이신주 · 약식신주라 부르듯이 신주(神主) 대신 모시는 신위로 통한다. 초기에는 신주 · 위패 · 지방의 개념이 분리되지 않은 채 통합되어 있었고 지금도 혼용되는 개념이다. 신주는 목패인 위패에서 출발했고, 약식으로 모시는 신주가 지방이며, 지방을 써서 목패에 부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을 유교적 관점에서 '종이신주'라 부르지만, 원론적으로 '종이위패'와 통하는 개념이다.



종이위패를 모시고 지의를 배치한 관욕단(봉원사)



종이로 만든 지방(민간)



종이로 만든 위패(진관사)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후기에 〈주자가례〉가 들어오면서 가묘(사당)의 설립과 신주 사용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에 접어들면 조상숭배와 효를 중시하는 유교이념에 따라 이러한 관습이 본격적으로 강화되었고, 종이 신주인 지방에 대한 기록도 건국 직후부터 살필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을 쓰기 시작한 시점 또한 유교식 조상제사가 성행한 고려 후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을 모시려면 어딘가에 부착해야 하니, 한지에 봉사대상의 명호를 써서 목패나 병풍 등에 붙여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점차 세울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접은 지방을 쓰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감실 속에 신주 · 위패를 모신 형태를 취하고 있어 놀라움을 준다. 한 장의 한지를 접어 지붕과 받침대를 만들고 양 날개로 여닫이문까지 표현하면, 신위와 감실을 통합한 훌륭한 입체적 지방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는 세우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감실에 모신 형태를 취하여 신위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 하겠다.

지붕과 날개와 받침대를 갖춘 입체적 지방 접기는 오늘날에도 사찰과 민가를 중심으로 전승되면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신위로 주목받고 있다. 종이로 만든 것이기에 유물이 남아있지 않아 그 역사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힘들지만, 조상제사부터 마을제사까지 지방이 활성화되었던 조선 중기에는 다양한 양상의 지방 접기 또한 발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신위 상징물로 종이 가장 보편적
신께 공물로 백지 신성성 취한 것
의례서 망자의 옷 상징하는 지의
불교의례 관욕서 널리 사용되기도

지방 접기는 조상의 신위를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 심성의 발로이다. 사당이 없는 서민이나, 사당이 있더라도 지손(支孫)으로 제사를 지내는 경우 조상을 섬기는 마음이 지방을 접는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평면의 종이를 목패에 부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위와 감실을 통합적으로 표현한 데서, 한국인의 창조성이 반영된 종이접기의 원초적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지의, 창조적 발상의 의례 상징물

지의는 의례에서 망자 또는 망자의 옷을 상징하여 쓰는 신위이다. 우리나라 불교의례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종이로 작게 접어 만든 지의를 사용해왔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죽음의례에서 지의를 사용하지만, 실제 옷과 같은 모양이나 크기로 만든다. '지의'라는 명칭은 동일하지만, 둘의 의미는 매우 다르다. 실제 옷에 기준을 둔 지의는 천으로 만든 옷을 대체하는 의미를 지닌다면, 접어서 만든 지의는 의례적 상징물로 구상화된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수년 전 조상의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중국학자가 발표하고 필자가 토론하는 과정에, 직접 종이로 지의를 접어 발표자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종이접기로 즐겨 만들었던 바지저고리를 본 적이 없어 신기해하며 그것을 중국으로 가져갔다.

지의는 바지저고리를 작게 접어서 만든다. 정사각형 종이의 네 방향을 접고, 뒤집어서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더 반복한 다음 접은 부분을 모두 젖혀 반을 접으면 저고리가 완성된다. 바지도 똑같이 진행하여 마지막 접은 부분을 두 곳만 젖히고, 나머지는 접은 부분을 완전히 펼쳐서 양다리를 만든다. 완성된 바지를 저고리에 끼우면 한 벌의 옷이 완성되는 것이다. 알고 나면 쉽지만, 처음 만드는 데는 대단한 창조적 발상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지의는 영가의 업을 씻어주는 관욕(灌浴)을 행할 때 주로 등장한다. 이처럼 구상화한 상징물로 지의를 만들어 쓴 것은 의례적 상상력에 기반한다. 의례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는 길을 만드는 행위이고, 일상의 방식과 다른 상징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대부분 사찰에서는 각종 천도재에서 지의를 빠짐없이 갖추고 관욕을 치른다. 종이로 만들어 쓰는 무구(巫具)가 다양하게 발달한 무속에서도 굿을 할 때 넋전 · 지전 등의 요소로 망자를 나타낼 뿐 작게 접은 지의는 사용하지 않아, 의례에서 지의를 쓰는 경우는 천도재의 관욕이 유일하다.

그 이유는 지의가 망자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옷'을 뜻하는 지물(紙物)이기 때문이다. 존재만을 상징하려면 사람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더 적합하며 구태여 바지 · 저고리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다. 관욕에서 사용하는 의식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례에서 상징하는 옷의 의미가 뚜렷이 드러난다.

한국 불교의례의 독자적 가치

'지의'의 존재를 처음 알려주는 의식집은 1661년에 지선(智禪)이 편찬한 〈오종범음집〉이다. 이 의식문에는, 관욕 때 목욕을 마치고 명부 옷이 새 옷으로 변했음을 알리는 '가지화의(加持化衣)' 편에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아놓았다. "가지화의 편을 마치면 대중이 함께 화의진언을 수차 염송하되, 지의를 모두 태울 때까지 한다." 명의가 해탈복으로 변할 때 '화의진언'을 염송하는데, 관욕단에서 지의를 모두 태울 때까지 멈추지 말고 외우라는 내용이다.

이처럼 17세기 우리나라에는 지의가 관욕에서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말인 1342년에 죽암(竹巖)이 편찬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에도 '가지화의편'이 있고 '명의(冥衣)'라는 용어가 등장하나, 주석이 없어 지의를 사용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주목할 점이 있다. 죽암의 〈중례문〉은 중국의 자기(仔夔)가 1150년에 편찬한 〈천지명양수륙의문〉을 참조해 펴낸 것인데, 중국에 없던 '가지화의편'을 〈중례문〉에서 독립된 절차로 편성해놓았다는 사실이다. 중국에서는 업을 씻고 해탈복을 갖추는 것만으로 간략하게 다룬 데 비해, 한국에서는 명부의 옷이 해탈복으로 바뀌는 '화의'의 과정을 중요하게 의미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지의는 여러 의식집에 꾸준히 등장한다. 이를테면 1713년에 간행된 편자 미상의 〈산보범음집〉에는, 관욕 때 욕실에 갖추어야 할 여러 기물에 대해 주석을 달아놓았다. 지의와 관련해서는 여섯 구를 모시면서, 각각의 지의를 봉투에 넣고 신위 명을 쓰도록 하였다.

이처럼 한국불교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관념적 · 밀교적 성격의 관욕이 발달한 셈인데, 이는 불교의례 일반에서도 다르지 않다. 일본에서는 생활불교가 정착되었지만 불교의 역할이 장례에 집중되고 의례는 발달하지 않아, 우리의 수륙재 · 영산재는 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명부의 옷이 해탈복으로 변하는 가지화의편을 만들고, 한지로 지의와 지방을 접어 상징물로 쓴 선인들의 창조성이 참으로 자랑스럽다. 4차혁명을 외치며 바쁘게 돌아가는 오늘날, 의례는 비효율적 영역으로 밀려나 사회 전반에서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데 불교의례는 점차 그 가치를 되찾아가고 있으니 불교가 전통문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영남범패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7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아 래 -

- 개강일시 : 2023년 3월 2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달전사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778)
- 수 강 일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사십구재의식 이론 및 실기
  2. 작법무(바라무·착복무)
  3. 수륙재의식(매주 월요일 참석가능)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강 사 : 원명 (불교의례전공)
- 문의전화 : 010-3867-8419
- 참 고 :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달전사'를 검색해보세요.

사)대한불교불음원
원장 원 명 합장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디지털 불교통신대학
대학장 서무선
기존의 통신대학 과정을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핸드폰, PC에서 강의를 시청할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보강하였습니다.
■ 원서교부 : 2023년 1월 부터
■ 교육과정 : 1학기 ~ 4학기(각과정 6개월/2년후 졸업)
■ 개 강 : 2023년 3월 16일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 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원서교부 : 2023년 1월 부터
■ 개 강 : 2023년 3월 2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범패 · 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상주권공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23년 3월 7일 오후 3시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43가길 6 | www.kumgangnet.com | 금강선원 사무국 02)969-2410, 969-4981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❸ 연화화생의 원리(1)



▶한줄요약
업장이 맑혀진 자리에는 연꽃이 핀다. 이는 무의식의 바탕이 청정한 에너지로 탈바꿈한 것을 말한다.

업장 맑혀진 자리엔 연꽃이 핀다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누가 기대하지 않았던 행동을 갑자기 했을 때 하는 표현이다. "철들면 죽는다"라는 말과도 같다. 그만큼 자신의 악습을 버리고 새사람이 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하지만, 사람이 진정 변했을 때는 (물론 육신은 그대로이나) 그의 마음이 죽은 것이다. 마음의 재탄생! 이를 '화생(化生)' 이라 한다.

극락왕생, 우리 중생의 공통된 염원이다. 극락왕생은 연화화생과 상통하는 말이다. '극락에 태어난다' 는 것은 곧 '연화에서 화생한다' 는 말과도 같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화(연꽃)에서 태어나다니? 그것도 태생(胎生)이 아니라 화생(化生)이라고 한다. 화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극락왕생과 연화화생의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자.

"더 이상 염부제(우리가 사는 세상)와 같이 혼탁하고 사나운 곳에서는 아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럽고 악한 이곳에는 지옥 · 아귀 · 축생이 넘치고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 세상에는 험악한 소리를 듣지 않고, 이러한 사나운 무리들과는 일체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관무량수경〉, '제5절 극락을 흠모함'

"거칠고 사나운 이 세상에는 결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위데휘 왕비의 절규이다. 〈관무량수경〉의 도입부에는 아들 아사세 태자에 의해 감금당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위데휘 왕비의 간절한 염원이 나온다. 그 염원은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처소' 인 '극락에 태어나고 싶다' 는 것이다. '극락왕생' 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참으로 유구하고도 영원한 바람이다. 극락왕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저 멀리 어디엔가 극락이란 곳이 있다는 것일까? 정말 이 속세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하면 거기에 태어나는가?



그림① 연꽃 봉우리 속에 갇혀 있는 중생의 모습(〈관경16관변상도〉의 연화화생 장면)



그림② 연꽃이 활짝 만개하여 그 위에 화생한 모습(〈관경16관변상도〉의 연화화생 장면)

사생, 네 가지 종류의 태어남

"나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조석 예물문에 빠지지 않는 문구이다. 이 문구에서 '사생자부(四生慈父)' 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만물의 자애로운 아버지' 란 뜻이다. 만물은 네 가지 종류의 태어남으로 비롯된다 해서 '사생' 이라 한다. '사생자부' 의 출처는 〈법화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여기서 석가모니 붓다는 사생자부로 정의된다.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 자애로운 아버지라는 것이다. '자비' 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대승사상의 핵심이다. 사생은 난생(卵生) · 태생(胎生) · 습생(濕生) · 화생(化生)으로,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이 네 가지 과정 중 하나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초기경전 〈맛지마니까야〉의 '사자후의 긴 경' 에는 석가모니 붓다께서 사생에 대해 직접 설하신 내용이 있는데, 요약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이 사생인가?/ 알의 껍데기를 깨고 태어나는 중생들을 난생이라 한다./ 태의 막을 찢고 태어나는 중생들을 태생이라 한다./ 부패한 생선 · 부패한 시체 · 부패한 유제품 · 소택지 · 오물 구덩이에서 태어난 중생들을 습생이라 한다./ 신들 · 지옥에 태어난 자들 · 몇몇 인간들 · 몇몇 악처에 태어난 자들을 화생이라 한다."

붓다 설법의 취지는 사생(네 가지의 태어나는 과정)과 오취(다섯 가지의 태어나는 장소)는 중생들이 여의여야 하는 대상이고, 열반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금강경〉의 설법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드러난다. '대승정종분' 첫머리에는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한다. 일체 중생의 종류인 난생 · 태생 · 습생 · 화생(사생), 물질인 것과 비물질인 것, 인식이 있는 것과 인식이 없는 것,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식이 없는 것도 아닌 것, 이 모두를 소멸함으로서 제도하여 절대 열반에 들게 하리라.(필자 번역)"라고 쓰여 있다. 태어나는 과정과 태어난 형태, 이 모두를 멸하여 '윤회를 끊는 것' 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정토3부경(〈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에는, 화생 중에서 '연화화생' 이 궁극의 목표로서 등장하게 된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하자.

중생이 바라고 바라는 염원 '극락왕생'
극락왕생과 연화화생은 같은 의미 상징
욕심 버리고 보리심 일으켜 수행한다면
부처님을 따라 왕생하고 연꽃에서 화생

극락왕생, 곧 연화화생

사생, 네 가지 형태의 탄생 중에 우리는 태생에 속한다. 어머니로 인연 지어진 여성의 태(胎), 즉 자궁에서 나온다. 그런데 아미타신앙에서 중생이 바라는 것은 태생이 아니라 화생인데, 특히 연화화생을 말한다.

경전 속의 표현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유일한 귀의처인 '나무아미타불' 에 대한 염불이 언급되고 아미타불이 곧 '극락' 이라고 한다. 극락이란, 〈관무량수경〉에 의하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곳' 또는 '지극히 평안하고 즐거운 곳' 이란 뜻이다. 더럽고 오염된 속세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극락에 태어나는 것을 극락왕생이라 한다. 그런데 정토3부경(〈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속의 극락왕생하는 대목을 보면, "연꽃에서 화생한다" 또는 "극락의 연못 속 연꽃에서 태어난다" "극락의 연못(또는 물가)으로 향한다" "연화대(연꽃대좌) 위에 올라타고 극락으로 향한다" 등의 표현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극락왕생은 연화화생과 동일한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욕심을 버리고 출가하여 사문(중)이 되고, 보리심(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켜, 오로지 한결같이 무량수불(아미타불)을 염(念)하며, 갖가지 선근공덕을 쌓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원을 세운 자〔상배자上輩者: 상근기의 무리〕는 임종 시에는 무량수불이 대중과 더불어 그 앞에 나투신다. 부처님을 따라 극락왕생하는데, 바로 연꽃 가운데 자연히 화생(化生)한다. 그는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자리에 머문다."

–〈무량수경〉, '제3절 극락왕생의 인행(因行)' 중

'마음의 정화'와 화생의 뜻

극락왕생을 약속하는 정토3부경의 요지에 따르면, '지혜와 선업 공덕을 많이 닦은 사람일수록 보다 큰 연꽃이 열리고, 또 보다 오래도록 열린 상태로 있어서, 극락을 맛볼 수 있다' 는 것이다. 상근기에서 중근기, 다시 하근기로 내려갈수록 연꽃의 크기와 열려있는 기간, 그리고 극락을 맛보는 차원과 심도가 좁아지고 또 짧아진다. 즉, 마음의 맑음의 정도에 따라 연화화생의 급수가 달라지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무량수경〉에는 3품(상배, 중배, 하배)으로, 〈관무량수경〉에는 9품으로 급수를 나누고 있다.

'화생' 이란 '마음이 바뀐 것' 을 말한다. 그냥 지엽적인 마음자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바탕이 통째로 갈아엎어지는 변화를 말한다.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기대하지 않았던 바른 행동을 갑자기 했을 때 익히 하는 말이다. "철들면 죽는다"와 같은 말이다. 그만큼 자신의 악습을 버리고 새사람이 된다는 것이 거의 있을 수 없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진정 변했을 때는, 육체는 그대로이나 그의 마음이 죽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의 악습의 마음이 죽고 청정해지면 그는 새로 태어난 것이나 진배없다. 다시 말해, 화생이란 마음바탕이 완전히 바뀌어, 겉모양은 예전 그대로 같을 수 있으나, 언행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경우가 해당된다.

이때 '마음바탕' 이라는 것은 (대승불교에서는) 업장, (심리학에서는)무의식, (유식학에서는)말라식이라고도 부른다. 물론 화생은 마음이 청정업(淸淨業)쪽으로가 아니라, 부정업(不靜業)쪽으로 전향되는 것도 해당된다. '선(善)의 화신' 도 있지만 '악(惡)의 화신' 도 있다. 화생을 통해 선처에 태어날 수도 있지만, 악처에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연꽃 봉우리에 갇혀 있는 중생

조선시대 1465년 〈관경16관변상도〉(속칭 〈극락도〉)를 보면, 하품 중생의 연못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연꽃들이 보인다. 연꽃이 봉우리인 채로 있고 그 안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그림①) 그래서 극락을 볼 수 없다. 수행과 공덕이 모자라, 대기 상태인 것이다. 반면, 상품 중생의 연못에는 연꽃이 활짝 피고 거기서 화생한 보살이 보인다.(그림②)

보통 '부처와 보살이 연화좌, 연화대좌 위에 앉아 있다' 라고 표현하지만, 실은 '연꽃에서 화생한 모습' 인 것이다. 청정업으로 마음바탕이 완전이 속속들이 맑혀지면 (관무량수경의 표현대로)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극락"이 된다. 얼마만큼 맑혔는지의 비율에 따라 극락을 체험하는 기간과 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인과의 철칙' 이다.

업장이 맑혀진 자리에는 연꽃이 핀다. 이는 무의식의 바탕이 청정한 에너지로 탈바꿈한 것을 말한다. 그 청정에너지는 빛나는 연꽃처럼 찬란하게 피어난다. 뭇 중생들의 마음바탕은 무명(無明, 청정한 깨달음의 빛이 없는 상태)이다. '무명' 의 반대말이 '연꽃' 이다. 무명을 밝힌 자리에 나타나는 찬란한 빛과 상서로운 에너지. 어머니의 자궁을 거쳐 태생의 형태로 태어난 근원자리에는 어두운 무명이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무명에서 태어난 것이다. 무명에서 태어난 존재가 자신의 근원(무명)을 대담하게 공략하는 방법! 그것을 붓다께서는 가르쳐 주셨다. 자신의 밑 둥을 스스로 쳐 버리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연화화생의 보다 본질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자.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지안사
• 주 지 : 지안(한규만)
• 주 소 :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2길 90
• 전 화 : 054-932-8443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않아 탈종함을 알립니다.

2023년 2월 15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용호사
• 주 지 : 혜광(김차룡)
• 주 소 : 경북 청도군 이서면 삼성산길 106-89
• 전 화 : 054-372-4736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않아 탈종함을 알립니다.

2023년 2월 15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 현대불교신문 검색
NAVER 현대불교신문

이안의 Media In Buddha ⑨ 영화 〈교섭〉



▶한줄요약
임순례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150억 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영화 〈교섭〉은 어떤 내면도 보여주지 않기로 작정한 듯한 작품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참상이 아닌 싸구려 재미만으로 채워졌다.

"인간의 절박한 목소리 부족해 아쉬워"

여성감독 최초로 150억 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탑스타로 꼽히는 황정민과 현빈 주연의 영화 〈교섭〉(임순례 감독)은 제작 단계부터 화제작이었다. 촬영지인 요르단 로케이션이 보여줄 이국적 풍광도 궁금했겠지만, 사람들이 영화에서 보여주리라고 기대했던 어떤 사건을 처음으로 다루는 영화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집단적으로 인질이 되고, 그 인질들은 나라가 위험하니 가지 말라는 곳에 유서까지 써놓고 갔는데. 그곳은 오랜 전란으로 위험한 곳이고, 그 전란은 복잡한 외교 상황에 종교적 갈등까지 잔뜩 꼬여 해결될 기미가 없는 지역이라니.

2007년의 일이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대사관도 없는 위험한 곳에 일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관광을 간 것도 아니라는 저 사람들이 왜 잡혀 있는 건지 도저히 현실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무슨 협상이고 애걸이고 할 여지도 없이 인질이 된 사람들 상황이 어떤지, 구할 수는 있는지 제대로 교섭을 하기도 전에 '참수' 되는 모습이 그대로 전세계에 전파를 통해 공개되면서 충격을 던진 사건이었다.

중앙아시아라고 하면 건설노동자들 파견이 많던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나 익숙하던 때였다. 아프가니스탄은 냉전시대에는 사회주의 정권과 손잡은 소련과 전쟁을 하고, 냉전 이후에는 내전이 계속되다가 이슬람 원리주의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나라였으니 분단 상황에서 우리와는 접점이 없던 나라였다.

그러던 나라가 2001년 9.11 테러 주모자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와 연합하면서 미국의 집중 포화를 받는 것을 뉴스로 본 적은 있어도, 그 몇 년 전에 이미 이라크에서 교민 고 김선일 씨가 참수되는 사건 전까지는 그 지역의 어떤 사건이든 '우리나라' '우리 국민' 과는 상관없게 여겨졌었다.

미군이 압도적인 화력을 퍼부어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몰아붙이고 정부를 새로 갈아 치운 다음에도 미군과 NATO에 맞서는 탈레반은 산악지대에서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탈레반들이 해맑게 웃으며 선교를 하러 떠난 스무 명이 넘는 한 교회 소속 신도들을 총으로 위협할 때, '설마 죽이기야 하겠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라고 하기엔 테러범과는 협상 없다는 미국과 유럽의 서슬이 대단한 시기였다. 돈으로 해결하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던 상황인데다가 국제무대에서 무역 말고 외교적으로 썩 노련하던 시기도 아니었다.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국제적 세력 재편 시기에 세계화와 지역의 관계, 국가와 민간의 역할, 사건 당사자와 대중의 시선 등 뉴스나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극영화가 된다면 '사실' 이라는 껍데기 안쪽에 감춰진 '진실' 을 보게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당연했다.



영화 〈교섭〉의 한 장면.

〈와이키키 브라더스〉나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과 같은 작품들에서 갈등과 사건이 빚어내는 극적인 드라마 뿐 아니라 그 드라마를 겪어내는 인물들 저마다의 사정과 고민, 성격을 생생하게 살려내서, 꼬이고 맺히고 풀리는 캐릭터의 관계에 현실성을 부여하며 기승전결을 이끌어내던 임순례 감독이었다. 심지어 〈리틀 포레스트〉에서는 크게 도드라지는 사건 없이도 등장인물의 내면과 성격에 대한 섬세한 묘사와 관계성 설정만으로도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서사를 만들어내는 연출을 해냈다.

그러니 수십 명의 인질들, 그들을 납치하고 참수할 정도로 악에 받힌 탈레반들과 그들에게 계속해서 도전 받는 당시의 아프가니스탄 정권 인사들, 그 사이에서 인질을 구출해야 할 책임을 진 정부와 외교관, 그 사건을 보도하는 국내외 언론들, 인질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부딪히며, 이후 세상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뀌어 갈 지를 보여주리라 기대가 큰 영화였다.

그러자면 등장인물 전부는 아니더라도 사건의 당사자들만큼은 구체적이어야 했다. 무려 150억 원을 들여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관객을 불러내려면,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액션의 소재로 소비되는 것 이상의 진정성을 담아내려니 했다.

그런데 〈교섭〉은 어떤 내면도 보여주지 않기로 작정한 듯하다. 영화가 시작되고 진행되는 내내 사람과 사람을 들출 때마다, 사건의 고비와 고비를 지날 때마다 뉴스에서는 미처 볼 수 없었던 '사람의 절박한 목소리' 가 듣게 되리라는 기대가 속절없어진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왜 전쟁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왜 미국의 마천루에 비행기를 들이 박았고, 왜 민간인을 납치해서 목을 내려치는가? 그런 잔혹한 일을 숨어서 벌이는 것이 아니라 부릅뜨고 보라고 카메라 앞에서 총구를 겨누고 윽박지르며 저지르는가? 그 사건 이후, 인질들과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어떠한가?

임순례 감독의 150억원 규모 블록버스터
어떤 내면도 보여주지 않아 불편한 영화
간다라 문명 정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기독교 同根 이슬람, 불교문화유산 파괴
아프칸 참상은 없고 흥미위주로만 전개

〈교섭〉을 보는 내내 저 가운데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저 예전에 인질을 구하는데 실패한 국정원 요원과 인질 피납 사건 때문에 현지에 파견된 외교부 직원이 교섭 주도권을 두고 다투다가 서로의 목표는 인질이 어떤 사람들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구하겠다는 사명감은 같았더라는 확인을 하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최대의 갈등이 되어 버렸다.

언론은 인질이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선교를 하러갔다는 보도를 하면 안됐는데 했으니 빌런이 되고, 아프가니스탄은 그저 액션 배경일 뿐이고, 탈레반을 그냥 악역일 뿐이라 교섭을 마친 후에 등장인물들은 어떤 성찰도, 반성도, 성장도 없다. 공허하고 텅 빈 서사와 인물들을 묶어 주는 허구적 코믹 캐릭터인 전직 전도사로 현지 사기꾼 통역 '카심' (강기영)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도드라진다. 영화를 통해 바뀐 것은 돈으로 인질 석방 협상에 성공한 국정원 요원의 자신감 회복, 다투던 외교부 직원과 좋아진 관계뿐이다. 인질들은? 아프가니스탄은?

우리 주위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곳을 가본 사람은 많지 않아도 그곳을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게 되었다. 많이 들어본 그곳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 지는 잘 몰라도,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치열한 전쟁터로 뉴스에 비춰진 곳이라는 것쯤은 많이들 안다.

북쪽으로는 냉전시대 소비에트 연장 지역인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 닿아 있고, 북동쪽으로는 아시아 최대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과 이웃해 있고, 동쪽과 남쪽에는 파키스탄으로 이어져 있고, 서쪽은 이란인 곳. '~의 땅' 이라는 뜻인 '스탄' 으로 알려진 지역답게 어느 한 방향 바다 쪽으로 트여있는 곳 없이 온통 땅으로 동양과 서양의 이 나라 저 나라로 두루 이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 나라와 맞닿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길목에 있다는 것이고, 동양과 서양을 오가려면 아주 옛날부터 그 길을 지나야 했다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 사람과 물자가 오가면서 주변 세력의 흥망성쇠에 따라 그 길을 차지하려는 싸움에 자주 말려들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기 쉬운 곳이다.

그런데 다툼이 없다면? 바로 이런 길목은 다양한 문화가 만나 일찍부터 문명이 활짝 피어날 수 있는 교류의 터전에 딱 맞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중국 당나라 때 승려인 현장이 서역으로 가서 법경을 구하려고 나섰다가 요괴로 날뛰던 손오공과 사오정, 저팔계를 불제자로 받아들이는 〈서유기〉의 원전인 〈대당서역기〉의 스펙터클 어드벤처 여정에 있는 바로 그 '서역' 어드메쯤, 신라 시대 혜초 스님이 천축국, 토화라국, 파사국을 두루 돌아보며 불법을 구한 〈왕오천축국전〉에서 거쳐간 서역 여러 나라 가운데 '토화라국' 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련과도 전쟁을 벌이고, 미국이라도 전쟁을 벌이고, 탈레반이라는 원리주의 이슬람교가 길고 긴 내전을 벌이던 아프가니스탄 지역은 한때 극동인 신라에서도, 중화라고 뻐기던 중국에서도 불법의 지혜를 구하러 굳이굳이 찾아가야할 만큼 불교가 번성했던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그냥저냥 불교적 문화가 스쳐 지나간 곳이 아니라 대단한 불교 지역이었다는 증표로 남아있던 것이 바미안 대불이었다.

'대불이다' 라고 하지 못하고 '대불이었다' 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까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마애석불인 바미안 대불이 지금은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기원전 시대에 그리스와 인도를 잇는 중앙아시아에서 동서양 문명이 어우러져 꽃피워낸 간다라 문명의 정점이라고도 할 만한 바미안 석굴사원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다.

힌두쿠시 산맥 절벽에 2만 개가 넘는 석굴사원과 가장 큰 불상은 높이가 53m나 되는 장엄한 불사로 인류가 서로 평화롭게 교류하던 시절의 역사적 증거였던 바미안 대불이 사라진 것은 오랜 세월 비바람 때문인 것도 아니고, 지진이나 화재 같은 재해 때문도 아니었다. 사람이 벌인 인재 때문이었다.

탈레반이 대불을 폭파하겠다고 했을 때, '설마 진짜 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로켓포가 대불을 산산이 부수고 무너뜨리는 장면을 생중계로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그런 곳에 선교를 하겠다고 간 개신교도들은 사실 이슬람교와 같은 신을 섬긴다.

유대교, 가톨릭, 이슬람, 개신교의 경전은 뿌리가 같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인 신약에서 갈릴 뿐이지. 기독교의 아브라함이 이슬람교의 이브라힘이고, 기독교의 모세가 이슬람교의 무사는 같은 인물이다. 그런데도 지독하게 수천 년을 싸우는 곳에 선교를 하러 가서 죽었다. 왜?

같은 지역을 배경으로 〈칸다하르〉라는 처절한 영화를 만든 모흐센 마흐말바프 감독은 바미안 대불이 파괴되고서야 전세계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보인 관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석불은 파괴된 것이 아니다. 부끄러워서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라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미군이 철수하고 다시 탈레반 정권 손에 넘어갔다. 여성들은 공개석상에서 사라졌고, 교육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교섭〉을 보며 다시금 부끄러웠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그곳에서 벌어지는 참상에 대해 150억 원을 투자하고 재미 말고 알게 된 게 도대체 무엇일까? 바미안 대불이 모래로 흩어지도록 한 것이 바로 이 표면만의 관심 때문일 것이다. 모래로 흩어진 대불 조각을 모아 복원하는 것보다 더 큰 불사는 다시 길이 트이고 다양한 문화가 그 땅에서 다시 어울리도록 하는 관심부터 시작될 것이다.

〈영화평론가〉





“뒤바뀐 것을 뒤바뀐 줄 알지 못해”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⑥ 참마음

〈원문〉 아난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절을 하고 꿇어앉아 합장한 채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보고 듣는 것이 반드시 생기거나 소멸하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세존께서 저희들에게 참된 성품을 잃어버리고 전도되게 일을 행한다 하시나이까? 원컨대 자비하신 마음으로 저희들의 진로의 때를 씻어주소서.”

여래께서 곧 금색의 팔을 세우시고 손을 아래로 내리시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지금 나의 모다라 손을 보아라. 바로인가, 거꾸로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를 거꾸로라 하거니와 저는 바로인지 거꾸로인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라 한다면 어떤 것을 바로라 하겠느냐?”

“여래께서 팔을 세우시고 도라면 같은 손을 위로 허공을 가리키게 하면 바로라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팔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이 뒤바뀐 것은 머리(위)와 꼬리(아래)가 바뀌었을 뿐이거늘, 세상 사람들이 한 번 잘못 보고 두 번 잘못 보느니라. 곧 알라. 네 몸과 여래의 청정 법신을 비교하여 말하면 여래의 몸은 정변지(正徧知)라 하고 너희들 몸은 성전도(性顚倒)라 하느니라. 네가 잘 살펴보라. 네 몸과 부처의 몸에서 전도라 하는 것은 어디를 두고 말하느냐?”

아난과 대중이 멍하니 전도된 곳을 알지 못했다. 부처님이 자비하신 마음으로 아난과 대중을 애민히 여겨 해조음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내가 항상 말하기를 색(色)과 마음과 온갖 반연(攀緣)과 마음이 부리는 것과 반연 맺어지는 법들이 오직 마음으로 나타난 것이라 하지 않더냐? 너희의 몸과 마음이 모두 묘명진정(妙明眞精)한 묘심(妙心)으로 나타난 것이거늘 어찌하여 본래 묘하고 원묘한(圓妙)한 밝은 마음과 보명(寶明)한 묘성(妙性)을 잃어버리고 깨달음 속의 미혹한 것을 잘못 아느냐?”

〈강해〉 앞서 부처님은 바사닉왕에게 몸은 늙어가 나중에 죽어 없어지는 것이지만 강물을 보는 견(見)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다. 아난이 듣고 그렇다면 왜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참된 성품을 잃어버린 전도된 상태라 하셨느냐고 여쭈어 본다. 팔을 들어 바로인가 거꾸로인가 물어본 부처님은 여래의 법신은 정변지인데 중생의 몸은 성전도라 하여 깨달음 자체의 성품을 오인(誤認)하고 있다고 말한다. 결국 오(悟)의 미(迷)를 오인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깨달음 자체를 알지 못하고 미혹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참마음(眞心)으로 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번뇌가 일어나는 마음이 참마음인 줄 알고 있다는 말이다.

‘색(色)과 마음 그리고 온갖 연(緣)과 마음이 부린 바(心所使)’가 오직 마음으로 나타난다고 한 것은 유심론의 대의(大意)를 천명한 말로 〈화엄경〉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 같은 말이다. 이런 내용을 두고 〈능엄경〉을 ‘소화엄경’이라고 불러왔다.

마음을 심왕(心王) 심소(心所)로 나누어 설명하는 사례가 있다. 심왕은 인식의 주체로 보고 듣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육식(六識)에서 칠식(七識), 팔식(八識)까지의 식 전부가 심왕이다. 심소(心所)는 심왕에 종속된 것으로, 심수(心數), 심소사(心所使)라고도 하는데 심왕이 사물을 인식할 때 따라 일어나는 좋다 싫다 하는 등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심왕의 지배를 받는다. 가령 눈으로 물체를 볼 때 빨갛다, 노랗다, 등의 색깔을 분별하는 것은 심소의 작용이다. 또 소연(所緣)이란 말은 보고 듣는 관계가 맺어질 때 대경(對境)으로 나타나는 유형·무형의 전체를 일컫는 말이다. 육근(六根)이 상대하는 육진(六塵)의 전부가 소연(所緣)이 되는 것이다. ‘삼계유심(三界唯心), 만법유식(萬法唯識)’이라 하는데 유식설(唯識說)에서는 마음이 인식하므로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비상비비상처해탈, 수능엄삼매 증득 과정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⑥ 자비관

생멸수행의 비상비비상처해탈은 각각의 선정의 단계에서 병행되는 해탈도이기 때문에 자비관의 단계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보살도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보살도 과정의 비상비비상처해탈은 수능엄삼매를 증득하는 과정이다. 부처님께서는 수능엄삼매를 통해 천백억 화신으로 나투신다. 또한 천백억 화신불로서 여래장계 일법계에 정토불사를 행하신다. 진여수행의 비상비비상처해탈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양신 배양의 진로이다. 둘째는 32진로 수행법이다.

△양신 배양이란 유(有)의 몸을 이룬 상태에서 원신분리를 통해 화신을 만드는 과정이다. 부처님께서는 수능엄삼매경을 통해 양신 배양의 목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셨다. 아라한이라 할지라도 양신 배양을 이룬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셨고, 보살도 양신 배양을 이루지 못하면 진여수행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양신을 배양한 후에 천백억 화신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수행절차가 보살도의 비상비비상처해탈이다. 생멸수행의 과정에서는 아나함과부터 양신 배양을 이룰 수 있는 근기가 갖추어진다. 본제관의 25원통 수행을 일왕래(一往來)해본 사람은 양신 배양을 할 수 있는 근기가 갖추어진 것이다.

아나함과에서 양신 배양을 이룬 사람은 진여심과 생멸심이 분리되는 과정에서도 생멸신과 진여신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원래의 몸을 진여신으로 삼고 배양된 양신을 생멸신으로 삼아서 심신(心身)이 합일된 상태로 그 이후의 수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생멸신과 진여신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살도에 들어가면 난승지의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

양신이 배양되지 않은 상태로 보살도에 들어가면 생멸신과 진여신이 서로 분리된다. 이 과정에서 생멸신은 죽음을 맞이하고 영혼으로 돌아간다. 간혹 진여신과 생멸신이 분리되면서도 생멸신이 죽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살이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이구지를 성취하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아라한이나 벽지불의 경우는 생멸신과 진여신이 분리되지 않는다. 때문에 양신 배양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아라한들은 멸진정에 들어서 목적한 만큼의 수명을 유지하게 된다. 부처님께서 아라한들에게 대승도를 설하신 것은 진여출가를 위해서다. 진여출가를 하려면 먼저 생멸신과 진여신을 분리시켜야 한다. 이 과정을 열반에 들었다 말한다.

△32진로 수행이란 육체의 몸에 세워진 열두 개의 기점을 삼각형으로 연결해서 운용하는 방법이다. 32개의 삼각형을 만들어서 운용하기 때문에 32진로 수행이라 한다. 32진로 수행을 한 사람은 몸의 구조에 변화가 생긴다. 32상이 갖춰지는 것이 그것이다.

보살이 32진로 수행을 하게 되면 진여신에 32상이 갖추어진다. 보살의 위신력과 중생 제도의 역량이 32진로 수행과 양신 배양을 통해 이루어진다. 진여수행에서 이루어지는 자비관은 열반상의 제도로부터 시작된다. 열반상(涅槃相)이란 초지보살이 환희지에 머물러서 그 이후의 수행을 저버린 것을 말한다. 밝은성품의 기쁨에 치우쳐서 진여출가의 목적을 망각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상을 일러서 50번째 마장이라 하셨다. 열반상을 벗어나면 열두 번째 자비관이 성취된 것이다.

환희지에서 벗어난 초지보살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경계가 그리움이다. 어디서부터 전해져 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막연하게 일어나는 그리움 때문에 밝은 성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해탈지견으로 그리움을 비춰보면 그 원인이 스스로가 분리시킨 생멸심이란 것을 알게 된다. 종반야의 과정에서 진여심과 분리된 생멸심은 육체의 상태나 영혼으로 존재한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스님의 〈능가경〉 강설

⑥ 참모습의 본질

돈오돈수 · 돈오점수 논의 무의미

봄이 되면 나무들이 생기를 띠고 뿌리를 통해 가지마다 물을 전달하느라 바쁘다. 그때 가만히 나무 몸통을 보고 있으면 물이 올라가는 순환 때문에 짙은 색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물기운이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가지마다 솟아오른 몽우리들이 통통하게 물이 오르면서 피어날 준비를 한다. 만약 한 나뭇가지가 죽어버리면 생생하던 몽우리는 더 이상 부풀어 오르지 못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말라버린다.

두 갈래의 가지는 몽우리 안에 분명히 피어야 하는 잎사귀가 있었겠지만, 하나는 피고, 하나는 피지 못한 것이다. 몽우리가 피어난 것은 분명 뿌리로부터 물이 공급되고 그 가지가 물을 나를 수 있는 생기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물을 몽우리까지 공급해야 하는 줄기가 생기를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어느 쪽은 사실이고, 어느 쪽은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피어난 것과 피지 못한 것으로 몽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진식(眞識) 자상(自相, 여래장식의 진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자각성취(自覺聖趣)의 입장이라는 것은 언제나 항상 같다. 그것이 피어나고 피어나지 않는 차이에 상관없이, 본래 머금고 있는 참모습은 언제나 변함없음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 돈오(頓悟)와 점수(漸修)가 가지고 있는 여래장은 똑같지만, 그것이 피어나게 하는 것은 인연의 법칙일 뿐, 어느 쪽을 옳고 그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남악 회양 선사는 마조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심지법문(心地法門)을 듣는 것은 종자를 땅에 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을 설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그대의 인연이 맞았으므로 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가르침으로 볼 때, 돈오의 법은 누구에게도 드러날 수는 없지만, 혹 드러났다 하더라도 드러난 그 잎사귀가 그 본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잎사귀가 아니라고 하여 몽우리에서 나오지 않았다고는 하지 못한다. 이처럼 ‘돈오의 법입니까? 점수의 법입니까?’라는 질문은 결과론적인 입장에서만 보려고 하는 치우친 관념일 뿐이다.

“이들은 점차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갑자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네.”

관점과 관념의 논리라는 것이 현식(現識)을 파악하는 데 인간에게 주어진 도구인 것은 맞지만, 관점과 관념은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하여 의지하게 되면, 그 변화하는 순간에 수많은 번민이 나타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없는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실체 없는 허상에 휩싸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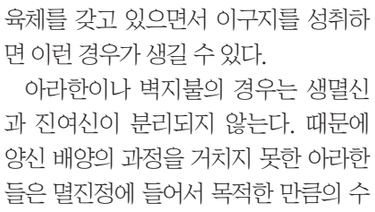
참모습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은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 어느 하나의 논리가 맞다거나 틀리다고 하는 것은 참모습의 본질을 무시하고 어느 특정한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인식해 보려는 잘못된 관념이다. 설사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법계일신(法界一身)에서 출발하여 사물의 본질을 나타낸다면, 분명 그것은 돈오돈수이다. 그러나 돈오점수라 하여 법계일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 돈오돈수와 돈오점수는 나[我]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그 지향점은 완전히 달라진다. 나에 대한 정의가 같다면 두 가지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겠지만, 나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면 두 가지는 다른 방향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돈오돈수가 옳은 것인가, 돈오점수가 옳은 것인가는 그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나’와 법계일신에서의 ‘나’는 같은가 다른가를 구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나’라는 명칭은 같은 글자이지만, 그것이 지칭하는 곳은 완전히 다른 곳이다. 이 둘의 의미와 지칭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어떤 개념으로 어떤 사물을 보고 판단하여 그것이 최고의 분석이 되고 다른 이에게 의미가 잘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을 전달한 것이 되지 못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장엄하고 은은한 염불소리가

법당과 사찰을 감돌고 휘돌아 불자들의 심금을 울려야 할 깊고 심오한 염불소리! 가 지방 업자들의 단순 시공으로 이장 마이크시설 수준이 되어 염불 스트레스와 성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 ..... 서울 토박이 낙원동 출신 베테랑 음향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단 한번의 최고 시설로 나머 염불인생이 편하기 그지 없어 보물이 따로 없습니다.

2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했지만 고장없음, 만일 고장이 난다면 입소문 때문에 장사를 고만 두어야 함, 시설비 190만원 ~ 수 천만원까지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귀 법당소리와 비교시 장난감 수준 차이! 소리비교비용은 커피한잔!)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4개, 본품들은 시중에 없음 (특징 : 중국제 아닌 국산)

원톱 시스템 다목적 방생용
한번에 최고의 성능을 구입하시면 절약
속에 후회가 없다는 뜻!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시중에 없음
염불시 마이크와 2m
멀리서도 소리 월등
스탠드 분리형

시중에 없음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가격 65만원
▣ 한국사찰 각종 “재” 전문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MASS MICROPHONES
Concert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공희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23호 | 17 | 전면광고

원하건대 부디 법우(法雨)를 내리시어
법의 싹이 널리 돋아나 자라나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읽기 - 《마하마야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부지 : 2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밑 주차가능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 ●부지 : 450평
- 건평 : 약 100평
- 산 밑 주차가능 ●매가 : 30억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 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 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청주시청 앞 9층 건물, 7층 100평
- 보증금 4천만원 월 80만원
  최고의 시설, 몸만 들어오시면 됨
- 대웅전 40평, 종무실 20평, 산신각 4평
- 주방 10평, 스님방 25평, 전체샹광석 찜질방
  대형 냄녀화장실 비구니 스님께만 드립니다.

010-5883-2255
010-8569-6643

암자 (급) 안내

- 위 치 : 경북 경주시 감포읍
  (문무대왕릉 5분 거리)
- 공기 좋고, 바다뷰 일품
- 대 지 : 407평, 건평 1.2층 70평
- 주 택 : 1층 방 3개, 화장실 2개,
  2층 큰방, 욕실, 법당
- 100m 지하수 완비
- 가 액 : 6억원(동해 용왕기도터)

010-3000-5359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 2억 5천만원

시세 이하로 계산합니다.(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 50평(방, 친견실)
- 시설비 3천 2백만원(2개월 전 완전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3582-8975
010-5511-7000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쌍정길
  99-8 불국정사
- 대지 : 206평, 건물 : 전통사찰형태
  2층 콘크리트 건물,
  1층 : 방4, 주방, 욕실(40평)
  2층 : 법당(30평), 산신각(5평)
  정원 : 5층석탑, 스님 건강상 급매
- 가액 : 3억원

010-2611-652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장림동
- 가액 : 3억 3천만원
  (부동산 전화 사절)

010-5530-5866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 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 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허가 득
- 가액 12억

010-5421-1536

사 찰 안 내

경기도 가평군 중미산 자락에 위치한 절입니다.
남향으로 전망 좋고, 법당도 넓고 깨끗하여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 1층 82.53㎡ (방 3개, 부엌, 거실),
  2층 82.53㎡ (법당, 방, 베란다)
- 보증금 3천 월세 80만원, 권리금 없이 모든
  시설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직접 보실 수 있음)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160

010-2551-3752

사찰 (급) 안내

- 대지 200평, 임대부지 약 300평,
  법당 10평, 산신각 2평
  용왕각 6평, 요사채 20평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일억 오천(조정 가능)
  와서 보시고 결정하세요.

010-3757-3699

사 찰 (급) 안 내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종교용지 1996년 터 잡아 현재까지 운영
- 대지 1천평, 건평 70평 내 법당, 공양간, 종무실, 접견실, 요사채
  삼존불, 금동불상, 동진보살, 아미타불 석물, 상석, 상수도, 심야보일러
- 주지스님 건강 관계로 좋은 인연을 기다립니다.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랍니다.
- 가액 9억5천만원에 양도함(절충가능)
- 모든 불상 등 기물(3억원)은 무보시로 시주, 몸만 오시면 사찰법회 가능합니다.

010-3545-5060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대지 143평
- 가액 : 1억 2천(조정 가능)
- 당일 법회 가능, 현재 운영중입니다.

노스님 몸이 약하신 관계로 양도
법사님, 보살님도 인연 맺습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 8백평
- 건물: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10억

010-4547-0023

인법당 기도처 안내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 생활 불편함 없는 시설 완비
- 대지 450평, 하우스 집

화왕산 줄기 이씨 문중땅 임대함
- 권리금 700만 원
- 1년 문중에 20만 원(절충가)

산세 수려하고 맑은 계곡물 흐름

010-6586-763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유계리
- 계곡물 흐르는 청정지역
  대지 : 388평
- 대웅전 요사채 1동
  산신각 용왕당 1동
- 가액 :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4123-7594

생활안내 · 불자정보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 산뜻해 졌습니다.
글자 크기가 커졌습니다.

POINT 01 광고 가독성과 정보전달을 위하여 크기를 **1.5**배 키웠습니다.

POINT 02 불자정보
기본 5cm ➡ **6**cm로 커졌습니다.

POINT 03 생활안내
기본 4cm ➡ **6**cm로 커졌습니다.

문의 |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 218쪽 |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 292쪽 |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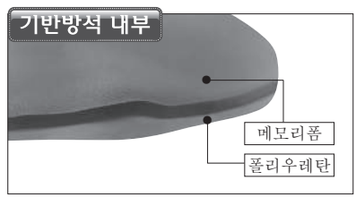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23호 | 18 | 전면광고

깊은 바다는 파도가 없으며 늘 고요하고 잔잔하다.
마음에 평정을 이룬 사람도 마찬가지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계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영산범음집 3판 증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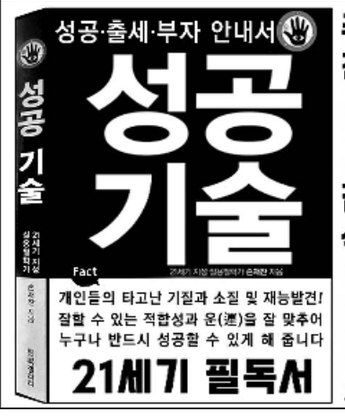
A4 320페이지 특수용지 2중 배접

1. 의식편-천도의식, 종사영반, 상용영반 관음시식, 구병시식
1. 해설편-의식문 자체가 한자로 되어있는바 전문(全門) 한글로 해석
2. 악보편-옹호게, 거불성, 산화락 등 바라춤, 각종진언 사물장단 수록

※※영산범음집 한 권으로 상용 재의식을 집전할 수 있으며 시종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게 되어있음 책의 마지막엔 지금까지 보시하신 스님과 사찰명단 수록

정가 50,000원 유튜브 '영산범음집'검색 전 과정 동영상 제공

010-3842-1040 범패연구소



추천-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사찰에서 꼭 필요한 상담과 교육을 무료로 방문 전수 코져 하오니, 차후에 많은 신도분께서 귀 사찰을 믿고 찾으시라 믿습니다.

신도분 본인과 가족분께는 무료치유와 교육을 해 드리며, 일반인께는 실비로 통신으로 교육하여 드립니다.

점술, 철학, 한의학, 심리학을 바탕으로 성격분석과 신경성 화병, 질병치유 심리학, 명상, 최면술, 부부문제 전문상담, 의처증과 의부증의 분석과 치유, 악몽, 빙의, 우울증으로 인한 실어증 실명

문자 남김 010-4078-7810 혜천 (세계유일)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부전스님 공양주 모십니다.

010-2078-9595

강원도와 충북 제천 사이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에 위치한 사찰(절)에서
염불기도로 업장은 소멸하고 몸과 마음은 힐링하며 후회 없는
회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부처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나이, 학력, 성별 상관없이 출가를 하실분 모십니다.

연락처 010-8945-1424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영험약수"로 힐링(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 식약청 46가지 검증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33-336-2309 / 010-4804-2309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땅 양도 안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 · 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효민의
서도로 새기는 경구

③ 석가모니불



내 삶의 등대 '석가모니불'

필자는 몇 년 전 교회에 열심을 다하는 안수집사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와의 인연을 끊고 난 후 어느 날 묘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어떤 계단에 걸터앉아 고개를 숙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머리가 곱슬곱슬한 어떤 사람과 동자승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곱슬머리의 그 사람 뒤로는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의 광채가 보였는데,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에게 다가와 나의 눈물을 닦아 주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어느 순간 사라졌고 필자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평범한 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름쯤 후, 아침에 잠을 깨고 일어나려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석가모니불." 나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하루 종일 같은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처럼, 그만하고 싶어도 나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석가모니불"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아침에 눈만 뜨면 입에서 "석가모니불"이 흘러나왔습니다.

불교의 '불' 자도 모르고 절에도 한 번 가 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참으로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전을 찾아 '석가모니불' 의 의미를 알게 된 나는 처음으로 가까운 절을 찾아 참배도 해 보고 기도도 해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나의 일상은 많이 변했고, 언제부턴가 그 변화된 일상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때 그 설명할 수 없는 일은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나를 찾아왔던 그 '석가모니불' 은 저의 삶에서 늘 등대처럼 서있습니다.

〈서예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㉖ 홍서연의 '수미산'

불교는 현재적, 현실적 종교

수미산/ 홍서연

십이월,
마른 나뭇가지 위에 어미 새가 집을 짓는다
앙상한 바람 사이로
고집멸도의 지푸라기를 얹는다
하루 사흘 그리고 며칠,
바닥에서 퍼드덕거리는 아기 개똥지빠귀
모닥불이 훨훨 타고 있었다
휘이휘이, 여린 휘파람 소리
나지막이 저 먼 치서 들리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겨울 잎새 하나, 와불 와불 굴러다닌다

– 홍서연 시, 〈수미산〉, 한국불교신문, 2022

이 시는, 거꾸로 (마지막 행부터) 읽자. "겨울 잎새 하나, 와불 와불 굴러다닌다". "와불 와불", 절창 중에 절창이다. '와불 와불' 은 '臥佛 臥佛(와불 와불)' 로도 읽히고, '와글 와글' 로도 읽힌다. '臥佛(와불)' 은 '누워 있는 부처' 를 말한다. '와글 와글' 은 사람이나 벌레 등이 한곳에 복잡하게 모여서 자꾸 떠들거나 움직이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런데 그것을 '성(聖)' - ' 臥佛 臥佛(와불 와불)' -과 '속(俗)' - '와글 와글' -으로 기막히게 중의(重義)해놓았다. [문학용어에 중의법(重義法)이라는 게 있다. 한 단어에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겹들여 표현함으로써 언어의 단조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는 수사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청산리 벽계수" 에서 '벽계수' 가 그것이다.] '와불 와불' → '臥佛 臥佛(와불 와불)' → '와글 와글' . 기막힌 은유이자 중의이자 상상이다. 발상과 표현도 퍽 참신하다.

절창으로 치면, 이 시의 4행도 빼놓을 수 없다. "(어미새가)/ 앙상한 바람 사이로/ 고집멸도의 지푸라기를 얹는다"니, 집을 짓는 어미 새가 어떻게 '고집멸도(苦集滅道)' 를 알고, 인간의 삶의 여정인 '지푸라기' 에 인간의 삶의 여정인 '고집멸도' 가 있는 것을 알고, 그 고집멸도로 자신(어미 새-어미 개똥지빠귀)의 삶의 고집멸도인 '집' 을 짓는단 말인가. 2022년 새해 벽두 필자는 이 시를 읽고 "고집멸도의 지푸라기" 한 움큼을 움켜쥐고 한동안 필자의 삶을 삼켰다. 이제 밝힌다. 홍서연 시인의 '수미산' 은 사실 2022 한국불교신문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작이다. 2022년 1월 1일 발표된 각 신문들의 당선작을 찾아 읽다가 홍서연 시인의 이 시를 발견하고 필자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필자의 관념 속에만 솟아있던 '수미산' 이 정말로 실체를 드러내고 구체적인 형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수미산(須彌山)은 불교의 우주관에서 나온 산으로, 세계의 중심에 있으며, 인간에게 정복된 적이 없다는 상상의 성산(聖山)을 가리킨다. 힌두교에서는 시바신의 거주지로 받아들여진다.]

무소유의 가난한 어미 새(어미 개똥지빠귀)가 자식(아기 개똥지빠귀)들을 위해 자식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성제(四聖諦, 고집멸도)의 지푸라기로 살집을 마련하고 있는 이 풍경은 풍경 자체만으로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힘겨운 삶이 떠오르며, 우리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그러다가 생명이 다한 순간 갠지스 강변에서 모닥불에 훨훨 타 한 줌의 재가 되고 새의 밥[조장(鳥葬. 송장을 들에 내다 놓아 새가 파먹게 하는 장사법)]이 되게 한다. 죽어서까지 '어미 새' (우리들의 부모)는 무소유다. 그래서 그럴까.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이 재미있다.

"긴 논의 끝에 홍서연의 〈수미산〉과 〈중력 너머〉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중략〉 (또 다른 당선작인) '중력 너머' 에는 '환한 저녁' 이 기다리고 있다. 이 시의 언어의 탄력은 중력의 탄력이다. 〈중력 너머〉는 탄력의 시이다. 이 시인의 탄력에 믿음이 간다. 당선자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홍서연 시인은 '수미산' 과 함께 '중력 너머' 라는 시 2편이 함께 당선되었다. '수미산' 이 당선작으로서는 좀 짧은 느낌도 있어서겠지만, 함께 당선된 '중력 너머' 라는 시가 당선작인 '수미산' 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함께 연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물의 뿌리가 아래로 자라는 것처럼/ 폭포가 너의 우듬지를 때리는 것처럼// 생활 밖으로 뻗어가는 중력은/ 어둠의 적막으로 향하는 것만은 아니지// 세수를 하고 집을 나설 때마다/ 벽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지//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할 때마다/ 벽은 조금씩 조금씩 부풀어 오르지// 멀어지는 사랑만큼 벽 따라 골은 파이고/ 몸을 밀어 넣을수록 자라나는 욕망은 휘어지고/ 깊고 깊은 밥을 배부르게 먹고/ 달고 맛있는 잠을 늘어지게 잡니다// 속눈썹을 붙이고 아이라인을 짙게 그리고 속옷을 고를 때마다/ 별똥별이 어릴 적 뒷산으로 몸을 누인다// 보라매가 지상의 먹이를 향하여 수직으로 하강하듯이/ 떨어지는 소행성의 조각들, 타닥타닥 빛으로 떨어지고// 접혔다 펴지는 굽은 가로등, 그리하여 환한 저녁이여/ 평범한 일상이 외출이 되는 중력 너머// 흡사 다족류 우주인의 발처럼/ 한 발 두 발 밀어내면 낼수록 가까워지는,"

"벽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벽이 조금씩 조금씩 부풀어 오르"고, "멀어지는 사랑만큼 벽 따라 골은 파이고", "몸을 밀어 넣을수록 자라나는 욕망은 휘어지고", "깊고 깊은 밥을 배부르게 먹고", "달고 맛있는 잠을 늘어지게 자"고, "속눈썹을 붙이고 아리라인을 짙게 그리고 속옷을 고를 때마다", 보라매가 지상의 먹이를 향하여 수직으로 하강하듯이", "떨어지는 소행성의 조각들, 타닥타닥 빛으로 떨어지고"는 앞서 '수미산' 에서 말한 '고집멸도' 사성제를 은유와 환유로 (환장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접혔다 펴지는 굽은 가로등, 그리하여 환한 저녁이여"라며, '중력 너머' 로 외출(무소유)할 때, "환한 저녁"[천상의 세계, 깨달음, 성불(成佛)]이 기다리고 있다, "흡사 다족류 우주인의 발처럼/ 한 발 두 발 (욕망을) 밀어내면 낼수록 (무소유로) 가까워지는,".

깊고 심오한 불교의 진리를 이토록 쉽고 즐겁게, 시적으로 풀어주고 형상화한 홍 시인에게 불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필자도 이런 ('수미산' 같은) 시를 좀 써봐야겠다는 욕심도 갖는다. 홍서연 시인이 이 글을 읽는다면, 홍 시인에게 꼭 당부하고 싶다. 그가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이 같은 (아름다운) 불교시를, 즐거운 불교시를, 재미있는 불교시를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불교는 상상의 종교가 아니라 현실의 종교, 현재적 종교, 우주를 안고 있는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말고.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바이러스 급성뇌염이 앗아간 쥬안이의 웃음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퐁·스엉씨 부부의 1살 딸 쥬안
급성뇌염 이어 간질까지…치료비 걱정에 시름만 깊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김병전 대표의 지금, 명상의 시간 ⑭ 수용전념치료



▶한줄요약
분노를 계속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그 다른 사람이 죽길 바라는 것과 같다

마음챙김 습관화로 감정 '갈고리'서 벗어나자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개인적이든 업무적이든 그 관계속에 생각, 감정은 다양한 형태로 생성된다. 시간이 지속될 수록 관계는 더 많아지고, 생각과 감정 정보들 역시 많이 생성되게 된다. 정보가 축적된 이후에는 판단이 생기게 된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보기만 해도 즐겁고 행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멀리서 실루엣만 보이더라도 피하고 싶거나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누구나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다. 필자 역시 명상을 통해 마음의 움직임을 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내면을 바라보는 힘이 조금씩 커지면서 관점이 달라졌다. 마음이라는 공장에서는 어떤 원재료들이 투입되어서 생각과 감정들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만들어진 생각과 감정들이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알게되면서부터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것이다.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생각과 감정의 갈고리에서 벗어나 현재 있는 그대로 고정관념 없이 비 판단적 태도를 갖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럴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의 갈고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특히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 자극이 들어올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에 대해서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계속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그 다른 사람이 죽길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분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등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지속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스스로 독을 주입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면서 후회, 자책, 원망 등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독'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한 생각 실습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자신이 정말 미워하거나 보기싫은 사람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보라. 그 사람을 처음 만난 시점이 언제인지도 기억해보라.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기 전까지 잘 지내왔던 시절들도 생각해보라. 언제부터 좋지 않은 관계가 만들어졌는지 그 사건이나 시점도 떠올려본다. 그리고 그 시점 이후 지금까지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가 지속시킨 마음 공장의 원재료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라. 실제로는 간단했던 이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면서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자신의 내면에 있다. 상대방이 앞에 없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더 고착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수용전념치료(ACT, Acceptance Commitment Therapy)에서는 이것을 '갈고리'로 표현한다. 하지만 갈고리에 벗어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힘겨운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린다.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 습관화 할 수 있다. 둘째, 그 생각과 감정에 이름을 붙인다. "여기 힘겨운 감정이 있다.", "여기 누군가로 인해 슬픔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린다" 처럼 자기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셋째,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다시 집중한다. 알아차리고 이름 붙이고 난 후 무심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챙김을 통해 갈고리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할수록 마음은 편해지고 일상의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타인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 일상을 보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생각과 감정의 갈고리 때문에 힘든 상황의 압권은 아마도 콜센터가 아닐까 한다. 콜센터 속성상 직원들은 긍정적 자극보다는 부정적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매일 외부에서 갈고리가 날라온다. 청각을 통해서 계속되는 자극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정신적 건강문제, 신체적 건강문제 그리고 불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등과 같이 고통에 직면하기 쉽다. 콜센터 직무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의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온 몸으로 받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나중에 해소하는 방식, 즉 상한 음식을 잔뜩 먹고 나중에 치료를 하는 형국이다. 이것은 올바른 방법도 아니고 지속 가능한 처방전이 아니다. 처음부터 부정적 정보를 자신의 몸과 마음에 담지 않는 것, 즉 상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콜센터 업무도 자극에 대한 자동 반응이 아니라,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늘려서 선택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와 고통은 훨씬 경감되고, 고객만족과 생산성은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정적 정보 자극을 자신의 몸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 순간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듯 어떤 걸림도 없이 지나가게 할 필요가 있다. 갈고리에 걸리지 않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마음챙김은 자기인식과 자기조절 등 정서지능을 강화시킨다는 과학적 근거들이 무수히 많고, 특히 감정노동 직무 수행자들에게는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로 적극 추천되고 있다.

>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등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지속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스스로 독을 주입하는 것"

콜센터의 경우 직원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 있고, 헤드셋을 사용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오디오를 통해 마음챙김 훈련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다. 하루 5시간 마음챙김 훈련을 하는 것보다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다른 교육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콜센터에서 마음챙김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조는 쉽게 만들 수 있다.

실제 캐나다 몬트리얼 대학의 사이먼 그레고리 교수와 그의 동료는 콜센터의 업무특성과 마음챙김 훈련의 핵심 요인을 잘 조합하여 콜센터 직무특성에 특화된 5주간의 마음챙김 기반 프로그램(MBI, Mindfulness-Based Intervention)을 실시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프로그램은 5주간 진행되었다. 매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콜센터 직원들은 아침 업무시작 직전에 10분간 오디오를 통해 마음챙김 명상에 참여를 하고, 점심 식사 직후 5분간 오디오를 통한 마음챙김 명상에 참여하게 된다.

오디오 컨텐츠는 약 20여년간의 마음챙김 명상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개발하고 직접 녹음을 하였다. 참가자의 91%가 여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35.8세였다. 효과성 측정은 프로그램 실시 전, 프로그램 종료 직후, 프로그램 종료 5주 후 3번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의 공식 훈련 시간은 총 약11시간 45분이다. 인지교육 3시간과 매일 15분씩 5주간 훈련을 합한 시간이다. 매주 마음챙김 대상을 바꾸어 가는 구조화된 교육을 한다. 짧은 교육시간이었지만 효과는 크게 나타났다.

첫째, 프로그램 진행 전체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심리적 고통(스트레스, 불안, 우울, 권태, 부정 정서 등)이 감소하였고, 마음챙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년간 정체되었던 고객만족 지표가 좋아졌다. 셋째,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 구성원들이 매일 직장 생활에 임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내부 구성원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구성원들이 부정적 자극에 대한 감정조절 능력이 강화되면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편안하고 지혜로운 고객 대응이 가능해진 것은 개인의 삶은 물론 조직의 성과 측면에서도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삶속에서 생각과 감정의 갈고리에 걸리지 않는 지혜는 이미 부처님께서 오래전에 설하셨다. 상윳따 니까야(S36:6) 화살경에서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셨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살에 맞았지만 그 첫 번째 화살에 연이은 두 번째 화살에는 맞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의 화살로 인한 괴로움만 겪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괴로운 느낌에 접하더라도 결코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광란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느낌, 즉 육체적 느낌만을 경험할 뿐이다. 그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할 때에도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괴로운 느낌을 경험할 때에도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할 때에도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중략)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을 일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라 하나니, 그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 정신적 고통, 절망에 매이지 않으며 그는 괴로움에 매여 있지 않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와 배우지 못한 범부간의 차이점이고, 특별한 점이고 다른 점이다." 정말 지혜로운 가르침이다.

두 번째 화살을 맞더라도 좋다 싫다 판단하지 않고 현재의 느낌만 알아차리면 된다. 앞서 말한 알아차리고-이름 붙이고-현재로 돌아오면 된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서 물러나거나 도망가지 않고 온전히 가치를 향해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갈고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상황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고통은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중도(中道)적 삶이 아닐까 한다.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본방을 놓친 그대에게..

더욱 기억하기 쉬운 방송시간!
BTN 불교TV 대표 프로그램
(2023년 1월 2일 부터)

본방송 당일 재방송!! 그래도 못 보셨다면 주말 찬스!!





법상스님만의 논리적이면서도 편안한 생활법문
본방송 월 07:30
재방송 월 19:30 / 토 22:30



철학자 강신주의 중국 선종 무문관의 화두 이야기
본방송 월 12:00
재방송 월 20:30 / 토 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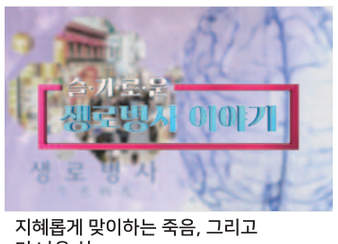
문광스님이 쉽게 해설하는 선문염송
본방송 화 07:30
재방송 화 19:30 / 토 12:00



고통에서 행복으로..멘토들이 전하는 행복강연
본방송 화 13:00
재방송 화 20:30 / 토 23:15



자현스님과 광우스님의 '맛있는 수다', 재미있는 불교공부
본방송 수 07:30
재방송 수 19:30 / 일 14:00



지혜롭게 맞이하는 죽음, 그리고 더 나은 삶
본방송 수 13:00
재방송 수 20:30 / 일 22:50



BTN불교TV 최고인기프로그램! 시대 맞춤형 생활법문
본방송 목 07:30
재방송 목 19:30 / 일 22:00



오늘 좋은 씨앗은 내일 좋은 열매!
본방송 금 07:30
재방송 금 16:00 / 일 21:00



부처님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현스님의 명쾌한 강의
본방송 금 08:30
재방송 금 19:30 / 토 15:00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23 호 현대불교
2023년 2월 15일(음 1월 25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자기 성품을 발견하려면 일체를 주인공에다 되놓는 작업을 하라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봄을 맞이한 듯 날씨는 벌써 더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사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마음에 봄을 지니고 항상 봄처럼 그렇게 여유 있게 어깨를 쭉 펴고 사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똑같이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 온 분들도 있으니 그렇기도 하고 또 오래됐어도 새로 오는 분들보다 외려 못한 분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죠. 오늘은 상근기에서 좀 얘기하고 또 중근기 하근기로 내려가도록 하죠. 간단간단히 비유를 해 봅시다.

상근기에서 본다면, 만약에 조그마한 법이라도 얻을 게 있다면 그것은 윤회법이요, 인과법이요, 과보를 받는 법이요, 또 윤회하는 법이라 이렇게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생사는 면치 못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얻을 법이 있다면 그건 윤회법이요, 인과법이요, 과보를 받는 법이요, 윤회하는 법이라 생사를 면치 못한다."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잘 생각하셔서 넘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뜸을 들입니다. 허허허.

그리고 부처를 이루려면, 즉 '자유인이 되려면' 하는 소립니다. 주인공의 성품을 발견해야지 만약에 성품을 발견치 못한다면 그것은 외도를 범하는 격이 되죠. '유의 법' 만의 떡 하나를 집어 먹고 그게 걸려서 모두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와 같죠. 그러나 그 정신세계 무의 떡과 유의 떡을 한데 합쳐서 집어삼키면 아주 깨끗하고 청정하기가 이를 데 없이 만사가 오케이죠. 그 차이가 그렇게 무섭답니다. 유의 법 50%의 떡 하나를 그냥 먹고 지내는 거와, 무의 법 50%의 떡과 유의 법 50%의 떡 둘을 한데 합쳐서 하나로 삼키는 것, 닥치는 대로 삼키는 것의 그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모릅니다.

부처란 업보도 없고 인과도 없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기능, 한 견해, 한 소견에 집착을 한다면, 여러분께서 집착을 한다면 그것은 자부처의 주장자가 허용치 않습니다. 이건 상근기의 얘깁니다. 절대 스스로서 허용치 않습니다. 부처란 이 지킨다는 게 없기 때문에 범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본래 성품은 항상 공해서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닦는다 증득한다 이런 것도 없으며 원인과 결과도 없습니다. 부처는, 자부처는 계를 지키지 않으며 그 반면에 범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는 선을 닦지도 않으며 악을 짓지도 않습니다. 부처는 정진을 하지 않으면서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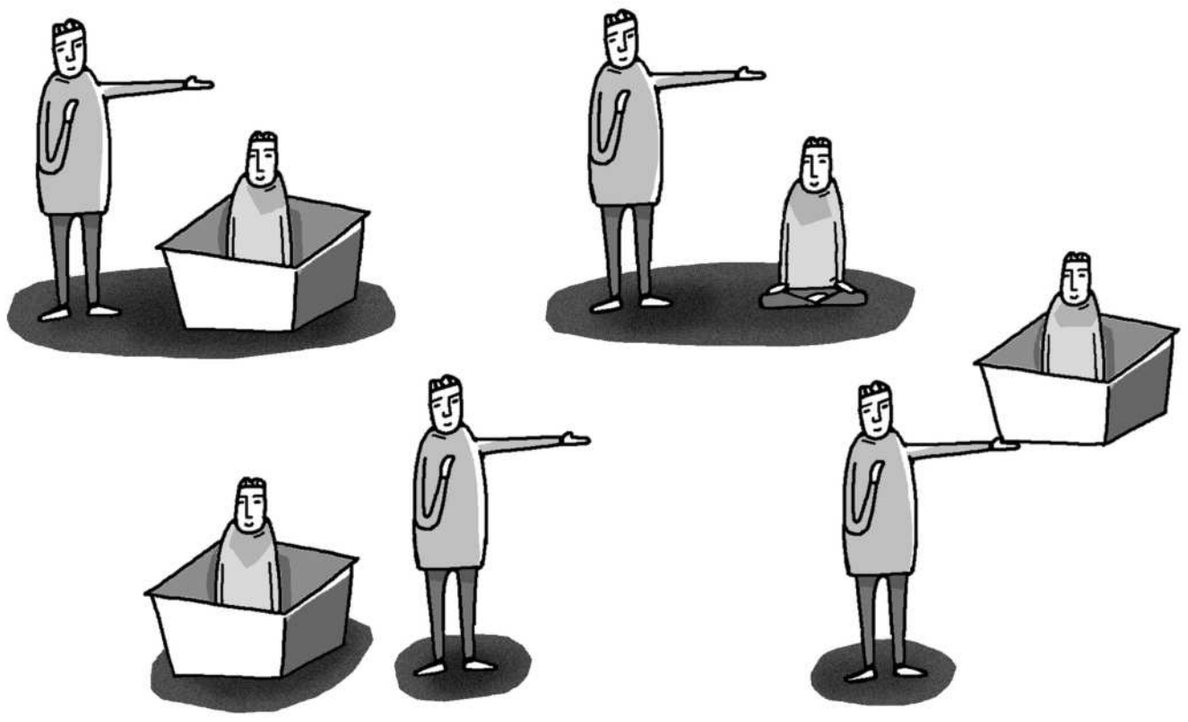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부처는 작위 없는 자유인이라서 어떠한 것에도 집착한다면 스스로서 주장자가 허용치 않습니다. 이것이 죄가 될까, 이것이 죄가 안 될까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리에, 이 말에, 이 뜻에 모든 걸 한번 기울여 보신다면 한 찰나에 넘어갈 수도 있을 터인데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나쁘고 좋은 건 다 아시죠? 이거 하면 나쁘다 좋다 이런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강도도 강도질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알면서 합니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이나 사기질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번연히 나쁘다는 걸 알면서 하는 거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탄생을 했다 하면 주인공입니다. 생명과 마음 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거, 이것이 종합해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부처인 줄로 아는 것도 또는 부처가 아닌 줄 아는 것도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대로 주인공이자, 주인공이 과거로부터 벌여 놓고 어저께 벌여 놓은 게 오늘에 닥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저지른 것 당신이 해결해라.' 이거지, 누가 대신 아파 주고 대신 죽어 주고 대신해 주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가 저질렀으면 자기가 거둬야 하는 것이 분명한 거죠. 자기가 잘못 저질렀으면 자기가 고통을 받는 것이요, 자기가 잘했으면 자기가 즐거울 것이요. 여러분을 이끌고 성품을 발견해서 제대로 걸음을 걷게 하려면 자기가 저지른 것 자기한테 되놔라 이 소립니다.

자기가 본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어른이 됐으니까 일을 하는 거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공이 다 일들을 하고 모두 행하고 생활을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딴 놈이 해 주는 거 없어요. 각자 하는 거죠. 과거에도 그렇게 살아왔고 현실에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자기 주인공한테 되놓으라는 거고 되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입력은 한계가 있지만 인간의 컴퓨터에다 입력하는 거는 한계가 없고 자동적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자기가 저지른 거 현실에도 자기가 저지르고, 잘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잘하든 잘못하든 모든 걸 당신이 하는 거니까 몰락 당신한테다 놔라 이 소립니다. 그렇게 자기가 저지른 거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자기가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생활 전체가 바로 자기가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다 되놔서 입력이 되게 해라 이겁니다. 자기가 한 것대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자꾸 나오니까 그 자리에다가 되놔서 되입력이 된다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이 들어가는 대로 현실에 또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에다가 자꾸 놓고 관하는 데도 안 됩니다." 이러거든요. 이건 아주 하근기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모든 건 여러분, 각자 여러분께서 하는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못났든 잘났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의 뿌리요 주인공이지 다른 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통해서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모든 것이 주인공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에다 되놔라 이 소립니다. 그래야 주인공의 그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각자 여러분이 그대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하는 일을 주인공한테다 되놔라 이겁니다. 그러니 못 믿고 믿고 이런 게 없죠.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심성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인공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주인공에다가 관하고 그랬는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는데, 만약에 부산으로 차를 타고 갔으면 타고 올 수도 있어야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타고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해야 이 끊임없이 이어서 진리의 길이 되는 거지, 끊어진다면 어떻게 진리라고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잘못하는 일도 있고 잘하는 일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여러분이 다 잘하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선장을 만들어 놓고, 아까 얘기처럼 잘못하게 되면 그 잘못하지 않게 가차 없이 쳐서 거기다가 되놓고 잘못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너무도 잘못하고 잘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잘되는 건 감사하게 놓게 하고 또 잘 안되는 거는 '아, 나를 가르치느라고 이러는구나.' 하고 돌려서 '너만이 잘되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돌려서 놓는다면 '이거는 안 되는 것도 알고 되는 것도 아는구나.' 하고, 안 되는 거와 되는 거 그 가운데서 진짜 성립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리고 타는 그 가운데 있는 거지, 내리고 타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잘되고 못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잘되고 못되는 그 가운데에 그 자유인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려면 그 주인공 가운데서 바로 내 성품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렇게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공했으니까 모든 걸 주인공에 되놔라 이겁니다. 무슨 못 믿고 믿고가 없어요. 종교를 믿고 안 믿고 하기 이전에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타고 났으면 주인공이자, 바로 주인공이 살림을 하고 생활을 하고

☞ 22면으로 계속



모두 자기가 하고 자기가 거두는 걸 어찌 모르십니까

☞ 21면에서 계속

상대를 겪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공이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 것을 주인공 자기한테다 다시 '네가 하는 거니까 잘할 수 있잖아!' 하고 자꾸 마음의 계발을 시키면서 발전을 시키면서 창조력을 기른다면 그 가운데서 성품의 작용이 드러나게 되고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체가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주인공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모든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발전시키려면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를 주인공에다가 모두 되놔라. 잘하는 건 감사하게 놓고 잘못하는 건 잘하게 굴려서 놔라." 하는 그것이 배움의 지름길입니다.

수억겁 전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우리는 물에서 살다가 겨우 물 바깥으로 나와서 무척 오래 시련을 겪고 인간으로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서부터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자동적으로 훈련이 되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열을 받아서 골고루 모든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 바닷물이 파도가 치고 소용돌이가 생기고 위와 밑이 뒤집어지고 하면서 우리는 그 생명에 관한 건의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그러한 시련과 고난 이런 모든 게 없었더라면 우리가 진화돼서 사람으로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생사에도 교훈이 있지마는 한 찰나에 살아나가는 교훈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해서 모두 대치를 하고 살아나가는 그런 생물입니다. 우리가 땅 위로 올라와서 짐승들이나 날아다니는 새들로서 그 시련을 다 넘어감으로써 진화돼서 인간으로 형성되는 거죠. 사람도 천차만별 가지각색입니다. 짐승에서 갓 나온 사람이 있고 사람으로 세 번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사람으로 여러 번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여러 번 반복하면서 느끼고 알고 이런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또 자기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생물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생명들을 내 생명과 같이 아껴라. 살생하지 말라." 모두 이런 말들을 하셨죠. 그것이 왜냐하면 이리로 태어나면 이 부모가 내 부모요, 이 자식이 내 자식이요, 이렇게 되니까 모두 한 번씩 안 겪어 본 분들이 없어요. 부모가 안 돼 본 분들이 없고 자식이 안 돼 본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만 보고서 어찌 남을 업신여기겠느냐는 얘깁니다. 참, 내가 그거는 말로도 못 하는 말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버선목이니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허허, 나만 답답한 게 아니겠죠. 상대방들도 답답하겠죠. 그러나 더불어 나도 답답하단 말입니다. 이거는 보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때는 답답하게 '아, 주인공에다가 관했는데도 안 됩니다. 잘되다가 안됩니다.' 이러거든요. 아이, 참 내! 세상에는 사람이 태어났어도 그대로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건도 그대로 있는 물건이 없고요. 말도 한마디 했으면 그대로 그걸로만이 고정되게 말을 하는 것도 없구요, 보는 것도 그렇고 모두 일체 만법이 다 고정됨이 없죠. 그런데 어찌 되는 것만 있고 안 되는 거는 없으리까. 안 되는 것도 있어야 그 시련 속에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 가운데서 깨닫죠. 자기가 작업을 하면서 그 한 구멍으로 들고 나는 데에 지금 행을 하는 겁니다. 그 행이 없다면 바로 자기 성품을 발견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작업이라야만이 자기 성품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되놓아라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모두 하고 왔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찌 딴 사람한테 미루어서 또 딴 부처님을 찾고 이러겠습니까? 여러분이 행하고 저지르고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행을 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지금 하고 가고 있으니까 모두 벌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자식분들에게, 자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저지른 거는 네가 거두어라." 하고 아마 훈계하실는지도 모르죠. 대신해 줄 수가 없는 도리가 많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저지르고 여러분이 행하고 과거로부터 행하고 왔던 거 지금도 행하고 가는 거, 그 여러분이 하고 있지 누가 딴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시다가 발부릴 채여서 피가 나도 여러분이 각자 '아이고!' 하고 그 순간에 자기가 자동적으로 보현신이 돼서 자기를 어루만진단 말입니다. 딴 사람이 대신 와서 아파 줄 리가 없죠. 딴 사람이 만져 주기는 할지언정 아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생활 자체에서 아프고 좋고 나쁘고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이 겪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행한 거 여러분한테 모든 것을 되놓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해결해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거둬라. 너만이 거둘 수 있어.' 이렇게 놓는 겁니다. 거기에서 숙달이 되고 거기에서 미묘한 법을 발견해 낸다면 감응이 되겠죠. 이것이 차차차차 감응이 돼서 커진다면 이게 바로 성품을 발견해 내는 도립니다.

무조건 "나는 주인공에 관했는데도 왜 안 되느냐?" 하! 진짜로만 했으면 왜 안 되겠습니까? 만날 자기 이외의 주인공으로 아니까 그렇죠. 진짜 자기라는 걸 어찌 모릅니까? 자기가 하고 자기가 거두는 걸 어찌 모릅니까? 세계적으로 종교를 모두 믿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타신에게 기도하고 상대를 보고 믿고 찾게끔 전부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물속에서도 헤매고 물속에서 나오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그 회오리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러는데도 죽고 사는 걸 헤아리지 못합니다. 또 자식을 낳고 알을 낳고도 다 그냥 몸소 자기 몸을 던져서 죽어 버리고 이러는 시련을 겪으면서 진화가 돼서 땅 위로 올라왔는데, 땅 위에서도 지금 물주머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형국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형상을 믿거나 딴 이름을 믿거나 허공을 믿거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부처님께서도 "공덕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득이 하나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부터 먼저 알아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알게 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그 방식이 아니라면 안 되기 때문에 구멍은 한 구멍이니까 그 한 구멍에다 놓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주인공 탓을 하지 말고 가만히들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 탓이죠. 주인공이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여러분의 이름! 왜냐하면 고정됨이 없이 끝없이 돌아가니까, 보는 거 듣는 거 모두가 고정됨이 없으니까 주인공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두 주인공 죽는 법은 없죠.

이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 주인공에다 되놔라. '네가 저지른 거라면 네가 해결을 할 수밖에 없잖아! 네 머리가 잘못 돌아가서 잘못된 거라면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그 모든 거를 거기에 맡겨 놓는다면 이 몸속에 있는 모든 의식들이 털구멍을 통해서 나가서 다 조절을 하는 겁니다, 둘로 보지 않으니까. '주인공!' 하면 전체 거기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니까 말입니다. 개별적인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자기가 되는 거죠. 몸속의 생명의 의식들도 모습들도 다 자기가 되는 거죠. 주인공 하나로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품의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감응도 될 수가 없고요. 만약에 타신을 찾아서 어떠한 일이 생긴다, 보인다, 들린다 이런다면 그건 미치는 발광쟁이가 되죠. 내면에 자기 주장자에 의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정의 정당하게 생활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관했는데도 왜 안 됩니까? 나는 관하는데도 안 됩디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주인공 따로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재주를 부리는 짓을 하니까 그게 안 되죠. 진짜로 자기인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살던 자기가 현실에 사는 자기와 둘이 아닌 주인공이 바로 자기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이끌어 나가게 만드는 거죠.

고인 물을 그냥 둔다면 썩어 버리지마는 자꾸 새 물이 들어오고 고인 물이 나가고 이렇게 한다면 그 물은 아주 청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목석이 되는 것이고 또한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내면서 자꾸 굴리면 바로 물리가 터지고 지혜로운 생각이 자꾸 넓어져서 자기의 성품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알고 모르고 간에 발견이 돼서 해 나가는 분도 있을 테고 또는 감응이 돼서 희미하더라도 '아, 이거로구나!' 하고 알고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 공부를 해도 그 도리를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구멍에 들이고 내는 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이 하는 거라는 것만 알면 아주 쉽습니다. 자기 따로 있고 주인공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즉 주인공이라는 얘깁니다. 주인공이 전체 하는 일을 주인공에다가 되놔라 이겁니다. 그래야 앞서에 입력됐던 것, 자기가 저질렀던 일들이 다 소멸되면서 새로이 넣는 그 입력이 새로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을 수차에 걸쳐서 해 드렸는데도 그게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러죠? 허허허.

하여튼 아주 오늘, 여러분 각자가 그대로 주인공이라는 것, 여러분 각자가 그대로 주인공이며 그 주인공이 일체를 다, 과거도 현재도 지금 하고 가는 것이라는 걸 잘 아십시오. 그런데 일체를 다, 그 주인공 놈이 한 거니까 '주인공, 너 알아서 잘 이끌어 가야 하지 않아!' 하고 거기다 되놔라, 되놓는 작업을 해라 이겁니다. 처음부터 부처를 찾기에는 너무 이르고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만 한다면 스스로 성품이 살금 살금 살금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일러 드렸는데도 허겁지겁하고 부처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허겁지겁 그냥 날뛰고, 허겁지겁 아무 이름이나 부르고 무꾸리나 하러 다니고, 급하면 그냥 아무한테고 다니면서 묻고, 아무 절에나 이리저리 그냥 다니면서 기복으로 물들고, 이렇게 하신다면 십 년 이십 년이 가도 절대로 자기 성품을 발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성품을 발견치 못한다면 외도로 전락되죠. 깨친 자유인들은 절대 무슨 '선을 닦는다' 이런 것도 없고 '정진한다' 이런 것도 없고, 또 그 대신에 악법도 짓지도 범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도리를 모르고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수억겁을 겪고 올라온 겁니다. 지금 몰라서 그렇지 수억겁을 모두 내려가 보십시오, 어떠한가. 어떠한 시련과 치욕을 겪고 올라오는가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겪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지각색의 사생들이 다 내 아픔 아닌 게 없고, 내 몸 아닌 게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없느니라. 그래서 그것을 다 얻어서 전부 꺼내 줘도 줄지 않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써, 어떠한 짐승이 원하고 벌레가 원한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그 벌레 속에 응신으로 드셔서 건져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리가 터져서 지혜가 생겨 가지고 진화가 되게 만드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어떤 거 될 때 부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벌레가 원했을 때 응신으로서 응할 때에 '내가 요런 때 부처다' 이럴 수도 없고, 하하하, 관세음보살이 됐을 때 '내가 요런 때 부처다' 이럴 수도 없고, 또 병자가 원했을 때에 약사로 응신이 돼서 응해 주실 때에 '내 요런 때 부처다' 요럴 수도 없고, 그래서 여래다, 부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부처가 아닌 것이요, 부처가 아닌 것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음 호에 계속

> 일체 만법이 다 고정됨이 없는데
> 어찌 되는 것만 있고 안 되는 것은 없으리까.
> 안 되는 것도 있어야 그 시련 속에서
>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4년 2월 20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 품 구 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 품 구 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불논단

상월결사 순례와 부처님 전법정신



석길암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3년 준비 거쳐 시작된 상월결사 인도순례
부처님 45년 동안 걸으셨던 길을 좇아서
'韓불교 중흥' 화두로, 43일 1167km 걸어

부처님, 중생들에게 행복해지는 길 알리려
열반의 순간까지 전법을 멈추지 않으셨다

걸음걸음 온 세상 채우는 서원과 깨달음 돼
저마다 부처님 꽃피워내는 순례길 되길

2월 9일, 약 3년의 준비를 거쳐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시작된다. 2019년 동안거 기간에 진행된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약 600년 동안 산중을 중심으로 전통을 보존해왔던 한국불교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산중불교에서 도심의 대중불교로, 중생이 찾아오는 불교에서 중생을 찾아가는 불교로! 그 방향성의 전환이 한국불교 중흥의 첫걸음이라는 굳건한 원력이 불자들의 화두가 되어 공감대를 찾는 순간이었다. 그러한 공감의 원천은,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성취한 뒤 45년 동안 중생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부처님의 전법 정신에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45년은 하루하루가 괴로움에 허덕이는 중생을 찾아나서는 발걸음으로 채워졌다. 맨발의 발걸음이었다. 불화에서 부처님의 두 발은 하얗고 부드러운 모양으로 묘사된다. 불자들은 45년 동안 두 발이 부르트고 짓무르고 굳은살이 가득했을 그 발바닥 대신에, 하얗고 부드러운 두 발을 그려 넣는다. 못생기고 거칠어진 두 발보다, 그런 두 발이 담고 있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심을 강조하고 싶었던 불자들의 생각이 반영되었음직하다.

부르트고 짓무르고 굳은살이 가득한 두 발로, 부처님이 45년 동안 걸으셨던 그 길을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걷는다고 한다. 43일 1167km의 여정을 걷고 나면, 순례단의 두 발 역시 부처님의 두 발처럼 부르트고 짓무르고 굳은살이 가득할 것이다. 풍토도 기후도 다른 땅이니 힘들고, 고생스럽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길일 것이다. 그런 길에 오로지 서원 하나로 동참하는 순례단을 향해 박수를 아니 보낼 수 없다.

순례단이 좇아가는 길은 부처님이 일생 동안 걸으셨던 전법의 경로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그 길 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셨다.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시자 아난만을 데리고서, 때로는 대중들 모두와 함께. 멈추지 않았던 발걸음은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중생에게 행복해지는 길을 알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절실함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절박하고 절실했던 것일까? 온전히 귀히 여겨지고 존중받아야 할 생명들이 고통에 허덕이고 있으니, 그런 중생들이 온 세상에 한가득이니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열반에 드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처님은 '한 생명 더 일깨우는' 전법의 삶을 멈추지 않으셨다.

〈수행본기경〉은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을 향해 외치신 탄생게(誕生偈)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삼계가 모두 고통이니,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역사적 사실과 관계없이, 부처님이 걸으셨던 일생의 궤적을 보여주는 한마디다. 존중받아 마땅한 한 생명 한 생명이, 모두 스스로의 존귀함을 깨달아 안락(安樂)을 얻을 때까지 걸으셨던 그 발걸음의 이유를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걸으신 전법의 행로를 순례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품으셨던 그 정신을 각자의 가슴 깊숙하게 아로새기는 행위이다. 순례단이 걷는 한 걸음마다, 부처님께서 앞서 걸으셨다.

이제 부처님께서 홀로 걷기 시작했던 그 길에, 수만리 동쪽 땅에서 이심전심으로 부처님의 길에 동참하는 이들이, 2500년의 시간을 넘어 다함께 걷는다. 그 길에 힘든 생명도 있을 것이고, 그 길에 기쁜 생명도 있을 것이고, 그 길에 가엾이 여겨지는 생명도 있을 것이고, 그 길에 존중받아야 할 생명도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그랬듯이 한 생명도 외면할 수 없는 그 길에서, 모든 생명을 아울러 세우는 절박함과 절실함이 이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도 이어지는 상생의 큰 정신으로 성취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 나아가 이 땅의 생명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채우는 서원, 온 세상을 채우는 깨달음이 되어, 지금 여기 곳곳에 저마다의 부처님을 꽃피워내는 순례길이 되기를 기원한다.

社 說

상월결사 인도순례에 거는 기대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43일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다. 2월 9일 오전 6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순례의 시작을 조계사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식을 봉행했다.

'생명존중, 붓다의 길을 걷다'를 슬로건으로 봉행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비구 56명, 비구니 12명, 우바새 6명, 우바이 6명 등 총 108명의 순례단이 목조 부처님을 모시고 순례를 진행한다. 이들은 부처님 8대 성지와 1167km를 43일 동안 걸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길 예정이다. 또한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조계종이 주최하는 다양한 문화교류행사들도 진행된다.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법어에서 말씀했듯이 상월결사의 인도순례는 "불교사상 유래가 없는 대작불사"이며 "불자들의 본분인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그대로 실현하는" 수행이다.

이번 순례는 2019년 진행된 '상월선원 천막결사' 이후 이어진 2020년 '국난극복 자비순례', 2021년 '삼보사찰 천리순례', 2022년 '평화방생순례'의 종결어미이다. 또한 3년동안 진행된 순례의 '화룡점정'이기도 하다.

길 위에서 부처님은 중생을 찾아 45년 동안 교화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다. '중생을 찾아가는 불교'를 서원했던 상월결사가 그 '붓다의 길'을 걷는다. 43일의 장정에서 순례단은 적지 않는 장애들을 맞이할 것이다. 이는 불퇴전의 정진력으로 극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저마다 한국불교 중흥의 해법을 찾길 기대해 본다.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원만회향, 무사귀환을 두 손모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기원한다.

강진 피해 튀르키예에 자비 손길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두 차례의 강진과 그 여진으로 사상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월 9일 현재 2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5000채 넘는 건물이 무너졌다. 강추위와 추가 붕괴 우려로 작업이 더뎌지면서 희생자 수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지진에 따른 전체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피해 지역 구호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피해 지역에 독자적인 지원 계획을 밝히고 긴급구호팀을 보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118명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대를 2월 8일 파견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튀르키예와 갈등을 빚고 있는 주변국도 한목소리로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튀르키예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와야 할 이유가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유엔의 파병 요청에 응했다. 전쟁 기간 중 연인원 1만 5000여 명이 참전했고 1000명이 전사했다. 튀르키예를 '형제의 나라'라고 칭하는 이유다.

튀르키예는 지금 긴급 구조 인력과 의료인, 구호 물품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시리아는 12년 넘는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차에 강진 피해까지 겪게 돼 국제사회의 구호의 손길이 더욱 절실하다.

조계종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불교계NGO 더프라미스, 나누며하나되기 등이 모연을 통해 이들을 지원한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국제사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발벗고 나서 돕는 것이 인류애의 발휘이자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이다. 많은 불자들이 '보시이타(布施利他)' 정신으로 연대, 피해 국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자비나눔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⑪ 영화 '브로커'

혈연 아닌 인연의 '가족'

'브로커'는 일본 감독(고레에다 히로카즈)이 연출한 한국영화이다. 이 영화를 한국영화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한국배우들이 한국을 배경으로 한국어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칸 영화제에서 송강호는 이 영화로 한국인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는 가족이라는 화두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다. 영화는 우성이라는 아이가 베이비 박스 시설에 버려지면서 시작된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상현(송강호)과 시설에서 일하는 동수(강동원)가 우성을 몰래 데려가고, 이튿날, 소영(이지은)이 자신의 아이를 찾으러온다. 우여곡절 끝에 이들은 우성을 잘 키워줄 새 부모를 찾기로 한다. 중간부터 여정에는 동수가 자란 보육원 원아인 해진도 동참하게 된다. 해진이 상현 일행의 동의 없이 차에 몰래 탑승한 것이다. 이 기인한 여정의 뒤를 여성청소년과 형사인 안수진(배두나)과 이은주(이주영)가 쫓는다.

영화 제목은 상현이 자칭 "선의의 브로커"라고 말한 데서 기인한다. 브로커의 사전적 의미는 중개하다, 즉, '제3자로서 두 사람의 사이를 주선하는 것'이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인연을 이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영화 속에서 우성은 사람들의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을 한다. 우성이 시설에 버려지면서 상현과 동수는 소영을 만나게 되고, 안수진과 이은주는 상현 일행을 뒤쫓게 되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은 모두 부모로부터 버림 받았거나 자녀를 버린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다. 중학생이 된 딸을 만나는 장면에서 상현이 이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빚에 쫓기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봐서 상현의 무능함이 이혼의 귀책사유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동수는 고아원 출신으로서 "데리러 오겠다."는 말을 써놓고도 결국 자신을 찾으러 오지 않은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살아왔다. 동수가 소영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가진 이유도 연락처 없이 "우성아, 미안해. 꼭 데리러 올게"라는 쪽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소영은 부모에게도, 포주에게도, 남자에게도 버림받은 인물이다. 뱃속의 아이를 낳기 위해서 소영은 남자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고, 태어난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기 때문에 새로운 부모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빛과 어둠의 활용만으로 대단히 아름다운 미장센을 연출했다. 가령, 상현 일행이 KTX를 타고 상경하는 장면은 점멸(點滅)하는 창 밖 자연광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고, 동수와 소영이 흔들리는 월미도의 관람차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고운 서정의 결이 느껴진다.

점들이 이어져 하나의 선이 되듯이, 구슬들이 이어져 하나의 인드라망이 되듯이, 이 영화 속에서는 혈연이 아닌 인연들이 이어져 하나의 가족이 된다.

〈소설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최초 최고 명품 불자 교육기관]

빛나는승려의길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교육원 개원

조계종 대덕스님 강의로 범종단 승려의 위의 · 자질 · 능력 함양을 위해

| 개원식 | 2023년 3월 8일(수) 오후 3시

| 강의일정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5시 까지 6개월



증 명
서해 흥교 대종사
(前 범어사 전계대화상)



교육원장
심 산 스 님
(흥법사 주지)



운영위원장
자 인 스 님
(길상사 주지)



교 수 사
도 일 스 님
(前 송광사 율원장)



교 수 사
무 애 스 님
(前 해인사 강주)



교 수 사
하 림 스 님
(미타선원장)



후원회장
최 금 식
(선보공업 대표)

| 교과목 | 계율과 위의 · 습의와 의례 · 초발심자경문 · 치문경훈 · 기본선과 명상 · 불교문화 · 시대적 포교와 사찰운영

신입생 모집

| 합동입학식 | 2023년 3월 7일(화) 오후 7시

기초교리학과 (수, 6개월)

■ 학장 평천 범혜스님 (한국불교 대강백 월운스님 전강제자)
불교 기초 핵심교리를 알기쉽고 체계적으로 설명

불 교 학 과 (화, 1년)

■ 불교개론 위주로 분야별 명사 초청강의

불교엘리트학과 (목, 1년)

■ 선행스님 (백양사 · 선운사 강주 역임)
원각경으로 보는 깨달음의 지혜 – 상반기

■ 정인스님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재가불자들을 위한 경전 유마경 – 하반기

문 화 힐 링 과 정

■ 수어반(월) ■ 합창단(월)
■ 다도반(월) ■ 사물놀이단(금)

부동산융합풍수학과 (화, 6개월)

■ 여해스님 (한국풍수최고봉 이산 장태상 선생 수제자)

불교문화학과 (6개월)

■ 김춘식 교수 (본교 전임강사)
사찰문화재 중심 시청각 강의 및 현장답사
▶불교문화 포교사(월) (민간자격 등록 2018-000374)
▶불교문화 전문지도사(금) (민간자격 등록 2019-000629)

※ 각 학과별 매주 1회 오후7시~9시 강의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빌딩 5층
(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

